

김 주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일본의 전다도(煎茶道)에 관한 연구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 · 소비자학과
강 현 숙

일본의 전다도(煎茶道)에 관한 연구

김 주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 · 소비자학과

강 현 숙

인 준 서

강현숙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흔히 일본의 차문화(茶文化)라고 하면 엄격한 격식에 따라 말차(抹茶)를 저어 마시는 다도(茶道) 즉 차노유(茶湯)를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다도는 크게 나누어 차노유와 전다도(煎茶道)라는 두 갈래의 다도형식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 차문화의 역사는 헤이안(平安, 794~1192)시대 초기 사이초(最澄, 767~822), 구카이(空海, 774~835), 에이추(永忠, 743~816) 등 견당승(遣唐僧)에 의해 중국의 선진문물과 함께 들어와 선원다례(禪院茶禮)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본 차문화의 본격적인 시작은 가마쿠라(1192~1333)시대 승려 민난 에이사이(明菴榮西, 1141~1215)가 송(宋)에 유학 갔다가 귀국하면서 차씨와 말차 제조법을 배워 온 후 그의 제자인 묘에(明惠, 1173~1232)에게 차씨를 보내서 교토(京都)의 도가노오(梅尾)에 심게 하면서 차문화는 꽃을 피웠다. 이후 차노유는 노아미(能阿弥, ?~1476), 무라타 슈코(村田珠光, 1422~1502), 다케노 조오(武野紹鷗, 1502~1555), 센리큐(千利休, 1522~1591)를 거치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유파만도 40여개가 넘게 발전을 거듭하는 긴 역사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일본다도계의 가장 큰 유파인 우라센케(裏千家)의 경우 2008년 7월 일본국내에 165지부와 2지소, 해외 35개국에 99개 출장소를 둘 정도로 국제적으로 성장하였음을 우라센케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성장의 원동력은 일본의 다른 전통예능과 마찬가지로 차노유도 이에모토(家元)라는 제도 하에 그 사상과 예법을 계승 발전시켜 온 데 있다. 이에모토 제도란 일본의 예도(芸道) 등을 가전(家伝)으로 계승하는 가계의 이에모토(家元)가 유파를 통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에모토라 불리는 큰 스승과 말단 제자와의 사이에 예능을 전수하는 대행기관 즉, 나토리(名取)라는

사장(師匠)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나토리 사장은 이에모토를 대신하여 예능을 교수(教授)할 수는 있어도 면허장(免許狀)의 발행권한은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나토리를 정함으로써 아무리 많은 제자가 생겨나도 이에모토를 통해서만 면허장을 발행하기 때문에 말단 제자까지 통제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간 스승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에모토의 수입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일본의 오랜 전통예능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전해 온 것은 이에모토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다도 본연의 자세 즉 선(禪)의 세계와 다도가 동일하다는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세속의 이익을 쫓는데 이에모토 제도가 일조를 한다는 점이다. 제자는 이에모토에게 교습비와 면허장을 받을 때의 공식적인 수수료와는 별도로 비공식적인 사례금과 각종행사에 드는 비용, 도구의 구입비용 등으로 상당한 지출을 해야 한다. 특히 이에모토의 싸인 하나에 물건의 평가가 급격히 높아지는 하코가키(箱書)라는 시스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이에모토 제도하에서 발전했던 차노유의 부패를 비판하고 부패한 선승(禪僧)계를 비판하여 생겨난 것이 전다도(煎茶道)라 할 수 있다. 이 전다도의 원류를 살펴보면 정행검덕(精行儉德)의 차정신에 바탕을 둔 육우의 『다경(茶經)』에서 찾을 수 있다. 당(唐), 송(宋)에서 명(明)대에서도 『다경』 류의 차를 감상하면서 음다 풍습은 계속되어 문인고사(文人高士)들 사이에서 선경에 노니는 경지를 이상으로 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 다풍은 중국 당(唐)대의 시인 노동(盧仝, ~835)을 통하여 이어졌고 이 풍습을 일본에 전한 것은 일본의 3대 선종(禪宗)의 하나인 황벽종(黃檗宗)의 시조 은원(隱元)선사로 알려져 있다. 이 새로운 전다풍을 선승들과 지식인 사이에 유행 시킨 것은 바이사오(売茶翁, 1675~1763)라 불리는 인물이다. 바이사오가 전다풍의 시조로 불리며 에도(江戸, 1603~1868)말기부터 메이지(明治, 1868~1912)시대에 전성기를 맞이한다. 종래의 다도에 비하여

형식면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오늘날 전다도 유파의 이름에 '바이사'라는 글자가 많은 것은 그가 일본 전다도의 시조(始祖)라는 이유 때문이다. 길거리에서 차를 팔던 노인 바이사오에 의해 시작되어 전다도는 지식인 문인들 사이에서 유행하여, 일본의 거대 예능집단으로 자리 잡게 된다. 현재 전일본 전다도연맹(全日本煎茶道聯盟)에 등록된 39개의 유파와 미등록 유파를 모두 합하면 100여개의 유파가 활동하는 전다도 문화를 형성하였다. 무엇보다도 전다도의 중요성은 차의 정신이다. 차노유의 규범화된 형식은 배제하지 않았지만 문인고사(文人高士)들이 즐기던 고고한 차정신은 전다도가 지향하는 중심사상이다. 또한 전다도는 유(儒)·불(佛)·도(道)의 사상이 내재되어있는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문방장식으로 선비들의 애완품인 붓, 벼루 등을 다실에 갖추고 매난국죽 등 선비취향의 꽃 장식을 함으로써 차노유와 차별화했다. 또한 다양한 꽃, 나무, 과일 등 자연을 실내에 옮겨와 불로불사의 도교사상을 표현했으며 도교에서 지향하는 불로장생의 단약(丹藥)이 바로 차였기 때문에 차를 마심으로써 불로장생을 꿈꾸는 도교사상이 내재되어있다. 찻자리에 향을 피워 주위를 맑게 하는 불교사상도 전다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다도 역시 이에모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게 되어 비판 받게 되었다. 일정한 형식 없음을 표방하였던 전다도는 수많은 종류의 다도구를 구비해야 하는 등 형식화 되었으며, 매년 열리는 전다도 대회장은 다도구 판매장을 방불케 하는 등 형식에 얽매이기는 차노유와 별반 다를 바 없게 되었다. 일본인이 격식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 신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평등사상을 주창(主唱)하던 불교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던 센리큐의 와비차 정신은 약화되고, 다도의 사상은 막부의 정치이념에 맞추어 불교적 다도관에서 유교적(儒教的) 다도관으로 변화되었다. 그리하여 조선 주자학의 형이상학적 요소를 수입하였으나 형이하학적 형태

로 변화시킨 일본의 주자학은 바꾸어 말하면 성선설(性善說)적 사유형태를 수입하여 그것을 성악설(性惡說)적 사유형태로 변환시킨 모습으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오늘날 격식을 중요시하는 일본의 독특한 다도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전다도는 일본의 다도문화의 한 흐름으로 당당히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선비들이 자연을 벗 삼아 풍류로서 즐기던 차문화와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4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일본의 전다도의 배경에는 이에모토 제도가 있으며 이 제도는 일본인의 정신의 근간(根幹)을 이루고 있다. 겉으로 보여지는 절제된 미의식 뒤에는 이에모토 제도라는 거대한 피라밋 형태의 조직체가 있어서 내면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오늘날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로 다도를 꼽는 이유도 이에모토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전다도 문화를 이에모토 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일본의 다도문화 발전사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3
3. 용어의 정의	14
II. 일본의 전다도(煎茶道)	16
1. 전다도 이전의 일본차의 역사	16
1) 차노유(茶湯)의 역사	16
2) 센리큐(千利休)의 차	27
2. 일본 전다도의 성립	33
1) 전다도의 성립 배경	33
2) 전다도의 개념	33
3) 전다도의 시조(始祖)	36
3. 전다도의 발달	42
1) 문인차(文人茶)의 성립	42
2) 차와 시(詩)의 만남	47
4. 일본 전다도의 사상적(思想的) 특징	50
1) 일본 사상의 출발	50
2) 일본 사상의 정착	53
3) 격식의 중요성과 일본 전다도의 특징	55

5. 전다도의 도구	57
1) 장식용 도구	58
2) 행다(行茶)용 도구	67
3) 동작 및 손님으로서의 행동	76
Ⅲ. 일본 전다도의 이에모토(家元) 제도	79
1. 이에모토 제도의 성립과 특성	79
1) 이에모토 제도의 성립	79
2) 이에모토 조직의 특성	83
2. 전다도의 이에모토 제도	86
1) 차노유 이에모토 제도의 영향	86
2) 전다도 이에모토 제도의 성립	94
3) 전다도 이에모토 제도의 발달	95
3. 이에모토 제도의 업적과 문제점	97
Ⅳ. 결론	102

참고문헌

ABSTRACT

日文抄録

부록

<부록 1> 전다사 연표

<부록 2> 전다도 유파

<부록 3> 차노유 유파

I. 서 론

1. 연구 목적

차노유(茶の湯) 유파의 경제력과 소속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고 연구되어진 오늘날의 일본 차노유 문화를 일본 차 문화의 전부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 다계(茶界)의 현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차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발전시키는데 차노유가 많은 투자를 하고 정성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도교육은 물론 다서의 출판과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며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차노유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일본의 전다도(煎茶道)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일본 녹차 소비량의 80%이상이 전다(煎茶)용으로 소비되고 있지만 전다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차노유 뿐만 아니라 전다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비로소 일본 다도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전다문화는 무로마치(室町, 1392~1477)시대부터 말차와 함께 행해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며 그 이전 헤이안 시대에 ‘전다’라는 단어가 기록에 등장하는 점으로 미루어 전다문화 도입은 그보다 오래전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에도시대 후기에 차노유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전다도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차노유 즉 초암차(草庵茶)는 4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와 이 시대에도 당당히 이어지고 날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경직되고 세습화, 규격화되기도 했다. 한편 차노유의 규격화에 반발하여 생겨난 전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에모토(家元)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차노유와 같은 길을 걷게 되어 비판

1) 이에모토란 일본의 예능 등을 가전(家伝)으로 계승하고 있는 가계(家系) 또는 그 가계의 수장을 의미한다.

받게 되었다. 따라서 전다도와 차노유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 사상적 배경 뿐 아니라 전다도의 유파가 100여개가 되는 많은 유파가 생겨난 원인은 무엇인지 전다도의 도구와 쓰임새, 의미에 대하여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다도’라고 하면 잎차(葉茶)를 다관(茶罐; 중국차의 경우 차호(茶壺), 일본차의 경우 규스(急須)라고 한다)에 넣고 열탕을 부어, 찻물을 우려내어 마시는 이른바 포다법(泡茶法)에 의한 다법이 주류를 이룬다. 이 다법은 일본의 전다도에 해당하며, 말차(抹茶)를 이용하여 탕수를 붓고 차 술로 저어 거품을 내어 마시는 차를 ‘오차(お茶)’, ‘차도(茶道)’, ‘사도(茶道)’ 혹은 ‘차노유’라 부른다.

차노유의 유파인 우라센케(裏千家)²⁾, 오모테센케(表千家)³⁾, 엔슈류(遠州流)⁴⁾ 등과 같은 대대로 종가제도를 운영하는 이에모토 제도가 에도(江戸, 1603~1867)시대 후기에는 전다도에까지 확산되었고, 이에모토 제도는 일본의 전통예능을 구성하는 견고한 틀로 자리 잡았다. 이는 이에모토의 지도력뿐만 아니라 부대시스템이 치밀하게 잘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특유의 제도인 이에모토 제도에 대하여 고찰하고 전다도에 있어서의 이에모토 제도의 성립과 그 역할에 대하여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 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선행연구, 용어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 2) 센케류(千家流)다도의 분파중의 하나이다. 센리류(千利休)의 손자 소탄(宗旦)의 4남 소시쓰(宗室)를 개조(開祖)로 한다. 소시쓰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은신처인 곧니치암(今日庵)다실이 본가(本家)의 뒤편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라류(裏流)또는 우라(裏)라고도 한다.
- 3) 센케류(千家流)다도의 분파중의 하나이다. 간파쿠 소탄(元伯宗旦)의 3남. 고싱 소사(江岑宗左)를 개조로 한다. 오모테류(表流), 오모테(表)라고도 한다.
- 4) 다도 분파중의 하나이다. 고보리 엔슈(小堀遠州, 1579~1647)를 개조로, 에도(江戸)초기에 성립되었다. 순주겐 이치요(春秋軒一葉)가 창시한 꽃꽂이의 유파명이기도 하다. 꽃꽂이 엔슈류는 생화(生花)가 특징이며 가지의 강렬한 완곡(灣曲)미가 특징이다.

II장에서는 도구차로 전락한 차노유의 부패한 차 정신에 반발하여 일어난 전다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차노유에 관한 역사를 개괄하고, 육우(陸羽)에서 시작된 문인차의 성립과 발달, 그리고 문인들의 차문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본에의 도입과정, 문인차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은원선사(隱元禪師)와 전다도의 보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이사오(売茶翁)라는 인물에 대한 고찰, 사상적 배경 특히 격식을 중요시하는 일본사상의 시작과 발달, 전다도 사상의 특징 및 전다도가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다실의 장식과 다도구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다도 이에모토 제도에 대하여 고찰한다. 일본사회에서 이에모토 제도가 성립한 시기와 그 사상적 특징에 대하여 짚어보고 이에모토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하여 차노유와 전다도의 이에모토 제도의 역할과 한계점도 살펴보고자 한다.

IV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고찰 결과 및 본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전다도 이에모토 제도의 사상적 배경 및 문제점,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본 연구는 일본의 전다문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전다도에 관한 자료 및 일본의 차노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일본의 차문화 전반에 관한 연구서 및 논문은 많았으나 그 대부분이 차노유에 관한 것이었다. 일본 다도 하면 일반적으로 차노유를 인식하게끔 되었고 따라서 일본 다도의 발달사도 차노유를 중심으로 서술 정립되어 왔다. 연구자가 전다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 내의 전다도에 관한 연구 자료의 제한과 특히 한국

어로 된 자료의 부재라는 여건 속에서도 전다도 연구에 의욕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일본 전체 차의 80%가 넘는 전다 소비량에 비하여 전다에 관한 부족한 자료와 인식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논하고자하는 전다도 이에모토 제도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서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먼저 차노유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탄코샤(淡交社)⁵⁾ 발행 『다도미술수첩(茶道美術手帳)』 속의 다서편람(茶書便覽), 2005년 개정판에 따르면 1211년 에이사이(榮西)의 『꼭다양생기(喫茶養生記)』 이래 일본에서 발행된 다서의 총 수량은 600여권에 이른다. 이 중 1953년~2003년 사이에 발행된 다서는 285권으로 이 중 80권이 탄코샤에서 발행된 것이다. 또한 『다도용어사전(茶道用語辭典)』(1955)·『다도고전전집(茶道古典全集)』 전11권(1956)·『원색도기대사전(原色陶器大辭典)』(1972)·『원색다도대사전(原色茶道大辭典)』(1975) 등 다도 연구에 필수적인 사전류·전집류·연구서의 발간에 탄코샤는 막대한 힘을 기울였다. 탄코샤가 우라센케 유파의 이에모토가 경영하는 출판사임을 감안할 때, 다서의 연구발전이 오늘날 일본의 다도계를 대표하는 우라센케의 눈부신 발전에 일조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차노유의 역사와 문화사를 다룬 연구서로 나가시마 후쿠타로(永島福太郎, 1968)의 『차노유(茶の湯)-일본의 전통(日本の伝統)4』은 차의 이상(理想)과 로지(露地), 탈숙에의 실천, 차노유의 역사를 원류·성립·대성·전개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메이지(明治) 이후 오늘날의 다도와 장래에 대한 전개, 현대인의 관심, 차의 인격의 변모 등을 논하고 책의 절반을 차지하는 방대한 양의 사진자료를

5) 교토(京都)시 북구(北区)에 있는 출판사이다. 다도 우라센케(裏千家) 14대 이에모토인 단단사이(淡々齋)의 차남인 고(故) 나야 가지(納屋嘉治)가 도시샤(同志社)대학 졸업 이듬해인 1949년에 우라센케의 기관지 「탄코(淡交)」를 간행하는 출판사로 설립하였다. 현재는 장남인 나야 가진(納屋嘉人)씨가 경영하고 있으며, 주로 다도 관계, 교토 관계의 서적을 출판한다.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쓰쓰이 히로이치(筒井紘一, 1978)의 『다서의 계보(茶書の系譜)』는 다법의 전수, 다법의 변천, 다회기(茶會記)에 관한 연구, 다인과 다서, 다도론의 전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도론 전개의 장에서는 다도비판과 전다도서에 이르기까지 망라하여 전다도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라 볼 수 있다. 히사마쓰 신이치(久松真一, 1991)는 『다도 철학(茶道の哲学)』에서 다도론에서 시작하여 화경청적 등 15가지 다도의 주요 개념에 대하여 분석, 고찰하였다. 구마쿠라 이사오(熊倉功夫, 1995)의 『사료에 의한 차노유의 역사(史料による茶の湯の歴史)』上,下는 상권은 전다도 관련 서적을 소개하였고, 하권에서는 차노유 관련 서적을 소개하였다. 야베 세이이치로(矢部誠一郎, 1996)의 『일본 차노유 문화사의 신연구(日本茶の湯文化史の新研究)』는 오랜 기간 다도잡지의 편집을 하던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일본 다도사의 주요한 사건들을 인물과 함께 논한 연구서이다. 제1장을 전다도사 연구로 시작하고 전다도의 시조설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시카와 조산(石川丈山)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센리큐와 다이묘 다인들, 차노유의 미의식 등 차문화사의 본질을 추구한 연구서이다. 구마쿠라 이사오(熊倉功夫, 1998)의 『일본문화의 방향-차노유로부터(日本文化のゆくえ-茶の湯から)』는 일본문화에 대한 다방면의 분석을 각계 전문가와의 대담형식으로 꾸민 문화사론이다. 이구치 가이센(井口海仙, 1998)의 『다인 명언집(茶人のことば)』은 센리큐100수와 다인 명언집, 다인의 일화 등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마쿠라 이사오(熊倉功夫, 2000)의 『차노유의 역사(茶の湯の歴史)』는 마실 거리와 일본인, 차의 뿌리, 모이는 즐거움, 낚다에서 다회로 발전하는 과정, 투다 문화와 접대로서의 차 그리고 차의 예능화에 대한 역사와 와비에 대한 고찰, 테마에 · 숲 · 가이세키요리 · 조오 · 센리큐에 이르기까지 다도사 전반을 다룬 연구서이다. 쓰쓰이 히로이치(2003)의 『다서의 연구(茶書の研究)』는 ‘스키펡류(数奇風流)의 성립과 전개’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중국과 동아시아의 사료, 일본 다회의 기록,

근세의 다서, 데마에(手前)⁶⁾의 실상과 다인 계보, 명물 기록, 다도론의 전개, 다도 비판론, 스키⁷⁾와 도가(道歌)문학, 근대의 다서까지를 망라한 다서의 총람이라 할 수 있다. 구와다 다다치카(桑田忠親, 2004)의 『다도 역사(茶道の歴史)』는 노아미(能阿弥)에서 시작된 다도의 성립에서부터 다도를 대성시킨 슈코⁸⁾(珠光)·조오·센리큐⁹⁾의 소개와 다도의 발전기, 보급기(普及期), 격식화 그리고 현대 다도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다도의 특징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서적이다. 다니 아키라(谷晃, 2007)의 『다인들의 일본문화사(茶人たちの日本文化史)』는 일본차의 전래에서 음다 풍습의 확산, 차노유의 대성과 방향을 인물중심으로 엮어나간 차문화사이다. 특히 4장의 차노유의 전개에서는 전다에 관한 역사와 이에모토 제도의 공적과 문제점, 센리큐의 신격화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어 전다사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다서이다.

차노유에 관한 문헌 및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다니 아키라(谷晃, 2002)의 『다회기의 연구(茶会記の研究)』는 다회기(茶会記)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에서 시작하여 다회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다구의 변천, 중국·일본·한국의 도자기, 요리, 데마에의 성립과 변천 그리고 차노유에 있어서의 ‘스키’를 각 시대별로

6) 데마에(手前)란 다도에서 차를 다리거나 다려서 손님에게 내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7) 스키(数奇)란 다도의 아칭(雅称)이며 풍류와 아취를 의미한다.
 8) 무라타 슈코(村田珠光, 1423~1502)는 무로마치시대 중기의 다인이며 야마토(大和)출신이다. 이큐 소준(一休宗純)에게서 참선하고, 선원(禅院)에서의 차노유를 통하여 집단의 본의를 터득하여 와비차의 창시자로 불린다.
 9) 센리큐(1522~1591)는 아즈씨모모야마(安土桃山)시대의 다인으로 사카이(堺)출신이다. 본명은 요시로(与四郎), 소에키(宗易)라 하였다. 와비차(侘茶)의 대성자로 센케(千家)의 개조이다. 차노유를 다케노 조오(武野紹鷗)에게 배우고 초암(草庵)풍의 다실을 완성하였으며, 조선 다완이나 일상 잡기(雑器)를 다도구에 접목하였다. 또한 라쿠다완(楽茶碗)의 제작·지도도 하였다.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시대에 벼슬하였으나 히데요시의 명에 의하여 자결하였다.

분석한 연구서이다. 하야시야 다쓰사부로 외 2인(林屋辰三郎, 1971)에 의한 『일본의 다서(日本の茶書)』 제 1권은 첫머리에 다도의 역사를 간략하게 싣고 대표적인 일본의 다서인 『깍다양생기(喫茶養生記)』 · 『깍다왕래(喫茶往來)』 · 『산상종이기(山上宗二記)』 · 『분류초인목(分類草人木)』 · 『고전직부전서(古田織部全書)』 · 『남방록각서(南方録覺書)』 등 6편을 해설을 첨가하여 수록하였다. 제 2권에서는 『다화지월집(茶話指月集)』 · 『매산종다보략(梅山種茶譜略)』 · 『청만다화(靑灣茶話)』 · 『청풍쇄언(淸風瑣言)』 · 『다도훈(茶道訓)·다사정(茶事掟)』 · 『전다조지남(煎茶早指南)』 · 『전다결(煎茶訣)』 · 『깍다변(喫茶弁)』 · 『차탕일회집(茶湯一会集)』 · 『우현야화발취(又玄夜話拔萃)』 · 『우리들의 차노유(おらが茶の湯)』 등을 주요 부분을 발취하여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다. 『태양(太陽)』 제 150호의 「센리큐 와비의 다인(千利休侘びの茶人)」(1975)은 센리큐의 탄생에서 죽음, 사카이의 차문화 등에 관하여 특집으로 소상하게 다루고 있다. 히가시 기미(東君, 1998)의 『차에서 다도로(茶から茶道へ)』는 일·중 양국의 차문화 역사와 함께 일상적 음료인 차가 다도라는 고상한 문화로 발전해가는 정신적 사상적 배경을 중국 고대의 ‘기(氣)’의 개념과 양생사상·본초학·신선사상의 방향에서 중국과 일본의 차문화 전체를 조명하고 있다. 다나카 센노(田中仙翁, 2003)의 『다도 입문(茶道入門)』은 다실과 로지(정원)·다도구의 변천사·다도의 역사·다도관련 인물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입문서이다. 쓰쓰이 히로이치(筒井紘一, 2004)의 『남방록(南方録¹⁰⁾』은 사카이의 난슈지(南宗寺) 2대 난포 소케이(南方宗啓)가 스승인 센리큐의 가르침을 기록한 글인 『남방록(南方録)』중에서 센리큐의 다법의 기본과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차정신이 잘 나타난 제1권 ‘각서’

10) 모모야마시대의 다도서이다. 7권이 전해지며, 난포 소케이(南坊宗啓)의 저서로 1593년경 성립되었다. 스승 센리큐로부터 배운 다도의 마음가짐과 비전(秘伝)을 기록한 것이며, 후쿠오카(福岡)의 성주인 구로타 미쓰유키(黒田光之)씨의 신하 다치바나 지쓰잔(立花実山, 1655-1708)에 의한 위서(偽書)설도 있다.

부분을 현대어로 해설한 책이다. 『남방록』은 센리큐 사후 100년이 지난 후에 발견되었는데, 전 7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1권이 각서(覺書), 2권이 회(會), 3권이 붕(棚), 4권이 서원(書院), 5권이 대자(台子), 6권이 묵인(墨引), 7권이 멸후(滅後)로 되어 있다. 차노유의 인물연구서의 경우 구마쿠라 이사오(熊倉功夫, 2007)의 『이이 나오스케의 차노유(井伊直弼の茶の湯)』가 있는데, 차노유에서 손님을 초대하기 위한 시작에서 끝까지의 주의사항을 기록한 교본인 이이 나오스케의 대표적 저술인 『차탕일회집(茶湯一会集)』에 관한 분석과 이이 나오스케라는 인물에 대한 연구 및 다회·다도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발간된 일본의 차노유 관련 논문과 연구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문화정(1984)은 일본문화의 특이성에 관한 고찰에서 문화의 정의, 무가문화의 성립과 그 특색, 다도문화의 형성과 그 특색, 일본 종교문화로서 일본교가 지니는 특색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조용란(1998)은 다도의 와비 일고찰에서 다도의 성립과 와비차 이전의 와비, 와비차의 시작과 완성, 『남방록』에 나타난 와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안귀선(2000)은 한일 양국의 다도의 특성 고찰에서 초의(草衣)와 센리큐의 생애와 다도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김현아(2001)는 한일 차문화 교류가 천리휴의 와비차에 미친 영향에서 한일 차문화 비교를 초암다실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노근숙(2004)은 천리휴를 중심으로 한 일본 차문화에서 센리큐는 일본 차문화의 정신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바로 선종(禪宗)에 기반을 둔 사규(四規) 즉, 화경청적(和敬清寂)과 칠칙(七則)이 다인의 차를 끓이는 마음가짐이라 하였으며, 센리큐가 추구한 차정신은 인간평등사상이라 하였다. 이은주(2004)는 일본 와비차(わび茶)의 성립에 관한 고찰에서 일본차의 발생에서 형성과정까지를 논하고 와비의 변천과 성립, 슈코, 조오, 센리큐에 이르기까지 차의 특징을 논하였다. 최영재(2004)는 한일 차문화에 나타난 미의식 고찰에서 한국 차문화사와 미의식, 일본 차문화사와 미의식을 논하고 양국의 미의식을 비교하였

다. 김경애(2006)는 일본 와비차의 성립과 전개에서 일본 다도의 근본 사상인 와비에 대한 성립과 발달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미쓰다 가즈노부(光田和伸, 2006)는 일본 다도의 양식과 전통에서 차의 예술화, 일본 다도의 성립의 근본에는 일본 전통시가인 렌가(連歌)의 향유와 사고방식의 수용이 있었다고 하였다. 박민정(2006)은 산상종이기(山上宗二記)에 나타난 다인관에서 야마노우에노 소지의 출신과 활동, 『산상종이기』의 성립과 구성, 와비 다인관을 연구하였다. 쉐 겐시쓰(千玄室) 著, 박전열 역(2006) 『일본 다도의 마음』은 일본 차노유에 관한 안내서로서 테마에, 다회, 다도구, 정원, 가이세키와 와비를 사진과 함께 소개한 서적이다. 정영희(2005)는 천리휴의 다선 수행 연구에서 일본다도의 고전인 『남방록』에 나타난 센리큐의 다도관을 살펴봄으로써 다도의 본질을 찾고 초암차의 실천적 측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일본에서 전다도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먼저 사료로서 오바쿠산만푸구지 소장본(黄蘗山万福寺所藏本)으로 고유가이(高游外, 1763)의 『매다옹게어(壳茶翁偈語)』는 일본 전다도의 시조로 알려진 바이사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다.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 1794)의 『청풍쇄언(淸風瑣言)』은 초기의 전다서 중 가장 잘 알려진 책으로 중국다서에 근거하면서 전다의 역사, 품질, 전다법, 물 등에 관하여 아키나리 자신의 의견을 기록한 것이다. 후카다 세이이치(深田精一, 1849)의 『목석거전다결(木石居煎茶訣)』은 1권이 전다도구에 관한 해설이며 2권은 전다에 관한 이론서이다. 바이사 도규(壳茶東牛, 1857)의 『전다기언(煎茶綺言)』은 글 중에 전다가계보를 신고 있어 후대의 많은 연구가가 참고로 하였으나 그 기술에 있어서 신뢰성이 없다는 평을 얻고 있는 서적이다. 오가와 가신(小川可進, 1857)의 『후락당끼다변(後樂堂喫茶弁)』은 가신의 제자가 출판한 것으로 음양오행설에 근거하여 서술하였다.

전다도에 관한 논문은 아래와 같다.

쓰쿠다 잇키(佃一輝, 1999)의 전다의 미의식의 변천(煎茶の美意識の変遷)은 『다도학대계(茶道学大系)』에 수록된 것으로 바이사오 이후 일본 전다계의 중심인물인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 1734~1809)와 기무라 겐카도(木村蒹葭堂, 1736~1802)에 대한 연구와 우에다의 바이사오 및 기무라 비판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바이사오와 기무라에 있어서의 거속(去俗) 즉 속세를 배제한다는 의미와 아키나리에 있어서의 19세기 전다의 미의식으로서 일반화 된 청아함의 개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오가와 고라쿠(小川後樂, 1999)는 현대의 전다(現代の煎茶)에서 도쿠가와 막부 말기에서 메이지, 다이쇼 시대의 전다문화에 대하여 논하였다. 대 전다회(大煎茶会)의 성행에서, 재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다, 종장과의 대두, 오가와 가신의 「깍다」 제창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오가와는 먼저 차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고 차나무의 재배에서 물·불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가지 흐름으로 전다이에모토의 탄생을 들었는데 오가와 가신(小川可進)·다나카 센노(田中仙翁)·기무라 겐카도 등이 전다유과의 이에모토가 되면서 전다도가 이에모토 제도화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하야가와 몬타(早川聞多, 1999)는 바이사오란 인물, 바이사(売茶)라는 말, 바이사오의 주변인물을 소개하면서 바이사오란 인물의 출현은 일본문화사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하였다.

전다도에 관한 단행본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모리시다 호도(森下邦堂, 1973)의 『전다예식(煎茶礼式)—황풍전다예식(皇風煎茶礼式)』는 고후센차레시키유과에 대한 소개와 테마에, 도구 그리고 예의범절 편을 실었다. 유가와 세이 외(湯川制, 1973) 슈후노토모샤편(主婦の友社)편 『전다전서(煎茶全書)』는 전다석, 다사(茶事), 도구, 차에 관한 지식과 역사, 유과, 테마에에 이르기까지 11인의 전문가의 글을 수록하였고 3년 후인 1976년에는 『속전다전서(続煎茶全書)』가 출간되었다. 속편에서는 바이사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실었으며 다양한 유과의 테마에를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와타나베 타쿠야

마(渡辺琢山, 1976)는 『전다에의 초대(煎茶への誘い)』에서 전다의 다법을 11가지로 분류하고 동작과 도구의 설명, 간략한 역사를 수록하였다. 오가와 고라쿠(小川後楽, 1980)는 『차문화사-깍다취미의 흐름(茶の文化史-喫茶趣味の流れ)』을 통하여 육우를 비롯한 당대의 시인에서 시작하여 일본으로 흘러 들어온 깍다취미의 역사를 중국 현지조사를 토대로 연구하여 편찬하였다. 슈후노토모샤(主婦の友社, 1981)의 『현대전다도사전(現代煎茶道事典)』은 사전이라고는 하나, 가나다순의 지식사전이 아니라 전국의 20개 전다도유과 이에모토와 전다도 전문가 60인의 집필진에 의해 전다에 대한 지식, 문인화, 전다회의 기록, 전다도구의 당물(唐物), 전다의 역사, 주요 인물, 각 유과의 다법 등을 주제별로 한 권의 책에 정리한 것이다. 하세카와 쇼쇼교(長谷川瀟々居, 1983)는 『전다지(煎茶志)』를 지어 중국의 차, 당송대의 단차의 쇠퇴와 말차의 원류, 그리고 원·명대의 전다의 원류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일본의 전다 및 엄다(淹茶)¹¹⁾와 다기의 변천사,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 다노무라 치쿠덴(田能村竹田) 등의 전다가들의 차에 대하여 논하고, 다기고(茶器考)에서는 다구의 역사와 변천에 대하여 사진을 곁들여 특정 유과에 치우치지 않고 서술하였다. 슈후노토모샤(主婦の友社, 1985)편, 『전다의 테마에(煎茶の点前)』는 32인의 전다도 유과 이에모토의 테마에 모습과 24개 유과의 테마에 과정을 사진과 함께 수록하여 전다도의 실제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오카쿠라 가쿠조(岡倉覚三, 1991)는 『차의 책(茶の本)』에서 차에는 예술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유과가 있고, 차의 진화는 대략 전다, 말차, 엄다의 3대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들 차의 음용방법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야마모토 히로부미(山本博文, 1993)의 『에도성의 궁정정치(江戸城

11) 엄다란 엄다법의 하나로 『다경』에는 조차, 산차, 말차, 병차가 있는데 조차는 차잎을 잘라서 만들고, 산차는 불에 튀어서 만들며 말차는 불에 구워서 만들고 병차는 찢어서 만드는데 이것들을 병에 저장하였다가 탕수를 부어 마시는 것을 엄다라고 한다고 하였다(井口海仙, 1978:107).

『의정정치』』는 구마모토(熊本)성주였던 호소카와 다다오키(細川忠興)와 부친 사이에 왕래한 편지 연구를 통하여 무가(武家)정치 하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연구서이다. 전다문화연구회(煎茶文化研究会, 1997)의 『전다의 세계(煎茶の世界)』는 전다문화사와 그 흐름을 간략하게 싣고 책 내용의 대부분을 할애하여 차 우리는 법, 다도구, 다화(茶花), 문방장식에 이르기까지 전다도에 관한 실재를 알기 쉽게 서술한 소개서이다. 오쓰키 미키오(大槻幹郎, 2004)는 『꺾다문화고(煎茶文化考)』에서 은원선사, 월담도징(月潭道澄), 황벽(黃蘗)의 승려 등 중국 문인들의 다시(茶詩)와 노동(盧仝)·소동파(蘇東坡)를 비롯한 중국의 문인다시와 오산문학속의 다시,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1561~1619), 이시카와 조산(石川丈山), 바이사오(売茶翁)로 대표되는 일본의 문인다시를 연구하여 문인차의 계보를 정리하여 문인차의 특징으로서 다시가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에모토 관련 연구서는 다음과 같다.

이에모토 제도에 대한 연구는 니시야마 마쓰노스케(西山松之助)씨가 많은 연구 업적을 남겼는데, 이전에 비하여 연구 환경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런 종류의 연구는 이에모토들이 소장한 자료가 중요한 연구 자료인데, 유과간의 민감한 부분도 있어 이에모토들이 좀체로 이를 공개하지 않아 이전에 비하여 연구가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니시야마(西山松之助, 1959)의 『이에모토의 연구(家元の研究)』에서는 이에모토 제도의 연구사와 더불어 무가·사원·전통문화 영역에 있어서의 이에모토 제도와 그 문제점, 이에모토의 종류와 형태에서 비전의 원류와 제도의 원형에 대하여, 성립의 실태, 무가·민중사회·특수한 사회에 성립한 각각의 이에모토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니시야마(西山松之助, 1962)는 또한 『현대의 이에모토(現代の家元)』에서 이에모토 제도의 시비론, 이에모토의 종류와 그 개황, 이에모토와 유사(類似)한 집단, 일본무용·고우다(小唄)·노(能)의 이에모토, 이에모토의 실태와 새

로운 이에모토의 난립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이시모리 에이코(石森叡子, 1977)는 『전후 일본 전통을 망친 다화도의 이에모토(戦後日本の伝統をダシにした茶華道の家元)』에서 현대사회의 이에모토들의 부패 실태를 취재 발표함으로써 이에모토 제도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니시야마(西山松之助, 1982)는 『이에모토 제도의 전개(家元制度の展開)』에서 검도, 스모를 비롯하여 19가지의 이에모토의 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였고, 2장에서는 현대의 이에모토 제도에 관하여 이에모토 제도의 시비론, 종류와 개황, 이에모토와 유사한 집단, 일본무용, 고우다(小唄), 노(能)등에 관하여 분석하였고, 이에모토의 확대재생산 구조, 권위를 동경하는 일본인, 도피처로 삼는 발상법, 이에모토 제도의 문제점과 전통, 일본의 거대 문화집단 소계쓰카이(草月会) 및 이에모토 제도 연구의 시각으로 구성하였다. 프란시스 슈(1998)의 『이에모토의 나라 일본』은 일본사회에 대한 심리 인류학적 접근서이자 이에모토 제도에 관한 연구서이다. 가토 에쓰코(加藤恵津子, 2005)는 『다도는 왜 여성 전유물이 되었나-다도에서 본 전후의 가족(お茶はなぜ女のものになったか-茶道から見る戦後の家族)』에서 다도의 구조와 메이지유신에서 제 2차 대전 전후의 가족과 다도, 다도와 여성의 연결 등 다도와 여성을 둘러싼 사회현상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여성 다도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이에모토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에서 발행된 이에모토 제도에 관한 논문으로는 김백봉(1984)의 일본의 이에모토 제도(家元制度)가 전통보전(伝統保全)에 미친 영향이 있다. 김백봉은 논문에서 ‘예’의 개념을 예술의 원초적인 형태는 ‘놀이’요 ‘놀음’이라고 하였다. 또 관능적 유희충동을 세련된 예술형식으로 고도의 문화적 고유가치로서 정착할 수 있게 한 모체가 바로 일본 특유의 이에모토 제도라 하였다. 예도관과 이에모토 제도, 예도관과 가치의식, 이에모토 제도의 허(虚)와 실(実) 등에 관해서도 논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차노유에 관한 서적에 비하여 「전다의 역사」 「전다사」라는 이름의 책이 적은 것은 전다라는 글자로 표시되는 대상이 명확하지 못한 점도 있으나, 「전다 취미」, 「전다도」로서 독립한 것이 에도시대(1603~1867) 중기 이후라는 역사가 짧다는 점도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다도의 역사와 배경 사상 및 이에모토 제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통시적 규명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3. 용어의 정의

- 1) 다도(茶道)라는 용어는 처음 에도시대 초기 차노유(茶の湯)의 별칭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도는 차노유와 전다도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 2) 차노유(茶湯)는 본 연구에서 가루차에 뜨거운 물을 붓고 찻술로 저어 마시는 차 및 그 유평을 의미한다.
- 3) 전다(煎茶)는 전다 즉 잎차를 우려서 마시는 음다법을 전다법이라 하고 전다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전다도이다. 말차(抹茶) 이외의 차를 전다라 칭한다.
- 4) ‘다법(茶法)’ 또는 ‘행다법(行茶法)’은 다도에 있어서의 동작 즉, 차를 다리거나 손님에게 내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일본 다도에서는 ‘테마에’라고 하며 본 연구에서는 ‘테마에’라 한다.
- 5) 표기법
 - (1) 고유명사의 인명·지명 : 원어의 발음을 국문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해당 외국어를 기재하였다. 예 : 교토(京都)
 - (2) 저서·작품명 :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자와 함께 병기하였다.(예 : 전다기

언(煎茶綺言)

(3) 일본어의 발음 표기 : 교육부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다.

(4) 중국의 지명·인명 : 한국어 발음으로 표기하였다.

‘茶’자의 경우 두 글자 이상이거나 한자어(漢字語)인 경우 ‘다’로 발음하고 한 글자이거나 관습으로 굳어진 용어는 두 글자 이상이어도 ‘차’로 표기하였다.

예 : ‘飲茶法’ → ‘음다법’

‘抹茶’ → ‘말차’

(5) 인명의 경우 처음에는 성과 이름을 표시하고 이후에는 이름을 표시하였다.

예 : 후루타 오리베(古田織部) → ‘오리베’

II. 일본의 전다도

1. 전다도 이전의 일본차의 역사

이 장에서는 전다도가 성립하기 이전 불교의 선승들이 도입한 차노유의 역사 및 변천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에도시대 차노유와 선승의 부패와 기만성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전다도이므로 전다도의 연구를 위해서는 차노유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아야한다.

차는 승려 에이사이(榮西, 1141~1215)에 의하여 도입되어 일반에 널리 보급되었는데 선사에서의 중요한 종교행사로 자리 잡게 되는 차가 선원차(禪院茶)이며, 넓은 중국풍의 서원식 다실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인 화려한 당물(唐物)을 장식하고 차를 즐기는 것이 서원차(書院茶)다. 이때의 차는 주인이 그 자리에서 직접 차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원에 딸린 옆방에서 시동(侍童)이 차를 내온다. 한편 8대 쇼군(將軍)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 1449~1473)를 중심으로 교토의 히가시야마(東山)지역에 유행한 또 하나의 차문화가 동산차(東山茶)이다. 동산차는 넓은 거실을 사용하는 격조 높은 다회였다. 이렇게 발전한 차문화는 점점 지배계급인 무사·다이묘(大名)에게로 확산되어 무가차(武家茶)로 이어지게 된다.

1) 차노유의 역사

(1) 선원차와 서원차

일본의 차문화가 도입 단계에서부터 선(禪)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중세 일본의 문화는 불교의 영향 하에 있

었으며 선종(禪宗)이 당시의 사람들 특히 예능 지식인들에게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나가시마 후쿠타로(永島福太郎, 1968:19)는 일본에서 차노유가 발전하게 된 하나의 요인은 남송(南宋) 선(禪)의 유행이라고 하였다. 송대의 차문화를 들여오게 한 에이사이(榮西, 1141~1215)가 차의 재배와 음다 보급에 공로가 있고 송대의 다법과 다례를 전한 공로자로 선승(禪僧) 난포조묘(南浦紹明, 1235~1308)가 있다. 이후 차는 약용이 아닌 다례로서 일반에 널리 보급되고 선사에서의 중요한 종교행사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더욱이 음다 풍습은 무사 계급에도 확산되었다. 그들은 무술수련을 위하여 선 수행에 정진하였고 선승과의 교류도 활발하였으므로 선 문화의 영향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그 무렵 도겐 선사(道元, 1200~1253)¹²⁾는 백장청규를 모델로 「영평청규(永平清規)」를 제정하였다. 「영평청규」는 엄격한 선 승려의 일상생활 규칙을 세밀하게 정한 것이다. 이러한 선원다례를 기반으로 일정한 다례를 갖춘 차노유가 성립하였으며, 서원식 차노유라는 과정을 거쳐서 무로마치시대 쇼군가를 중심으로 한 무가 차노유로 발전해 갔다.

서원차란 넓은 서원식 다실에서 중국에서 수입해 온 호화로운 장식물을 감상하며 차를 즐기는 차노유를 말한다. 구와다 다다치카(桑田忠親, 2004:21)는 서원차의 시초는 남북조(南北朝, 1336~1392)시대 사사키 도요(佐々木道譽, 1306~1373)이지만 그 양식을 완성한 것은 노아미(能阿弥, 1397~1471)라고 하였다. 노아미라는 예술가에 의한 일본 차노유의 성립은 무로마치시대 중기, 히가시야마시대라 불리는 시대에 이루어졌다. 노아미의 본명은 나카오 사네요시(中尾真能)이며 원래 에치젠(越前)의 다이묘(大名)인 아사쿠라(朝倉)의 가신(家臣)이었다. 무로마치시대의 화가이며 다인이자 렌가시(連歌師)이다. 아들에 게아미(芸阿弥), 손주에 소아미(相阿弥)가 있다. 다도의 서원식차를 완성하였고 다이스(台子) 방식의

12) 조동선종(曹洞禪宗)의 개조이다.

차를 제정하였다. 렌가(連歌)에서는 7현 중의 한사람으로 꼽힌다. 원래 무사였던 노아미는 8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에게서 도호(同朋)라는 직책을 맡고, 「노아미」라는 호를 하사받게 된다. 쇼군의 측근에서 여러 가지 예(芸)의 상대역을 맡은 사람에게 주는 칭호가 아미(阿弥)이다. 「아미」란 나무아미타불(南無阿弥陀仏)에서 가운데 두 자를 딴 것으로 출가(出家)와 속인(俗人)의 중간적 존재라는 뜻이다. 노아미는 렌가, 수목화, 꽃꽂이-리카(立花)에 능하였으며 특히 당물(唐物)을 감별하는 안목이 있었으므로 당물 회화나 도구류의 감별법과 목록을 기록한 『군대관좌우장기(君台觀左右帳記)』를 남겼다.

그 시절의 다회는 노래-렌가 모임의 형식을 흉내 내어 행해졌는데, 렌가는 가마쿠라(鎌倉, 1192~1333)시대에 성립되어 남북조시대에서 무로마치 시대에 걸쳐서 대성된 일본의 전통적인 시가의 일종이다. 렌가는 여러 명의 가인(歌人)에 의한 연작형식을 취하면서도 엄밀한 규칙에 근거한 전체적인 구조를 가진다. 와카(和歌)의 강한 영향 아래 성립하며, 후에 하이카이(俳諧)의 렌가나 하이쿠(発句, 俳句)가 여기서 파생되었다. 노아미의 공적으로 꼽는 첫 번째가 서원장식인데, 서원식 방에서 다회를 할 때의 도쿄노마¹³⁾라든지 지가이다나(엇선반)를 장식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다. 현재 건물은 남아 있지 않지만 “꼭다왕래(喫茶往来)”¹⁴⁾를 보면 그 무렵의 다실은 꼭다정(喫茶亭)이라 하여 2층으로 된 중국풍의 다실이었다. 1층은 손님이 기다리는 대합실이며, 2층은 경치를 볼 수 있도록 사방이 트인 공간으로 달구경을 하던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원차실로는 은각사(銀閣寺)의 동구당(東求堂) 동인제(同仁齋)가 있다. 이 무렵 다이스식 다도가 등장하였는데, 원래 다이스란 불전에 차

13) 그림이나 꽃꽂이를 감상하기 위해 다실 다다미방에 설치되어 있으며, 방바닥의 일부분을 한층 높여 만든 곳으로 벽에는 족자를 걸고, 바닥에 향이나 꽃꽂이 등을 장식해 둔 공간이다.

14) 『다도고전전집(茶道古典全集) 제2권』(1957:176)

를 올릴 때 사용하던 헨다용의 불구(仏具)로서 검은색의 칠기로 된 도구이다. 구와다 다다치카(桑田忠親, 2004:26)에 의하면, 노아미는 이 다이스식 차를 요시마사 쇼군 앞에서 처음 선보였다고 한다.

한편 슈코, 조오를 거쳐, 센리큐, 오리베, 엔슈에 의해 대성되는 다도에 선행하는 것으로서, 무로마치시대 요시마사쇼군의 히가시야마 산장을 중심으로 한 넓은 거실에서 여는 격식 높은 차노유 문화가 있었다. 역대 쇼군 중에서도 특히 독특한 문화 창조자였던 요시마사는 히가시야마에 산장을 짓고 얼마 후에는 은각사를 짓는다. 막부 수집품을 히가시야마 고모쓰(東山御物)라 부르는데, 요시마사 개인의 수집품뿐만 아니라 무로마치 막부의 미(美)의 진수라 해야 할 것이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실려 온 것들로 그것들의 감상, 취급법, 보존법에는 특별한 지식과 교양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쇼군의 측근에서 다실을 꾸미는 서화, 도구류의 조화를 이룬 선택과 배치 임무를 맡은 것이 도호슈(同朋衆)라 불리는 사람이었다. 도호슈의 안목(目利)에 의하여 선택된 정식도구는 당물중심의 명품들이었는데 주로 송·원·명대의 그림(唐繪)·요변(窯變)·유적(油滴)등으로 세분되는 천목다완(天目茶碗), 차호·청자·퇴주(堆朱)¹⁵⁾의 도구들과 일본산 솔·칠기 등의 격조 높은 명품으로서 이 시대에 세워진 미의식은 후대의 다인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2) 투다(鬪茶)문화

투다란 가마쿠라시대 말기에서 무로마치시대에 성행한 다회(茶會)의 일종이다. ‘음다겨루기’ 라고도 하며 음다를 이용한 놀이문화가 투다이다. 투다란 차 산지나

15) 퇴주란 칠공예 기법의 하나로 옷을 되풀이하여 두껍게 칠하여 무늬를 나타내는 일을 말한다.

물의 산지를 알아맞히는 게임을 해서 점수에 따라서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으로 오늘날의 차가부키(茶かぶき)가 일종의 음다겨루기이다.

투다에서는 본차(本茶)와 비차(非茶)를 구별하는데, 본차란 교토지역의 도가노오(桐尾)차를 말하고 비차란 그 외의 차를 말한다. 에이사이가 송에서 두 번째 귀국하면서 차씨와 말차의 제조법을 배워 온 후 그의 제자인 묘에게 차씨를 보내서 교토의 도가노오에 심게 하여 차문화가 시작된 것을 이유로 도가노오의 차를 본차라 칭한다.

하나조노(花園)천황(1297~1348)은 역대 왕 중에서도 보기 드문 학자로서 한학에 통달하고 시가(詩歌)에도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로 『풍아화가집(風雅和歌集)』¹⁶⁾이 전한다. 선종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깍다문화에도 애정을 가져 왕조적인 헤이안시대의 깍다문화부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이러한 부흥은 투다 문화를 발전시켰다.

1334년(건무 원년)에는 귀족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천황친정권의 탄생을 맞이하나 당시 조정에서는 태평성대의 과시라도 하려는 듯이 자주 투다가 행해졌음이 『화원천황신기(花園天皇宸記)』¹⁷⁾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때의 투다는 후에 나오는 사치스러운 투다가 아닌 아직 순수한 차를 맞추는 겨루기였다. 즉 비차를 가려내는 차 겨루기에서 점차 발전하여 투다로 변화해가는 것이다. 이것은 송대의 투다 즉 차 맛의 우열을 가리는 투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투다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차산지를 알아맞히는 게임이었으나 점차 도박성을 띠어 갔으며 대소 권력자가 자신의 취향을 과시하는 장으로, 무로마치 무가들의 다회는 그 부와 재력을 과시하는 장소로서 이용되었고 문인풍의 차와는 거리가

16) 무로마치(室町)시대 전기의 칙명으로 편찬된 와카슈(和歌集)이다. 20권으로 하나조노인(花園院)이 감수하고 고곤인(光嚴院)이 편집하였다. 1349년경 성립되었으며, 후지와라 데이카(藤原定家)의 손주인 다메노리(為教)를 시조로 하는 와카(和歌)의 유파인 교고쿠(京極)파의 흐름이다. 와카 2200여수가 실려 있다.

17) 하나조노(花園)천황의 일기이다. 「음다 겨루기를 함. 경품을 걸고 차의 같고 다름을 맞추는 겨루기이다. 이기면 경품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면 것이었다. 교토에 막부를 옴긴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 1338~1358)쇼군은 무로마치에 궁을 짓고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 1358~1408)쇼군은 교토의 북쪽에 긴카쿠를 지었다. 구와다 다다치카(桑田忠親, 2004:214)에 의하면, 다계에서는 고상한 취미인 깍다, 여흥으로서의 투다가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널리 깍다의 풍습이 퍼지게 되었는데, 특히 하극상이라는 사회적 풍조가 퍼지는 와중에 차문화 특히 투다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사치나 자기 과시용의 표현으로 널리 퍼졌고 다회에서도 막대한 재물을 걸고 투다가 유행 하였다. 남북조기에 유행한 유희적 측면이 강한 투다를 바사라차(婆娑羅茶)라고 한다. 다음 글을 보면 투다가 어느 정도 유행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전환기 사회를 리드하던 계층이 바사라 다이묘이며 대표적인 인물인 신흥무사계급의 사사키 도요(佐々木道譽, 1306~1373)라는 이는 700여종의 경품을 산처럼 쌓아놓고 70잔의 음다 승부를 했을 정도로 투다에 열광하였다(노근숙, 2004:21).

아시카가 요시마사 쇼군의 경우 차 문화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듯이 당시의 선승들에게 중국의 문인풍의 차에 등장하는 미술공예품의 수집을 의뢰하고 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후에 등장하는 서원차의 건축양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많은 위정자들이 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태평성대의 상징으로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서이다. 즉 태평성대의 과시야말로 권력자의 최대의 목표였던 것이다.

(3) 무가차와 와비차

서원차가 대륙에서 온 수입품으로 비싼 당물로 다도구를 구비하여 차를 하였다면, 호화로운 다도구를 배제하고 소박하고 좁은 다실에서 차노유의 근본정신을

추구하고자 와비차가 탄생하였다. 다실의 크기는 점점 줄어 다다미 1장반에 이를 정도로 작아졌다. 초닌(町人)에 의한 무로마치시대 후기의 차는 와비차로 부른다. 와비차는 원래의 취지는 소박하고 검소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나 소박한 다실에 명물 다구를 갖춘 즉, 풍요로움을 안 뒤에야 소박함을 알 수 있다는 새로운 미의식의 차문화로 탄생한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다인이 나라(奈良) 출신의 무라타 슈코(村田珠光, 1423~1502)와 사카이(堺)출신의 다케노 조오(武野紹鷗, 1502~1555)이다. 먼저 무라타 슈코는 구마쿠라 이사오(熊倉功夫, 2000:100)에 의하면

무라타 슈코는 나라지방의 사찰업무를 감독하는 직책인 겐교(檢校)였던 무라타 모쿠이치(村田壺一)의 아들로 태어나 11세에 승려가 되어 정토종 사찰인 쇼묘지(称名寺)로 들어간 다음 19세에는 슈온안(酬恩庵)에서 이큐 소준(一休宗純)¹⁸⁾아래서 참선하고 선인가증명(禪認可証明)으로 송나라의 선승인 원오(円悟)의 글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다. 조오는 이큐에게서 받은 글씨를 표구한 액자를 다실에 걸고 다구는 일본산을 사용하였다. 고승에게서 받은 글씨는 차노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식이다. 나가시마 후쿠타로(永島福太郎, 1968:19)에 의하면

오닌(応人)의 난 이후 피폐한 사회에서는 격식 갖춘 서원차는 존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슈코의 간소화한 차노유 즉 와비차는 시대의 요구에 적합한 것이었다. 슈코는 넓은 서원의 다실을 병풍으로 칸을 나누어 좁은 다다미 너장 반의 다실로 설정하고 종래의 화려한 차노유에 제동을 걸었다. 이것이 새로 탄생한 지배계급인 무사들이 채용한 차노유였다

18) 이큐 소준(1394~1481)은 무로마치 중기의 임제종(臨濟宗)의 승려이다. 고코마쓰천황(後小松天皇)의 후예로 알려져 있다. 호는 교운시(狂雲子)·무게이(夢闍)이다. 가소소텐(華叟宗曇)에게 배웠으며 다이토쿠지(大徳寺)의 주지가 되었다. 선종의 혁신에 힘썼으며 시·교카(狂歌)·서화에 능하고 기행(奇行)으로도 유명하다.

라고 하여 차노유의 발생에는 시대적 요구 또한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경향은 조오에 의해 더욱 강조되어 4장반의 소박한 초암다실로 변화한다. 슈코의 차의 특징은 인간평등관과 유현미(幽玄美)를 중시하는 미의식이 전제된 와비차의 경향을 띄었다. 구와다 다다치카(桑田忠親, 2004:42)의 다음 글을 보면 슈코의 평등사상이 내재된 차를 이해할 수 있다.

이전까지의 차는 계급의 차별이 심하였는데 차별을 없애고 평등하게 대하였다. 그 예로서 슈코는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손님을 니지리구치(躡口)¹⁹⁾를 통하여 들어가게 하였다. 원래 니지리구치는 하인이 몸을 굽히고 출입하는 좁은 문이었다. 쇼군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은 보통 문으로 출입하였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정식 다회에 초대받았을 때는 당연히 니지리구치로 출입하도록 만든 것이다. 또 다른 예는 손을 씻는 쓰쿠바이(蹲踞)²⁰⁾와 화장실인 셋친의 일이다. 쓰쿠바이는 정원에 설치해 두어 손을 씻는 곳인데 귀인은 서서 씻도록 높은 곳에 있고 하인은 쭈그리고 앉아서 씻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을 슈코는 모두 낮은 곳에서 씻도록 바꾸었다. 셋친이라고 부르는 화장실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자리세친(飾)雪隱)이라 하여 원래는 귀인이 사용하였고 다른 하나는 시타바라셋친(下腹雪隱)으로 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이었다. 그것을 모두가 시타바라셋친을 사용하게 하고 가자리셋친은 장식용으로만 두게 하였다.

이것이 슈코의 다도정신이다. 조오는 이러한 슈코의 다풍을 더욱 발전시켜 도시의 상공인계급인 초닌 사이에 널리 보급시켰고, 그 제자 센리큐로 하여금 와비차의 완성에 이르도록 이끄는 공로자였다. 구로사와 유키히로(倉沢行洋, 2003:39,131)에 의하면 슈코는 명인(名人)이란 스키샤(數寄者)²¹⁾와 차노유샤(茶湯者)를 겸비한 위에 당물을 가지고 있을 것을 명인의 자격 요건으로 들었다. 소박

19) 니지리구치란 몸을 굽히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66x63cm의 작은 다실 문이다.

20) 쓰쿠바이란 다실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입을 씻도록 준비한 돌로 된 그릇이다. 다실에 들어가기 전에 속세의 더러움을 씻고 청정무구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상징의 의미가 있다.

21) 스키샤(數寄者)란 도(道)에 전념하는 사람 특히 차노유에서 풍류인을 말한다.

한 초암다실에 훌륭한 도구를 갖추는 것이 좋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이것이 와비의 진정한 의미이다. 나가시마 후쿠타로(永島福太郎, 1968:25)의 다음 글을 보면 와비차가 서민의 차가 아님을 알게 해주는 동시에 당시 차가 부유한 계층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여 보급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조오는 와비차가 실제로 빈곤에 쪼들리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해서 안 된다고 하였다. 그 사람들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곤궁이나 고독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미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와비차는 하층 계급에서는 그다지 유행하지 않았다. 차 자체도 비쌌지만 고급 다구를 이용하는 차노유가 일반 민중에 유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와비차의 극도로 소박한 다실과 극단적인 절약을 중시하는 방법은 항상 그 환경에 익숙해 있는 민중에게는 아무런 매력도 없었다.

다만 초년계급은 상공업에서 손에 넣은 부를 바탕으로 차노유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다. 결국 와비차가 극도로 소박하고 극단적인 절약을 중시한다는 이념은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부유한 계층의 다인들이 멋으로 즐기는 소박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들 초년을 대상으로 후에 전개되는 이에모토 제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초년차는 이에모토 제도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이에모토의 종장만이 면장(免狀)을 발행하는 특권을 장악하고 있다. 즉 직접 가르치는 스승은 면장발행의 권한이 없다. 일일이 이에모토로부터 면장을 받지 않으면 그 제자에게 면장을 주지 않는다는 제도이다. 이는 도시의 다인들이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생활의 지혜였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엔슈류나 세키슈류에는 원래 없는 것이었다. 구와다 다다치카(桑田忠親, 2004:207)는 이에모토차의 성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다이묘차계에서는 각 번(藩)의 다이묘의 영지 내에서만 통용되므로 무가사회에 제한되어 있었다. 다른 유파는 그 영지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초년의 이에모토 제도의 차는 전국 어디를 가도 통용되므로 즉, 센케(千家)는

전국 어느 다이묘의 영지에 들어가도 초년 사회 속에서만 활동하면 가능한 일이었으므로 번(藩)의 경계를 초월해서 보급할 수 있는 장점 내지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이묘차는 무가사회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오모테(表), 우라(裏), 무샤노코지(武者小路)의 3센케나 야부노우치와 같은 이에모토 제도를 가진 차는 농민, 도시의 부유 상인과 같은 일반 서민계급에 의해 성립되어 있고 그 제자들에게 의해 경제적 기반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에모토 제도의 차는 성립되어 갔다. 에도시대 신분제도별 구성 비율을 보면, 19세기 초에는 농민이 84%(2600만명), 무사가 7%(210만명), 초년 6%(180만명), 기타가 3%(60만명)의 비율이었다(후나오카 마코도, 船岡誠, 2008:11). 이처럼 차노유는 농민과 초년을 합하면 에도성의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인구를 대상으로 그 경제적 기반을 다져왔던 것이다. 이에모토는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엔슈가 정비한 하코가키(箱書), 다기(茶器)의 명(銘) 등을 이용해서 권위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그 결과 차노유가 대중화되고 차노유 인구가 확대되어 위로는 쇼군에서부터 아래로는 일반인에까지 차노유를 즐기게 되었다.

한편 차는 사원 등에서 전해져서 무가쪽으로 전해졌지만 에도시대가 되면 사농공상의 신분제도상 무사라는 직업이 등장하게 되어 소위 말하는 무가류(武家流)의 차, 다이묘차(大名茶)²²⁾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센리큐의 사후(死後)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는 무가중심의 사회에서 상인의 다도가 활개를 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다이묘차를 어떻게 해서라도 표면에 끌어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서민풍의 센리큐의 차를 부정하기에 이른다.

22) 각 성의 영주들이었던 다이묘들이 무사정신에 입각한 다법을 확립한 것을 말하는데 후루타 오리베의 오리베류, 오다 우라쿠사이(織田有楽斎)의 우라쿠류, 고보리 엔슈의 엔슈류 등이 대표적이다.

구와다 다다치카(桑田忠親, 2004:114)에 의하면 센리큐는 실력주의자여서 부자상전(父子相傳) 즉 자식에게 비전(秘傳)을 전하는 세습제를 무시하고 후루타 오리베(古田織部, 1544~1615)와 같은 실력 있는 제자에게 전한다. 오리베는 쇼군 앞에서 차를 할 때는 허물없이 둘러앉아 차를 마실 정도로 권위가 있었다. 그러나 오사카 여름 전투 때 도요토미 측에 내통한 것으로 처벌을 받아 몰락하고 만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오리베의 다도 또한 후세에 대단한 이름을 남겼을 것이다.

도쿠가와 봉건사회가 확립되면서 다도는 점점 실력보다 형식적으로 변해가는데, 센리큐의 뒤를 이은 것이 고보리 엔슈(小堀遠州, 1579~1647)와 가다키리 세키슈(片桐石州, 1605~1673)이다. 엔슈는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1623~1651)의 다도사범이다. 엔슈는 중흥명물(中興名物)을 선정하고 도구의 기와메가키(極書), 하코가키(箱書), 하코(箱), 조바코(上箱), 나카가키(中書) 등을 정비하였다. 다음에 이은 세키슈는 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즈나(德川家綱, 1651~1680)의 다도사범이었다. 1628년에 세키슈는 「세키슈 300조」를 제정한다. 구와타 다다치카(桑田忠親, 2004:202)에 의하면 이는 쇼군가의 다도의 규격을 정해서 쇼군, 다이묘, 공가(公家)²³⁾, 승려, 말단 관료 등 계급별로 차를 하는 법을 규정한 것으로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쇼군 이에즈나의 요청으로 만들었으므로 세키슈 자신은 센리큐류의 다도의 비전을 전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계급에 따라 동작, 도구, 장식, 의상에 이르기까지 귀인다도 방식의 색채가 농후한, 신분에 따라 차별을 두는 차로 나누었던 것이다. 이는 원래 센리큐가 추구하였던 계급 타파 이상에는 맞지 않으나 센리큐의 방식을 따를 경우 막부의 권력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권력 앞에서는 와비차의 정신도 변형될 수밖에 없었다.

23) 천황을 보필하는 조정(朝廷)의 관리를 말한다.

2) 센리큐(千利休)의 차

(1) 센리큐의 차정신

센리큐의 차는 한마디로 ‘다선일미’라 할 수 있다. 『남방록(南方錄)』의 1권 「각서(覺書)」에는 센리큐가 확립한 초암차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쓰쓰이 히로이치(筒井紘一, 2004:14)역을 참고로 보면

작은 다실에서의 차노유의 목적은 불교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고 수행을 쌓아 깨달음을 얻는데 있다. 훌륭한 주택에서 산해진미를 즐기는 것은 속세의 일일 뿐이다. 집은 비가 새지 않으면 되고, 식사는 허기를 면할 정도면 충분하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며 본래 차노유가 소중하게 여겨 온 것이다. 물을 길어 와서 장작을 때고 물을 끓여서 차를 달여 불전에 바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다음 나도 마신다. 꽃을 꺾고 향을 피운다. 이는 모두 부처님과 고승들의 수행을 우리도 배워가는 것이다. 더 이상 자세한 것은 너 자신이 깨달아서 하나하나 밝혀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글에서 센리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도의 의식과 불교의 수행을 한가지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의식보다는 개인의 수양에 무게 중심을 두고 다도의 의식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일본인의 의식구조는 무엇인가? 일본인은 “만물신(万物神)”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즉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에는 신이 깃들어있다고 보는 사상이다. 이 수용 자세는 사람이 태어나면 신사(神社)에 가서 복을 빌고, 죽으면 절에 가서 명복을 비는 일본 특유의 종교문화를 낳게 되었다. 기독교가 일본에서 뿌리를 내리고 존재하기는 하나 인구의 1%미만(무라카미 시게요시, 2008:228)인 원인은 기독교가 유일신 사상이기 때

문에 일본인의 정서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인은 불교의 선수행 의식을 자연스럽게 개인의 정신수양이나 전통문화를 체득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전(伝)은 조오에게서 배우고, 도(道)는 슈코에게서 배웠다고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센리큐는 슈코와 조오의 와비차를 더욱 발전시켜 차노유의 대성자가 되었고 칠십세에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자결하여 그 생을 마감하였다. 자결의 명목상의 이유는 대덕사 산문에 세워진 센리큐의 목상이 히데요시의 비위를 건드렸다고 하는 불경죄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 중의 하나는 다도구의 매매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며, 센리큐의 딸을 히데요시가 후처로 탐내었으나 센리큐에게 거절당하였다는 것과, 조선 출병에 센리큐가 반대하였기 때문이라는 설이다. 여러 가지 설이 모두 입증되지 않은 채 난무하지만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김진홍(2003:37)의 다음 견해는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당시 센리큐는 결코 탈속한 예술가가 아닌 히데요시의 권력 창출과 초기 정권수립에 깊이 간여한 최측근, 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아가 무역도시 사카이(堺)나 다이토구지(大徳寺)와 같은 자신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던 계층을 대변하거나, 그들과 최고 권력을 연결 짓는 중간가교의 역할까지도 담당했던 순수한 다인 이전에 이른바 정경유착의 핵심 상인이자 노련한 정치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치권력과 무관하게 살았던 자신의 스승들과는 달리 순수 예술가로서 생애를 마치지 못하고 정치적인 음모와 대립, 정계 개편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조선 출병에 반대하였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선에 출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성업 중이던 대륙 무역에 끼칠 악영향 때문이거나, 탄약조달의 주도권이 점차 사카이보다는 하카타 지역의 상인으로 이동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과의 이권 쟁탈전과 깊이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센리큐의 불명예스러운 죽음 이후, 그의 제자인 소위 리큐시치테쓰(利休七哲)²⁴로 불리는 각 다이묘를 중심으로 한 다이묘차가 성행하고, 귀족적인 취향의

서원차 및 중국에서 들어온 문인취향의 전다도와 함께 다양한 다도문화가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센리큐의 할복 전후로 쓰다 소큐(津田宗及, ?~1591)²⁵⁾와 이마이 소큐(今井宗久, 1520~1593)²⁶⁾ 그리고 센리큐의 수제자인 야마노우에노 소지(山上宗二, 1544~1590)²⁷⁾ 등 사카이의 다인들이 모두 실각(失脚)한다. 그 이유 역시 사카이의 상인이면서 천하제일을 노리는 자에 대하여 비난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처벌의 원인은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가장 커다란 이유로서 구와다 다다치카(2004:101)가 지적하였듯이 히데요시가 천하를 평정하고 봉건적인 사회질서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사카이의 일개 다두인 센리큐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보여진 데 있다.

요네하라 마사요시(米原正義, 1993)에 의하면, 센리큐 할복자살 후 부친인 센리큐와 함께 히데요시의 다두였던 친아들 센도안(千道安)은 난을 피해 아와(阿波)에 피신하였다가 후에 센케(千家) 재건 후에도 후사를 잇지 않고 독자적인 다풍

-
- 24) 센리큐에게서 차노유를 배운 제자 중에서, 특히 뛰어난 7인을 일컫는다. 가모 우지사토(蒲生氏郷)·시바야마 겐모쓰(芝山監物)·세타 가몬(瀬田掃部)·다카야마 우곤(高山右近)·후루타 오리베·호소가와 다다오키(細川忠興)·마키무라 효부(牧村利貞) 등이 다.
- 25) 아즈치모모야마(安土桃山)시대의 호상(豪商)이며 다인이다. 사카이출신이며, 덴노지야(天王寺屋) 쓰다 소다쓰(津田宗達)의 아들이다. 호는 유고사이(幽更齋)이며 다케노 조오(武野紹鷗)에게서 차를 배워 센리큐(千利休), 이마이 소큐(今井宗久)와 함께 삼종장(三宗匠)이라 불리었다. 『쓰다소큐 차노유일기(津田宗及茶湯日記)』가 있다.
- 26) 모모야마시대의 호상(豪商)이며 다인이다. 다케노 조오에게서 차를 배웠다.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에게 접근하여 사카이정책에 협력하여 많은 이권을 손에 쥐었다. 이후 히데요시의 다두(茶頭)가 되어 센리큐(千利休), 쓰다 소큐(津田宗及)와 함께 삼대 종장으로 일컬어졌다. 『이마이소큐 차노유일기(今井宗久茶湯日記)』가 있다.
- 27) 모모야마시대의 다인이다. 사쓰마야(薩摩屋)라 부르는 상인으로, 센리큐에게 배우고, 히데요시를 위해 일했으나 독설로 인하여 추방되어 유랑하다가 오다와라(小田原)진에서 다시 히데요시와 대면하였으나 다시 비위를 건드려 처형되었다. 다도사의 중요한 사료인 『산상종이기』의 저자이다.

을 세웠다. 이 도안계통의 차에 가다키리 세키슈(片桐石州, 1605~1673), 가나모리 소와(金森宗和, 1590~1656) 등이 있다. 한편 센리큐의 후처의 아들인 센쇼안(千少庵, 1546~1614)은 가모 우지사토(蒲生氏郷, 1556~1595)²⁸⁾의 도움으로 아이즈(会津)에 있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와 가모 우지사토의 도움으로 면죄 받고 귀가하여 후신암(不審庵)²⁹⁾을 재건하였고 소탄(宗坦)에게 센리큐의 차를 전하였다. 센리큐의 손자인 와비차로 유명한 소탄은 다이묘에게 고용되지 않는 은자(隱者)풍의 자유스러운 다풍으로 일관하였다. 소탄은 극도로 곤궁한 상황 속에서 와비차의 전통을 이어 ‘거지소탄’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센케 부흥에 노력하여 이후의 3센케 발전의 기틀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손자 세명 즉, 차남 소슈(宗守)가 무샤노코지센케, 3남 소사(宗佐)가 오모테센케, 4남 소시쓰(宗室)가 우라센케를 일으켜 그 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가다키리 세키슈는 센리큐의 장남인 도안의 흐름을 이어 받은 세키슈류의 도쿠가와 4대 쇼군 이에즈나의 다도사범을 지낸 다이묘 다인이며, 일반계급과 다이묘 또는 쇼군에게 차를 가르치는 양쪽 계급에게 차를 보급시켰다.

(2) 오리베와 엔슈

센리큐 사후, 다도는 후루타 오리베에 의하여 지도되었다. 오리베는 다이묘이며 차노유의 명인이다. 미노국(美濃国)출신으로 부친은 히데요시의 도호슈였다.

28) 아즈치모모야마(安土桃山)시대의 무장이다. 오미(近江)출신이며, 아명(児名)은 야스히데(賦秀)이다. 기독교인이었으며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섬겼고, 큐슈정벌(九州征伐), 오다와라 정벌(小田原征伐)의 공적으로 아이즈(会津) 42만석(후에 92만석)을 받았다.

29) 후신암은 교토시에 있는 오모테센케(表千家)의 이에모토 저택 내에 있는 다실이다. 센쇼안(千少庵)이 센리큐의 다다미 3장석을 복원한 것이 시초이며, 현재의 다실은 1914년에 지은 것이다. 또한 후신암은 오모테센케 유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부친과 함께 오다 노부나가를 따라 상경하여 벼슬을 하였다. 센리큐의 7인의 제자중의 하나로 꼽히며 센리큐가 말년에 히데요시로 부터 사카이에 칩거하도록 명을 받자 호소가와 산사이(細川三齋, 1563~1645)와 함께 요도(淀)까지 센리큐의 배웅을 간 일화는 유명하다. 히데요시의 오도키슈(御伽衆)³⁰가 되어 차에 관한 일을 맡았으나 히데요시가 죽자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거하며 「망각암(望覺庵)」에서 차노유 삼매경에 빠졌다. 1610년 히데요시를 거쳐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2~1616)에게 차를 바쳤으며 도쿠가와 2대 쇼군 히데다다(秀忠, 1579~1632)에게 차를 전수하여 「천하대화상(天下大和尚)」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다도사범의 시초이다.

센리큐에 의하여 대성된 차노유는 센리큐 사후 두 갈래의 흐름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하나는 센리큐의 수제자였던 후루타 오리베에 의하여 생겨난 다이묘차, 또 하나는 센리큐의 사위 쇼안(少庵)에서 손주인 소탄에 전해진 와비차이다. 『다도사전』(1978:676)에 의하면 오리베는 센리큐의 차를 발전시켰으나 다이묘차를 발전시키고 서원·다이식 차노유 즉 히가시야마 쇼군가의 차노유를 재현하고자 하였다. 히가시야마 문화를 교양으로 삼은 센리큐 이전의 차노유를 모범으로 삼은 것이다. 오리베의 차노유 예술은 정(靜)과 동(動)의 대비라 할 수 있다. 도기 재질의 흑다완이나 기독교문양³¹을 채용하기도 하고 이국적 취향을 가미한 개방적이고 참신한 모모야마예술을 도자기에 표현하였다. 특히 화려한 요리메뉴를 돋보이도록 그릇을 고안하여 오리베도자기의 명성을 높였다.

오리베는 센리큐의 수제자이기는 하지만 그의 차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잇

30) 전국시대부터 에도말기에 주군의 곁에서 대화상대역을 맡은 무사의 직명이다.

31) 당시 사카이의 문화적 요소로서 기독교의 영향 또한 간과 할 수 없다. 실제로 센리큐의 제자 중 후루타 오리베, 오다 우라쿠, 다카야마 우콘, 가모 우지사토 등 많은 무장 다이묘가 기독교 영향하에 있었으며 센리큐의 차 또한 기독교의 미사의 의식과 선원다례의 융합을 도모하였다는 견해도 있다(千宗室, 1975:89).

산 이치네이(一山一寧, 1247~1317)의 목적(墨蹟)³²⁾, 답형(沓形)³³⁾ 다완 등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그의 취향은 강하고, 크고, 밝고, 게이초(慶長, 1596~1615) 시대의 다이묘에게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오리베가 의문의 최후를 맞이한 이후, 시대의 다풍을 리드한 것은 고보리 엔슈였다.

구와다 다다치카(2004:131)에 의하면 엔슈는 넓은 시야로 만물에 흥미를 가지고, 고급의 다도구를 정리하고, 때와 장소에 따라 활용하는 기교와 연출, 도구에 이름을 부여하고 하코가키(箱書)를 정하였다. ‘기레이사비’라 불리는 엔슈의 차는 후세의 다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고보리 엔슈는 건축가, 정원사, 감정사, 문예가, 서예가(書家)이기도 하였다. 호는 고타안(孤蓬庵)이며 센리큐가 흑색을 즐겨 사용하는데 대하여 엔슈는 백색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도코노마의 벽에는 센리큐가 목적을 중요시한데 대하여 엔슈는 그림을 장식하였다. 다실은 넓게 다다미 10장을 사용하여, 센리큐의 2-3장에 비하면 상당히 넓은 차실임을 알 수 있다.

센리큐는 승려로서 고승의 목적을 장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나 엔슈는 다이묘로서 불교승려인 센리큐와는 달랐다. 이는 차노유가 종교적 수행으로부터 분리되어 개인수양으로써 널리 보급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라 볼 수 있다.

구와다 다다치카(桑田忠親, 2004:142)에 의하면 흔히 엔슈의 차를 기레이사비(きれいさび)차라고 한다. ‘기레이사비’란 ‘아름다운 사비’라는 의미이다. 오리베 사후(死後) 그의 제자인 고보리 엔슈는 센리큐 풍의 와비차(侘び茶)를 계승하는 한편 동산 시대의 서원차를 복원하여 무가차 시대를 열었다.

32) 붓으로 쓴 글씨를 말하며 필적, 서적이라고도 한다. 특히 일본에서는 선승의 필적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도에서는 그런 글을 표구한 죽자를 말한다.

33) 고대 건축물에서 본체의 양쪽 끝에 다는 새 모양 또는 물고기 모양을 가리킨다.

2. 일본 전다도의 성립

1) 성립배경

1654년 중국으로부터 은원선사의 도입과 더불어 도입된 전다문화는 일본 다도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차노유 즉 말차가 성행하던 당시에 문인취향의 새로운 차문화가 성립된 것이다. 차노유의 격식화된 풍조에 반발하여 생겨난 전다도의 계보는 차노유와 마찬가지로 육우를 시작으로 본다(榎林忠男, 1974:59). 일차인지 말차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의 정신을 중요시한다. 누노메 초후(布目潮風, 1989:246)는 “가마쿠라·무로마치 시대에 명대의 문인취향의 깍다풍습이 들어오면서, 오산의 선승들 사이에서는 한시문을 중심으로 하는 문인취향이 성행하였는데 그 결과 일본의 전다 취미가 형성되어 일본의 전다도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헤이안 시대에 전다라는 단어가 기록에 등장하는 점으로 미루어 이미 오래전 전다문화가 도입 되었다고 보는 학자의 견해도 있다(榎林忠男, 1974:18). 육우에서 노동으로 일본의 에이사이(榮西)로 이어진 전다는 묘에, 은원을 거쳐 바이사오로 이어진다.

2) 전다의 개념

전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그 어의가 애매하지만 현대어에서 전다는 먼저 차의 종류의 명칭으로서의 전다가 있다. 일본차를 주요 생산, 유통면에서 분류해보면 덴차(碾茶), 교쿠로(玉露), 센차(煎茶) 등 세 가지로 나눈다.

덴차(碾茶)는 차광 채배하여 새싹을 탄 다음 찌서 발효를 정지시켜 건조한 다음 멧돌로 갈아 가루로 낸 것으로 말차라고 부른다. 차노유·다도라고 부르는 차

에 주로 사용된다. 교쿠로(玉露)는 덴차와 같이 차광재배하나, 찢 다음 비비면서 건조한다. 에도(1603~1867)막부 말기에 고안한 제다법이다. 전다는 옥로처럼 차 잎을 기르고 옥로와 같이 찢서 비비면서 건조한다. 1738년경 나가타니 소엔(永谷宗円)이 개량해서 만든 제다법으로 전다제법의 주류를 이루며 품질에 따라 등급이 있으며 일본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차이다. 이 옥로와 전다는 가루로 만들지 않으므로 잎차라고도 부른다. 이 잎차를 물에 우려서 마시는 음다법이 전다이며 여기에 말차와 같은 다도 격식을 도입한 것이 전다식이라 불리는 전다도이다.

전다도에서는 소재로서 고급 옥로(玉露)와 전다가 사용되는데 보통 이 둘을 통틀어서 전다라 부른다. 전다 용어의 기원을 보면, 전다라는 말에는 음료의 뜻, 음다법의 의미, 유의(流儀)로서의 의미 등 세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음료로서의 전다를 보면, 전다는 원래 중국어이며 일본어로는 차를 덥는다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히가시 기미(東君, 1998:82·87)에 따르면, 잎차 즉 산차(散茶)에는 찢(蒸) 산차와 덥음(炒) 산차가 있는데 찢 산차는 약용차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육우가 『다경(茶經)』을 지어 차를 약용에서 마실 거리로 확립한 것이 중국 음다사의 제 1의 혁명이라 한다면, 차를 증제에서 덥는 것으로, 고행차에서 산차로 바꿈으로써 약용보다는 일상 음료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한 산차야말로 제 2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덥음 산차를 제 2의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큰 의미를 두는 세 가지 이유를 히가시 기미(東君, 1998:82·87)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덥음 산차의 출현으로 차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경』에 서술되어 있는 찢 고행차의 일곱 가지 제조공정인 칠경목(七經目), 즉 채(采:찾아 따기), 증(蒸:찌기), 도(搗:쪼기), 박(拍:치기), 배(焙:굽기), 천(穿:구멍 뚫기), 봉(封:봉하기)의 일곱 과정을 거치며, 도구도 최소한 15종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설비, 연료,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고행차 제법은 생산력이 낮았

다. 이에 비해 산차는 덫는다는 한 번의 화력 가공으로 간소하며, 도구도 솥과 부뚜막만 있으면 되었다. 또한 인력도 한 사람이면 족하고 소요시간도 1시간이면 되었다.

둘째, 덫음 산차의 출현으로 음용이 편해졌다. 『다경』에 기록되어 있는 음다법은 병차(餅茶)를 구워서 빵고 갈아서 끓는 물에 넣고 달여서 마셨다. 이에 비해 산차는 필요한 양만큼 다관에 덜어서 물만 부으면 간단하게 마실 수가 있다.

셋째, 덫음 산차의 출현으로 차 맛이 한층 맛있게 되었다. 차가 가지고 있는 꽃내와 쓴내는 썬서 차를 만들었을 때도 없애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육우 때는 병차를 굵거나 소금을 넣기도 했고, 송나라 휘종황제 때는 차에 있는 고(膏)를 짜내거나 용뇌(龍腦)라는 향을 첨가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가공할수록 차 본래의 맛을 잃는 고행차에 비해 산차는 덫음으로써 기존의 쓴내와 꽃내가 구수한 맛으로 바뀌어 한층 마시기 쉽게 되었던 것이다. 이 제조법은 명대로 이어졌다.

오늘날 일본의 전다도에서 사용하는 차는 고급 옥로와 증제 전다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음다법으로서의 전다는 명사적으로도 사용되어 이후에는 보통 명사로서 일본어화된 것이다.

전다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다. 전다는 본래 한자어로서 차를 마시기 위해 차를 덫는다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조동사적인 용법이다. 차의 종류나 도구까지 포함한다. 전다는 기본적으로는 물을 끓여 차를 달이는 것을 말하나, 오쓰키 미키오(大槻幹郎, 2004:20)에 의하면 차를 달인다는 행위가 문인들에 의하여 문학적, 시적으로 표현되는 단계에서 생겨난 어휘이다. 이러한 전다의 어의는 당대 이전의 차문화가 시작된 이래 생겨난 것이라 여겨지나 명확한 표현은 당대에 들어와서 생겨난 것이다. 이 용법은 시대를 초월하여 사용되어져 왔다.

차가 성행하면서 차나무의 재배와 제다기술이 개량되어 먼저 차노유의 발전은

양질의 차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고, 증청(蒸靑) 기술이 차산지인 우지(宇治)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17세기 후반, 은원의 도래를 계기로 명대 문인차와 함께 가마솔에 뒤어서 만드는 부초차가 전해지고 우지에서 차가 생산되었으나 찌는 기술은 한층 개량된 것이었다. 또 하나는 육우·노동의 문인 계보로서의 차로 사용하는 다도로서의 전다이다. 중국의 문인취미를 배우고, 물을 고르고 차를 고르고 필요한 도구와 자리를 마련하고 육우·노동의 정신인 청풍(淸風)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문아, 청아, 풍아의 취향을 지향하는 차이다. 당초에는 후카다 세이이치(深田精一, 1802~1855)가 말했듯이 일정한 법도 없이 하였으나, 얼마 안가서 전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다식이라 부르는 일정한 법식이 고안되고 여기에서 종장차가 탄생한다. 종장차는 유파를 형성하여 오늘날의 전다도로 발전하게 되고, 분화함에 따라 법식도 다양화되었다.

3) 전다도의 시조

에도 초기 전다도가 차노유에 대항해서 생겨나고 전다취미가 성행하게 되자 전다가의 시조를 둘러싸고 갖가지 전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연구자나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설인 은원선사(隱元禪師)설과 이시카와 조산(石川丈山, 1583~1672)설, 그리고 바이사오(売茶翁, 1675~1763)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은원선사(隱元禪師)

전다도의 시조로서 알려진 인물 중의 하나가 교토 우지의 오바쿠산(黃壁山) 만푸쿠지(万福寺)³⁴의 개조 은원선사(隱元禪師, 1592~1673)이다.

은원선사는 명의 선승으로 명대말기의 임제종을 대표하는 비은통용(費隱通容, 1593~1661) 선사의 계를 이어 받은 고승(高僧)이다. 중국 복건성 황벽산(黃檗山) 만복사(萬福寺)의 주지였으나 일본으로부터의 수 차례 요청으로 1654년 63세에 제자 20인을 거느리고 도일한 후에 선사의 제자가 되는 묘신사(妙心寺) 주지 류케이 쇼센(竜溪性潛, 1602~1670)선사, 고미즈노오(後水尾)천황³⁵⁾ 그리고 도쿠가와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우지에 약 9만평의 절터를 하사 받고 1661년에 중국의 절 이름을 본따서 오바쿠산(黃檗山) 만푸쿠지(萬福寺)를 지었다. 은원선사는 일본 선종 3파인 임제종(臨濟宗)·조동종(曹洞宗)·황벽종(黃檗山) 중의 하나인 황벽종을 들여온 인물이다. 황벽종과 함께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깍다문화인 전다문화도 들여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은원은 「자니관(紫泥罐)」³⁶⁾이라 불리는 다관을 항상 곁에 두고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학문 시가(詩歌)에도 조취가 깊어 고미즈노오천황의 총애를 받았다. 오가와 고라쿠(小川後樂, 1973)에 의하면,

은원선사가 도일할 때 중국풍의 깍다법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된다. 그러나 그의 차를 보면, 중국에서의 일상을 그대로 일본에 옮겨온 것에 불과하고 하나의 문화로서 깍다를 전하려는 의지는 은원선사에게는 없었다. 은원선사와 만푸쿠지의 존재는 당시의 지식인을 매료시켰고 그 영향으로 다음에 나오는 바이사오라는 인물이 탄생하였다

라고 하여 은원이 전다문화를 직접 적극적으로 전파하지는 않았지만 계기를

34) 은원(隱元)이 창건한 황벽종 사찰이다. 선(禪) 수련 도장이기도하며, 일본 황벽종의大本산이다.

35) 제108대 천황으로 재위기간은 1611~1629년이다. 고요세이(後陽成)천황의 셋째 아들로 이름은 고도히토(政仁)이며 도쿠가와 막부의 간섭과 압박에 대한 불만으로 천황자리를 양위하고 4대에 걸쳐서 원정을 하였다.

36) 적자색 또는 자갈(紫褐)색의 도기로 대표적인 것이 중국 의흥요(宜興窯)이다.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일본 전다문화의 시조로 평가하였다. 황벽종과 함께 문인사상이나 예술이 들어온 것은 도쿠가와시대 초기이며 중국의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에 해당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차노유가 이에모토 제도화되고 격식화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질 때였다.

(2) 이시카와 조산(石川丈山)

두 번째는 이시카와 조산(이하 조산이라 칭한다)을 시조로 보는 설이다.

바이주켄 도규(梅樹軒東牛)의 저서로 알려진 『전다기언(煎茶綺言)』의 전다가계보(煎茶家系譜)³⁷⁾에 의하면

일본전다의 시조는 이시카와 조산이며, 2대가 히라이와 센게이(平岩仙桂), 3대가 호오쿠 이무(舩屋一夢), 4대가 오가와 싱안(小川信庵), 5대 바이사오 고유가 이를 중흥조라 하며, 6대를 야쓰하시 호간바이사, 7대를 바이주켄 도규로 한다³⁸⁾

라고 하고 1870년(메이지 4년)까지 약 63명의 전다가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아와카와 고이치(淡川康一, 1973:245)는 조산이 전다도의 시조라는 전제 하에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차노유의 시조가 센리큐이고 전다의 시조가 조산이라면 전자가 불교승, 후자는 유학자(儒學者)라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비교대상이다. 즉 차노유가 선사상(禪思想)적 배경에 근거하였다면, 전다도는 조산의 경력에서 보듯이 주자학에서 그 사상적 배경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37) 『전다기언(煎茶綺言)』 황벽산만복사소장본(黃蘗山萬福寺所藏本)(1857:15).

38) 煎茶家系譜 元祖六々山人丈山居士¹⁾-平岩仙桂-舩屋一夢-小川信庵-中興壳茶高遊外居士-八橋壳茶禪翁方巖-壳樹軒壳茶東牛-号魁々園(중략)明治4年....(이하 생략)

윗글은 차노유와 전다도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글이기는 하나 조산설에 대하여는 여러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산설의 진위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나, 전다도의 역사의 흐름을 고찰함에 있어서 일본 전다도의 시조는 중요한 논점이므로 몇몇 연구자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야베 세이이치로(矢部誠一郎, 1992:4)는 조산을 전다도의 시조로는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의문점이 있으며, 에도 중기의 전다가인 오가와 싱안(小川信庵)이 조산을 시조로 내세워 아류의 격식화를 위하여 획책하였다고 하였다. 나라바야시 다다오(榎林忠男, 1969:3~4)는 『전다기언』이 그 기술에 있어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한 예로서 『전다기언』은 문화(文化)년간(1804~1820)에 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전 페이지에서 보았듯이 메이지 4년(1870)의 전다가의 이름까지 미리 열거되어 있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오가와 고라쿠(小川後樂, 1981:402)도 『전다기언』 자체가 신뢰성에 결함이 있으므로 이시카와 조산을 일본 전다도의 시조로 보기는 의문스럽다고 하였다. 이상 몇 가지 설만 보더라도 조산을 전다도의 시조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바이사오

바이사오 즉 차를 파는 노인이라는 의미의 바이사오는 에도시대 중기 일본에 전다를 보급시킨 일등공신이며 문인 취미의 새로운 차문화를 여는 선구자적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는 승려였으나 승려직도 버리고 오로지 전다문화의 보급으로 일생을 마감하였다. 하야카와 몬타(早川聞多)는 바이사오의 등장을 가리켜 바이사오 사건이라고 하였다. 하야카와 몬타(早川聞多, 1999:267)는 바이사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때는 교호(亨保)20년(173) 에도막부가 열리고 130년 (중략) 교토 외곽의 산기슭 소나무 아래 낮선 모습의 노인이 나타나 차를 파는 소박한 다점을 열었다. 가게이름을 통선정(通仙亭)이라 하고 점두에는 「청풍(淸風)」이라고 쓴 기를 매달았는데, 또 가게 앞에 적혀있기를 “차값은 황금 백 냥이든 반 푼이든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냥 마셔도 좋지만 공짜보다 싸게는 안 됩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예사로운 노인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 거기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중국풍의 의상을 걸치고 차를 파는 이상한 모습이라니. 얼마 안 있어 그 노인은 봄이면 경치 좋은 꽃그늘 아래, 여름이면 시원한 개울가로, 가을이면 단풍나무 아래로 옮겨 다니며 차를 팔았다

위의 글에서 보면 바이사오의 차를 파는 행위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며 뜻한 바가 있어 매다 활동에 나선 것을 느낄 수가 있다. 바이사오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어릴 때 이름은 기쿠센(菊泉)이며 나중에 시바야마 모토아키(紫山元昭)라 칭하였다. 사가시(佐賀市)의 무가에서 출생하여 11세에 류신지(龍津寺)의 개조 계린도류(化霖道龍, 1634~1720)에게 출가하여 게카이(月海)라 칭하였다. 계린은 임제종의 분파인 황벽종파에 속하는 승려로 일본에 황벽종을 도입한 은원선사의 제자인 도쿠단 쇼케이(独湛性瑩, 1628~1706)의 법을 이어받은 선승이었다. 13세에 바이사오는 계린을 따라 우지에 있는 본산 만푸쿠지에 가게 되고 거기서 그의 총명함을 알아본 계린의 스승 도쿠단으로부터 게를 하사받는다. 22세에는 절을 떠나 센다이(仙台)·오미(近江) 등지에서 10년간 행각수행을 한 후 33세(1707년)에 다시 교토로 돌아와 1720년 계린이 입적할 때까지 절에 머무른다. 바이사오가 전다와 접하게 되는 것이 이 시기이다. 우연히 나가사키(長崎)에서 청나라 사람에게 전다법을 배운 뒤 수행제자인 다이초 겐코(大潮元皓, 1676~1768)에게 류신지 절을 물려주고 1722년에는 절을 떠난다. 이후 그의 행적은 20년 후인 1731년 57세에 교토에 상경하기까지 묘연하다. 60세에 통선정(通仙亭)을 지어 전다에 의한 매다 활동을 시작하였고 68세에 이름을 고유가이(高遊外)라 고치며 사람들에게 바이사오로 알려졌다. 부패한 선승(禪僧)사회와 차노유의 기만성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문아청유(文雅淸遊)의 수단으로서의 전다

의 보급에 힘써 전다정신의 대성에 기여하였다. 시게모리 미레이(重森三玲, 1982:368) 는

에도시대에 와서 바이사오 고유가이 거사가 나타나 드디어 전다가 확립되게 되었다. 이시카와 조산을 전다의 시조로 보는 이도 있으나 조산은 약간의 전다운 면은 있으나 아직 전다로서 확립된 것이 아니었다. 바이사오대에 와서 처음으로 전다다운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바이사오를 시조로 보아야한다

라고 하여 바이사오를 일본 전다도의 시조로 보았다. 모리모토 신코(森本信光, 1973:302)에 의하면 전다도의 시조를 바이사오로 숭배하는 것은 각 유파마다 이론(異論)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차노유에서의 슈코나 조오, 센리큐에 대한 개념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즉 바이사오는 당시의 문인들에게 전다도의 방향은 제시하였어도 다법이나 다례에 관한 형식은 전혀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후세의 사람들이 외형적인 부분만을 모방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 형식상 자유스러운 점이 차노유와는 구별되는 전다도만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오가와 고라쿠(小川後樂, 1973)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겐로쿠(元祿, 1688~1704)시대의 불교는 기독교 대책의 수단으로서, 정신을 무시하고 정치적 도구화로 된 이래, 그 문화적 가치를 잃어 가고 있었다. 거기다 막부에 의한 주자학의 장려로 불교는 멀리하고 부정하는 시기였다. 다만 은원의 오바쿠산 만푸쿠지만은 명나라의 풍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국적 정서와 중국 유학에서 자극받은 지식인들로부터 관심을 모았다. 면학에 정진하면 할수록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승계(僧界)의 타락이었다. 그는 부패한 선도(禪道)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사명감으로, 승려도 아닌, 도가(道家)³⁹⁾도 유자(儒者)⁴⁰⁾도 아닌

39)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인 제자백가의 하나인 도가의 사상을 가리킨다. 노자·장자가 중심인 데서 노장사상이라고도 한다.

40) 유교를 스스로의 행위규범으로 삼아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으로 유자·유생이라고도 한다.

진실로 독립한 인간으로서 걸을 길을 택하게 된다.

윗글에서 보듯이 바이사오는 오직 선계의 잘못된 정신을 바로잡겠다는 일념으로 57세라는 고령에 다시 상경하였으며 문자 그대로 여생을 마감할 시기에 ‘바이사오’ 즉 차를 파는 노인으로서 나선 것이다. 바이사오의 눈에는 승려복을 입고는 있으나 그 마음은 속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차를 배우고 권세가들과 어울려 값나가는 다도구를 늘어놓고 다회를 여는 당대의 차노유의 승려를 비판한 것이며, 당시의 형식화한 불교를 상징한 다선일미라 불리는 말차 즉 차노유를 비판한 것이다. 그리하여 바이사오는 선에 대한 새로운 정신세계를 구현하고자 말차도가 아닌 전다도를 택하기로 결심하고 차를 파는 행동을 통하여 정신적 내용이 중요함을 보여준 것이다. 깍다가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다경』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 즉 지(智), 덕(德)을 갖춘 우아한 차를 추구할 것을 주장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일본 전다도는 1654년 중국으로부터 은원선사의 도입과 더불어 도입되었으며 차노유가 성행하던 당시에 문인취향의 새로운 차문화로서 차노유의 격식화된 풍조에 반발하여 생겨났다. 전다도의 계보는 차노유와 마찬가지로 육우를 시작으로 보며, 차의 형식이 아니라 문인취향의 정신을 중요시한다. 육우에서 노동으로 일본의 에이사이로 이어진 전다도는 묘에, 은원을 거쳐 바이사오로 이어진다.

3. 전다도의 발달

1) 문인차의 성립

문인차의 원류는 당의 육우의 『다경』의 성립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의 「다

가(茶歌)」, 송대 소식(蘇軾)의 다시(茶詩)에 의하여 발전하여 명의 오파(吳波)⁴¹⁾ 문인 문징명(文徵明)⁴²⁾에게로 계승된다. 원에서 명대에 걸쳐 잎차가 주류를 이루고 음다법이 변화해도 문인차로서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일본에는 처음에 선종을 통하여 도입되어 오산승에게 계승되어 일본화된 것이 문인차이다.

문인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다양하다. 한시문(漢詩文)을 잘하고 전다를 즐기고 당물을 좋아하는 공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문인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는 유학자·자연과학자도 있으며, 가인(歌人)·국학자·화가 등도 포함되었다. 일본의 문인이 중국으로부터 모방하였다면 중국에서의 문인이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와카와 고이치(淡川康一, 1973:242)는

중국에 있어서의 문인이라는 개념 속에는 문인취향을 가지고 있을 것과 시·서화에 능하고 철학가이며 동시에 정치를 보는 안목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구양수(歐陽修), 소동파(蘇東坡), 주자(朱子) 등은 정치가이면서 철학자이며 동시에 문학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말(元末)에서 명초(明初)에 걸쳐서 그 조건이 분리되어 정치에 관여하는 태도로부터 일변하여 문학에만 전념하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그 이유로서는 비한민족(非漢民族)에 의한 지배와 정치 사회의 혼란을 들 수 있다. 정치로부터 차단된 문인들은 산림에 한거하면서 술과 함께 전다를 즐겨 이것이 문인취미의 하나로서 전다를 드는 이유이다

라고 하였다. 다도의 시조로 꼽히는 당대 육우의 행적 또한 보면 벼슬자리를 사양하고 은거하여 차를 즐기며 저술활동을 하였다는 기록(千宗室, 1983:22)이 있

41) 고증학의 학파로서는 혜동(惠棟)을 중심으로 하는 오파(吳波)와, 대진(戴震)을 중심으로 하는 완파(皖派)로 나뉘는데, 오파가 한유(漢儒)의 학설을 묵수(墨守)하고 복고(復古)를 주장한 데 반해, 완파는 반드시 그것에 구애받지는 않고 창조적인 연구를 계속 추진하였다.

42) 문징명(文徵明, 1470~1559)은 중국 명대 중기에 활약한 문인이다. 시서화에 뛰어나 3절(三絶)로 불린다. 특히 그림에서 오파문인화의 대가인 심주(沈周)의 뒤를 이어 침주(沈周), 당인(唐寅), 구영(仇英)과 함께 명대 사대가(四大家)로 추대되었다.

다. 노상균(2005:154)은

중국의 전통사대부들은 공자의 이른바 “용지즉행(用之則行), 사지즉장(舍之則藏)”과 맹자의 “궁즉독선기신(窮則獨善其身), 달즉겸제천하(達則兼濟天下)”의 말을 가장 이상적인 처세기준으로 삼아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대를 만나면 정치에 참여하여 창생을 구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만나면 조용히 집에서 머무르면서 수양을 닦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고 하였다. 즉 은거생활을 하는 것 또한 문인의 자격조건 중의 하나로 된 것이다. 일본에 문인사상이 도입된 도쿠가와 막부 초기의 문인들⁴³⁾도 사회제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끊고 자유 한적한 중에 자신들의 예술과 사상을 높여가고 있었는데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 1734~1809)도 그 중의 한사람이다. 또한 당시 문인사회의 핵심이며 본초학자인 기무라 겐카도(木村蒹葭堂, 1736~1802)가 중심이 되어 만든 전다 모임이 「세이후샤(淸風社)」이다. 초기 문인이 만든 자유를 기초로 하는 정신세계는 전다이념의 형성에는 크게 영향을 끼쳤으나 그들이 이 시대에 맡은 사회적 역할은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반사회적 자세의 원인이 극히 개인적인 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존재는 일반인에게는 부랑자(浮浪者)로서 위화감을 주위에 주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에 비해서 후기 문인의 배출에는 하나의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 막부 말기의 일본은 소위 막번체제(幕藩体制)⁴⁴⁾의 통일 지배에도 그들이 드리워지고, 정

43) 초기 문인이란 바이사오가 차를 팔던 보력(宝曆)시대(1751~1764)에서 영안(永安)·천명(天明)시대(1772~1789)의 약 반세기동안 등장했던 시은적(市隱的)인 문인들을 가리킨다. 여기에 대하여 초기 문인과 같은 경향을 가진 막부 말기의 문화·문정기와 천보시대(1804~1844)에 등장한 문인을 가리켜 후기 문인이라 한다(植林忠男, 1974:78).

치의 혼란, 지배계층의 질적 저하, 계속되는 이상 기후로 인한 기아, 경기 침체와 더불어 세습제가 부활하여 인재 등용을 위해 열려 있던 등용문도 다시 닫히고 지식인들은 야망을 잃고 재능을 초야에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이 후기의 문인들이었다. 당시 에도에 핀 초닌문화는 문화문정기(文化文政期)⁴⁵⁾를 정점으로 그 완숙기를 맞이하고 있었으나 시대사조에 등을 돌린 배제된 문인들은 그 활동 무대를 에도가 아닌 교토에서 찾았다. 후기의 문인들은 겐로쿠시대의 문화의 중심인 교토에서 의식이 낮은 에도 초닌문화를 비아하고 반발하는 것으로 자기중심적인 강렬한 개성을 만들어 갔던 것이다(小川後樂, 1973:409).

윗글을 보면 당시의 어두운 사회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후기의 문인 유평을 엿볼 수 있다. 막부말기 문인의 한 사람인 라이 산요(賴山陽)는 권력을 쫓는 저(低) 차원의 차는 경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였다. 즉 생기를 잃은 봉건사회에 등을 돌리고 시문 회화의 세계에 몰입했던 그들은 스스로의 자유를 갈구함과 동시에 고답적, 귀족적 성격도 갖추고 있었다. 다예(茶芸)를 자부하는 그들의 예술지향적 삶이 전다에도 예술적 세련미를 더 했을 것이다. 자칫 귀족적으로 고립할 뻔 하였던 전다가 반 권위적 입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사오의 차 한 잔에 한 푼이라는 대중적인 활동 덕택이다. 그러므로 전다는 취미로 세련되어

44) 에도시대 막부와 그 지배하에 있는 번들을 통치기구로 하는 봉건적 지배체제를 말한다. 쇼군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로서, 영주가 농민으로부터 연공을 징수하는 제도로 성립되어 있다.

45) 에도시대에 발전한 초닌문화로 정치·사회나 일상생활을 풍자하는 문학으로서 센류(川柳)가 유행하였다. 또한 짓펜샤 잇쿠(十返舎一九)의 『동해도중슬물모(東海道中膝栗毛)』가 서민생활을 흥미롭게 묘사하였다. 판화에서는 다채로운 표현기술이 발달하였고, 에도에서 발생하여 상인 등의 전국적 교류나, 출판·교육의 보급에 의하여 전국 각지로 전해졌고 내용도 다양화되었다. 이때는 문화의 중심이 관서지방에서 에도로 옮겨가게 된다. 다만, 음악이나 도예처럼 관서지방에서 특히 발전한 것도 있다.

가는 한편 항상 일반 민중 속에서 그 기반을 다지고 반권위주의를 표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문인들 중에는 규칙이 없음을 구실로, 아취풍운(雅趣風韻)은 물론, 자법(煮法), 우리는 법, 차 맛, 향기는 무시하고, 그냥 마시는 것만으로 고답적 입장에 취하는 듯한 착각에 빠진 이른바 방탕한 문인들도 생겨났다. 1855년 사망한 후카다 세이이치(深田精一)⁴⁶는 『목석거전다결(木石居煎茶訣)』에서

전다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인차, 또 하나는 속인차이다. 이것은 유학의 세계에도 군자와 소인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전다가는 속인차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무렵 다나카 센노(1782~1855), 오가와 가신(1786~1855)에 의하여 양자를 합하여 종장차가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일본의 전다이에모토 제도 즉 차노유의 다도와 대비되는 전다도의 명칭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면 전다문화가 들어 올 당시 중국의 차문화는 어떠하였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육우의 『다경』 저술과 함께 불교가 성행하여 사원에서는 수행을 하는데 차가 졸음을 막아주어 일상적으로 이용되었다. 김진숙(2005:64)은 그 당시 엘리트 계층들이 차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일반인들에게 확산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당 중기 이후 불교가 중국화 되면서 유불도(儒佛道) 삼교는 상호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융합과 합일을 하게 되었다. 상당수의 신유가(新儒家)는 불교나 도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승려 및 도인들과도

46) 후카다 세이이치(1802~1855)는 나고야(名古屋)오와리(尾張藩) 다이묘의 가신이며 유학자이다. 후카다(深田)가의 7대 영주이자 오와리번주인 유관(儒官) 후카다 고지쓰(深田香実)의 장자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세이이치(精一) 호는 하쿠신안(百信庵)·복세키교(木石居)이다. 전다법에 박식하여 『전다결(煎茶訣)』을 저술하였다.

교유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음다풍속을 이어받게 되었다. 이 차문화가 일본에도 전해져서 일본 전라도에도 도교의 신선사상이 다도형식에 나타나게 된다. 신미경(2008:23)은 과거시험에 참가하는 문인과 시험관인 한림관(翰林官)을 위로하기 위해 조정에서 차와 건과(乾果)를 하사하여 마음을 안정시켜 응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송대 음차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황제부터 시중의 하층민까지 음다가 쌀이나 소금과 같이 빼놓을 수 없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무인이 득세한 오대에는 많은 문화 활동이 불가능하였으나, 남쪽 지방에서는 문인들이 차모임을 하였으며, 차에 관한 저술활동도 지속되었다.

2) 차와 시(詩)의 만남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차는 졸음을 막아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수행과 학문에 도움을 준다. 학문을 하는 문인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다. 선수행을 하는 승려와 문인들은 음다 생활을 즐기면서 많은 다시(茶詩)를 남겼으며 그 다시를 통하여 후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문학세계와 정신세계, 당대의 차문화도 엿볼 수가 있다. 노동(盧仝, ?~835)의 「다가(茶歌)」는 전다를 노래한 대표적인 시라 할 수 있다.

노동(盧仝)의 「다가」는 다음과 같다⁴⁷⁾.

첫째 잔은 목과 입술을 적시고

둘째 잔은 고독과 근심을 없애주며

셋째 잔은 글재주가 없는 이에게도 많은 시구가 저절로 떠오르게 한다.

넷째 잔은 가벼운 땀과 함께

47) 오쓰키 미키오(大槻幹郎)역, 2004:182

평생의 불만 모두 모공에서 나오는 땀과 함께 사라지네
 다섯 잔에 피부와 뼈가 깨끗해지며
 여섯 잔 만에 선인의 경지에 도달 하였다네
 일곱째 잔은 채 다 마시기도 전에
 양쪽 겨드랑이에서 맑은 바람이 일기 시작하네 48)

노동의 다가에 나오는 일곱 잔의 차는 다시의 고전이라 할 정도로 고급의 다인들이 즐겨 읊는 시이다. 차를 여섯 잔 마시고 신선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는 차의 세계의 진면목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또한 계쓰단 도초(月潭道澄, 1636~1723)의 전다가(煎茶歌)를 소개하고자한다. 계쓰단 도초는 1661년 15세에 은원선사의 보좌관이었는데 그때 지은 전다가가 전한다. 바이사오의 전다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그의 전다가를 보면 차노유에서는 볼 수 없는 문인 취향의 깍다 세계를 엿볼 수 있으므로 약간 긴 시이지만 소개하기로 하겠다. 오스키 미키오(大槻幹郎, 2004:59)의 번역을 소개해 보겠다.

나는 요즘 유행하는 화려하게 꾸민 찾자리에 그들과 동석하는 것을 바라지 않네. 산사에서 사는 것이 세속을 버린 어리석은 이에게는 어울린다네.

그 때 유명한 우지차는 아니지만 호동의 훌륭한 차를 보내온 이가 있어 그 길로 샘물을 길어다가 나뭇잎을 태워서 차를 다린다.

48) 一碗喉吻潤 兩碗破孤悶
 三碗搜枯腸 惟有文字五千卷
 四碗發輕汗 平生不平事 盡向毛孔散
 五碗肌骨清 六碗通仙靈
 七碗喫不得 唯覺兩腋習習清風生

말차와는 달리 차선도 차시도 멧돌도 필요 없고 다만 물을 충분히 끓여 다관의 차를 잔에 따라 마시면 목을 축이고 뱃속에까지 스민다네.

석잔을 마시고 나면 정신은 맑아지고 새 울음소리가 들려서 창가에 다가가 조용히 들으면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 곳에 전다의 아취가 있다.

어느 날 행각의 수행승이 암자를 찾아와서 선의 참 정신이 무엇인가 물었다. 월담은 천천히 다기를 꺼내어 차를 다려서 그 아취를 맛보고 차의 의의를 밝힘으로 선의 진수라 하였다.

전다를 마시는 것은 조주(趙州)의 차를 거론하는 것 보다 어떻게 차의 의미를 체득하느냐에 따라 선자(禪者)의 깨달음의 정도를 시험할 수가 있고 단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명확해진다⁴⁹⁾.

노동, 게쓰단 도초 등의 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박하고 솔직담백한 세상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난 은자의 풍류세계를 엿볼 수 있는 다시이다. 종교적 의식을 초월한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전다의 멋과 풍류가 느껴지는 시이다. 당시 게쓰단 도초는 은원 선사의 보좌역으로 모시고 다닐 때였다. 다시에는 은원선사를 따라 만나는 당대의 권력자나 유명 인사들과의 자리보다도 유유자적한 산속의 음다를 선호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차를 마시고 신선의 경지에 들어간 노동도 이 전다의 선미와 아취를 잘 알지는 못할 것이라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다. 불법(佛法)을 규명하는 각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은 전다의 아취를 앎으로써 선의 정신을 체득하는 것이다. 단구(丹丘)란 신선이 사는 곳으로 노동의 다가에서 육완통

49) 野衲不愛陪綺席 痴憨只合住岩房 湖東芳薺有人餉 瓦鼎剎泉燒葉湘
不用筯匙不用磨 爛烹便酌潤枯腸 喫了三盞精神爽 倚牕靜聽鳥鳴簧 禪客過門問祖意 拈起盞子為舉揚 趙州一味驗來者 端的分明孰承當 丹丘盧仝爭得識 吾家別有好商量

선영(六碗通仙靈)이라고 한데서 노동을 신선에 비유한 것이다. 전다도 즉 차를 마시는 일은 선의 정신을 체득하는 방법인 동시에 신선과 같은 경지에 이르는 길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전다도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세속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한 잔의 차야말로 전다도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다.

4. 일본 전다도의 사상적 특징

1) 일본 사상의 출발

처음 다도가 불교문화와 함께 도입된 사실은 서두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에도 시대에는 계급적 무차별주의를 주창(主唱)하던 불교 선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던 센리큐의 와비차 정신은 약화되고, 다도의 사상은 막부의 정치이념에 맞추어 불교적 다도관에서 유교적 다도관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바로 다도의 격식화이다.

그러면 일본인이 격식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 형식면에서 자유로움을 내세웠던 전다도도 결국 격식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 까닭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일본의 사상 특히 전다도가 도입되던 에도시대의 사상을 통하여 규명하여 보고자 한다. 물론 다도는 에도시대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다도의 격식화가 본격화된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난세를 평정한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스리던 에도시대이며 에도시대는 유학이 본격화되던 시기이다.

이기동(2002:11)에 의하면 일본의 유학은 서력 284년 백제로부터 아직기(50)가

50) 아직기(阿直岐)는 백제 근초고왕 때 일본에 건너간 학자이다. 아직기는 근초고왕의

건너가고 다음 해 왕인이 건너가 『논어』 10권과 『천자문』을 전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 후 그다지 큰 발전을 보지 못하다가 에도시대 유학으로 문호를 세운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1561~1619)에 의하여 연구되고 실질적으로 정착되었다. 후지와라 세이카는 퇴계 문하의 삼걸 중의 하나인 류희춘(柳希春, 1513~1577)의 제자 허산전(許山前)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간 조선의 유학자 강항(姜沆, 1567~1618)으로부터도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 한국의 퇴계학에서 출발한 일본의 주자학은 주자학의 형이상학적⁵¹⁾ 요소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다가 급기야는 형이상학적 요소가 강한 주자학 그 자체를 부정하고 형이하학적 체계를 수립하게 된다. 이기동(2002:87)은 일본의 유학은 형이상학적 요소를 부정하고 형이하학적 체계를 구축해가는 일직선적인 변모과정이었으며 따라서 일본의 고학(古学)⁵²⁾은 일본식 주자학의 완성된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일본의 주자학은 일본 고학의 시발점이었다라고 했다.

명으로 2필의 말을 끌고 일본에 건너가 일본 왕에게 선사한 후 말을 기르는 일을 맡아보았다. 그러다 그가 경서에 능한 것을 보고 일본 왕이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그가 일본 왕에게 추천해서 왕인(王仁)도 일본에 초청되었다 한다. 일본 유학(儒学) 발전의 초보를 마련하는 데 영향이 컸다.

- 51) 형이상학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초월한 정신, 도를 가리키고 형이하학은 형상을 가진 물질 또는 그런 속성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형이상학은 사물이 형체를 갖기 이전의 근원적인 본모습이며, 형이하학은 감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을 뜻한다. 송대(宋代)의 주희(朱熹)는 "형이상자는 형체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고 도를 이(理), 성(性)이라고 해석하였고 "형이하자는 실상도 있고 모양도 있다"라고 하여 기를 기(氣)라고 해석하여 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기가 운동성을 갖는 데 반하여 이는 무위이고 기의 운동에 따르며 거기에 질서를 부여할 뿐이다.
- 52) 고학이란 일본 유학(儒学)의 일파로, 주장하는 바는 주자나 양명의 주석에 의존하지 않고 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학의 고전을 원문에 의거하여 직접 연구하여 고대 성인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에도시대 전기의 야마가 소코(山鹿素行, 1622~1685),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1627~1705),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 등 3인의 학자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실제로는 3인의 학자가 각자의 학풍과 학파를 형성하였다.

또한 이기동(2002:88)은 일본의 유학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 근본 원인을 일본인들이 형이하학적 체계를 수립하는 데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이상학적 요소를 이해하는 능력은 부족하고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성을 감지하지 않았던 데 있다고 보았다. 결국 그들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유학의 형이상학 그 자체를 수용하지 못했고, 결국 자신들의 정서에 맞게 형이하학적 체계로 변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학을 자신들의 정서에 맞게 변용한 일본의 지식인들은 유학에서 일탈하여 국학(国学)⁵³⁾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었고, 그 후 서양의 학문을 접하면서 서양의 학문에 심취하였다. 그것이 이른바 난학(蘭學)⁵⁴⁾이었다. 서양의 학문에는 기독교와 과학 사상이 있지만, 당시 동양보다 강력한 힘을 자랑할 수 있었던 서양의 과학 사상을 일본인들은 도입하였다. 힘을 중시하는 일본적 정서에 그것이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이하학적 체계를 갖춘 난학은 일본인들이 수립해 놓은 형이하학적 체계 속에 용해되기 쉬운 것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럽의 학문을 도입하기에 열중한 결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우월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적극적인 자세로 외래문화를 수용하고 그들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이기동, 2002:89).

일본 다도의 격식화, 특히 격식을 거부하고 비판했던 전다도가 격식화된 배경은 일본인의 형이하학적 사상의 경향을 이해할 때 쉽게 파악된다. 즉, 격식이라

53) 일본 도쿠가와 시대(德川時代, 1603~1867)의 주도적 학문이자 사상이었던 유학에 대해선 일본 고전의 연구에 입각하여 고대정신의 부흥을 목표로 문헌학적 방법론에 의거, 학술활동을 전개한 학파 및 그 국수주의적 학풍을 가리키는 말이다.

54) 난학이란 네덜란드의 학문을 말한다. 네덜란드를 중국인들이 화란(和蘭)·하란(荷蘭)·법란득아(法蘭得亞) 등으로 불렀는데 난학이란 이들 말의 난(蘭)이란 글자에서 따온 말이다. 1800년경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그 내용은 네덜란드의 의학을 중심으로 자연과학을 배우는 학문을 말하지만 독일·영국·프랑스를 위시한 서양의 학술 전반을 포함한다.

함은 형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로 형이하학적 취향의 표현이며, 일본문화의 본질적 성향에 있어 전다도도 예외가 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 일본 사상의 정착

김필동(2002:153)에 의하면 오규 소라이(荻生徂來, 1666~1728)는 일본 주자학의 흐름을 계승하여, 인간을 육체를 기본으로 하는 물질적 개체적 존재로 규정하는 것으로 사상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오규 소라이는 인간의 본질을 기질적 존재로 확정하고, 육체라고 하는 물질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매개체적 존재로 인간을 파악할 때, 우선 필요한 것은 양생(養生)의 도이고 사회적 안녕과 질서의 수립이 중요하며 그 방법론으로 인성의 도덕적 지향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는 예(禮)를 가지고 인심을 객관적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하는 예치사상(禮治思想)을 제창하기에 이른다.

김필동(2002:60)에 의하면 오규 소라이가 제창한 이 사상은 성악설(性惡說)적 사고⁵⁵⁾를 바탕으로 할 때 성립되는 사상이다. 주자학의 형이상학적 요소를 수입하여 그것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형이상학적 요소를 부정하고 형이하학적인 형태로 변화시킨 일본의 주자학은, 그 내용을 단적으로 말하면 성선설(性善說)적 사유형태를 수입하여 그것을 성악설적 사유형태로 변환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소라이의 예치사상이 갖는 한계는 옛 성인들은 당시에 필요한 예(禮)는 만들어 놓았지만, 옛 성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55) 성악설이란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악하므로 선(善) 행위는 후천적 습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학설이다. 중국의 순자(BC298~238)가 주장한 것으로, 인간은 선천적으로 한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 그대로 두면 싸움만이 일어나 파멸하기 때문에 예(禮)로써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있는 예는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과, 예란 객관적인 기준이기는 하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강제로 지키도록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이기동, 2002:60). 따라서 소라이의 예치사상은 순자의 예 사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법가사상(法家思想)⁵⁶⁾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성악설에 근거한 소라이의 예 사상은 극도의 격식화를 통해 예를 실천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적 이기성을 조정케 해야 한다는 점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것이 전라도 또한 격식화 하게 된 또 하나의 사상적 배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본의 주자학이 형이하학적 성격의 고학으로 변모하고 나면, 오규 소라이 이후의 일본의 지식인들은 경험적 실학으로 그 탐구의 대상을 바꾸어, 대대적인 실학의 발전을 이룩하게 되어 먼저 접하게 된 네덜란드의 실학을 수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난학을 유행시키게 되었다. 또한 고학의 정착은 일본의 지식인들이 대륙의 유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일본 고유의 학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국학(国学)이라는 일본 고유의 학문체계를 갖추었다. 그래서 일본의 사상적 조류는 경험적 실학의 발달, 유학에서의 독립, 국학, 난학으로 이

56) 법가사상이란 전국시대(BC 475~221) 제자백가의 한 유파이다. 법가는 인간의 실제 행동에 따라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존재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백성이 통치자의 미덕을 인정한다고 해서 사회적 화합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오직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권위에 대한 절대복종을 통해서만 사회적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법가는 특정한 행동에 대해 엄격하게 상벌을 내리는 법률체계를 내세워 정부를 옹호했다. 또한 인간의 모든 활동은 통치자와 국가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魏)나라의 문후(文侯)를 만들어 부국강병의 실적을 올린 이회(李悝:BC 455?~BC 395?), 진(秦)나라의 재상으로 국내개혁을 달성한 상앙(商鞅:~BC 338), 저서를 통하여 진시황(秦始皇)을 감탄시킨 한비자(韓非子:~BC 233), 진(秦) 통일제국의 기초를 구축한 이사(李斯:~BC 210),전한(前漢)의 중앙집권화에 힘쓴 조조(鼂錯:~BC 154), 무제(武帝) 때의 유능한 경제관료 상홍양(桑弘羊:~BC 80) 등이 법가의 대표자들이다.

어져 서양의 근대 문명을 수용하는 바탕이 되었다.

3) 격식의 중요성과 일본 전다도의 형성

앞에서 본 살펴본 일본화 된 유학적 실학사상은, 훈련을 통하여 사회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문화를 능숙하게 따르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형식의 중요성을 일본 국민들은 스스로 깨닫게 된다. 때문에 그 선함을 따르기 위한 과정에서 격식을 잘 지키면 안도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뒤떨어진다는 불안감을 갖는 사회적 배경이 오규 소라이 때에 형성돼 오늘날 까지 지켜지고 있다.

이러한 형식미의 실학사상은 빈틈없는 규범과 사치로 치닫는 병폐 때문에 외면당했던 차노유의 전철을 전다도 에서도 밟게 되는 계기가 된다. 전다도라는 형식이 새롭게 만들어 지고, 그 형식의 미학에 다가가기 위해 반복 수련하게 된다. 명품의 다기로 손님을 접대하면서 자신의 경제력과 안목을 차별케 한다. 여기다 이에모토 제도까지 가세해 전다문화의 참모습은 잃게 되고 귀족차와 서민차로 수직화 된다.

일본의 전다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규 소라이의 성악설이 전다교육을 통해 얼마나 구체화 됐는지, 400여년 역사의 흐름 속에도 변하지 않은 전통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시대에 그 전통의 힘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1) 한 치의 오차 없이 행해지는 전다도의 형식미

전다도의 기본은 차 맛을 좌우하는 물, 물의 온도, 차 잎, 우리는 시간, 용기(容器)등 다섯 가지이다. 좋은 차는 낮은 온도에서 넉넉하게 차 잎을 넣고 충분한 시간을 두어 우리며, 물은 반드시 끓여서 사용한다. 끓이지 않은 물은 차색은 우

러나지만, 향과 맛은 기대할 수 없다. 완전히 끓인 후 차의 종류에 따라 적당한 온도로 식혀서 사용한다. 한번 식은 물은 다시 끓이지 않고 새로운 물을 길어다가 끓인다. 수돗물인 경우 냄새를 없애기 위해 수도꼭지를 열고 한참 동안 물을 흘려보낸 후에 사용한다. 물 온도는 상급차일수록 낮은 온도에서 우린다. 물 온도를 맞추는 일은 주의해서 몇 번이고 차를 우림으로써 자연스레 터득할 수가 있다.

호엔류(方円流)의 경우, 옥로(玉露)차의 경우 차를 우리는 시간을 3분으로 한다. 두 잔째를 우릴 때에는 시간은 짧게 하고 물의 양은 첫째 잔(90cc)보다 약간 많게 100cc정도로 한다. 차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과자는 반드시 첫째 잔을 마시고 난 후에 먹는다. 과자의 선택도 극히 소량을 마시는 고급차의 풍미를 해치지 않도록 단맛이 너무 강하지 않은 작은 과자 혹은 마른 과자를 선택한다(水口豊園, 2006:18~36).

이렇게 차 한 잔을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동작의 규칙을 정해 놓고 그 격식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 교육함으로써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참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변모된다는 것이다.

(2) 다양한 모습의 데마에

전다에서는 다도구를 활용한 데마에의 종류가 다양하다.

바이사류(壳茶流)의 경우 데마에의 종류가 다섯 가지이다. 선반 데마에(棚の点前), 기국 데마에(器局の点前), 번차 데마에(番茶の点前), 텐다이 데마에(点台の点前), 냉차 데마에(冷煎の点前) 등이 있다. 잇사안류(一茶庵流)에서는 차를 우리는 여덟 가지의 방법을 비전으로 가르치고 있다(佃 一輝, 2000:26-72). 즉, 다관을 불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찻잎을 넣어 끓이는 팽다(烹茶)법, 다관을 불에서 내리자마자 찻잎을 넣는 상투법(上投法), 찻잎을 먼저 다관에 넣고 그 위에 탕수를

붓는 하투법(下投法)이 있으며, 옥로차를 우리는 다섯 가지의 방법이 있다. 즉, 차잎에 탕수를 붓는 포다법(泡茶法), 다관 밖에서 탕수를 끼얹어 차잎이 퍼지게 하는 외괘법(外掛法), 차잎을 샌드위치 상태로 만드는 중투법(中投法), 뚜껑 없는 용기에서 우리는 충다법(沖茶法), 얼음물에 우리는 빙수전(氷水煎) 등이다. 또 차 자리를 서재나 작은 다실 혹은 넓은 거실에서 다양하게 즐긴다는 것도 전다도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문인취향의 소품으로 장식한 작은 공간에서 차를 마심으로 써 현실과는 분리된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분위기를 감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를 우리는 변화를 즐길 수 있는 반면, 도구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 또한 커지는 점이 문제점으로 남는다. 또한 교습방법도 초, 중, 상급의 여러 단계로 세밀하게 나누고 각 단계마다 면허장을 교부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등 형식화가 진행되었다. 교토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다도의 비교적 규모가 큰 유파인 오가사와라류(小笠原流)의 경우, 교수면허 소지자만 5천명이며, 사범면허를 취득하기 까지는 3년 정도가 소요된다.

이러한 형식이 정착되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앞에서 언급한 사상적 배경이 원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모토의 권위와 이미 뿌리내린 사상의 영향으로 일본인에게는 정해진 격식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5. 전다도의 도구

전다도가 실제로는 어떠한 것인지 도구의 종류와 다실 장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원래 다사(茶事)에는 장식용 도구, 데마에 도구, 가이세키(懷石:다회에

내는 요리) 도구, 미즈야(水屋:다실에 달린 부엌) 도구 등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 중심의 논의가 목적이 아니므로 차노유와 구별되는 데마에 도구와 다실에 장식하는 도구만을 예로 들어 보겠다. 전다도에서는 장식용 도구나 데마에용 도구류에도 문인취향의 특징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므로 차노유와는 차이가 있다. 이 장에서 소개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사이키 후토시(佐伯太, 1977)의 『전다데마에(煎茶点前)』 및 오바쿠바이사류(黄蘗壳茶流)의 이에모토인 나카자와 히로유키 외(中沢弘幸, 1981:185~201)의 『현대전다도사전(現代煎茶道事典)』을 참조한 것이다.

1) 장식용 도구

(1) 문방장식(文房裝飾)과 꽃장식-모리모노(盛物)

① 문방장식

전다도에서는 다실에 문방도구를 장식하는데 이것은 차노유에는 없는 형식이다. 문인취향의 전다도에 있어서 문인들의 서재에 필수품이었던 문방장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방사보(文房四宝)란, 중국 문인의 문방 취미의 하나로 붓(筆), 먹(墨), 베투(硯), 종이(紙)의 네 가지를 가리킨다. 문방사우(文房四友)라고도 하며, 이들은 문방구의 중심으로 특히 감상의 대상이 되었다.

문방이란 중국에서는 서재를 가리키는데 송에서 명대에 걸쳐서 성숙한 문방문화가 발달하고 그 결과 ‘문방청완(文房清玩)’·‘문방청취(文房清趣)’와 같은 용어도 생겨났으며 그것을 체계화하여 남송의 조희곡(趙希鵠, 960~1260)이 『동천청록집(洞天清祿集)』을, 임홍(林洪)⁵⁷⁾이 『산가청사(山家清事)』를 지었고, 명대에

57) 임홍의 자(字)는 용발(龍發)이며 호는 하산(可山)이다. 복건성 천주(泉州)출신으로 항주(杭州)에서 수학한 시인이다. 산거생활을 동경하여 1266년에 소식(素食)과 정진요리(精進料理)가 기본인 103종의 식재료 조리법을 기재한 『산가청사(山家清事)』라는

도룡(屠隆)은 여기에 더욱 세련미를 가한 『고반여사(考槃余事)』⁵⁸⁾를 집대성하였다. 문방사보는 문인의 서재 도구로서 최소한의 물건이나, 벼루는 특히 문인들의 애지중지 하는 물건으로 사용해도 소모되지 않으므로 골동품으로서의 가치도 높았다. 그래서 천자로부터 벼루가 상으로 내려지는 일도 종종 있었을 정도로 귀중히 여겼다고 한다. 다실에서는 방 한 쪽에 상을 펴고 상위에 장식한다.

② 전다석의 꽃 장식



<그림 2> 계절감이 나타난 전다도의 꽃 장식 예

전다도에서는 문인화나 도교사상에 근거한 다양한 꽃·나무·채소·과일 등 여러 가지 자연물을 조합하여 장식을 한다. 후다바류(二葉流)의 이에모토인 호리구치 교카(堀口玉華, 1981:128~129)에 의하면,

모리모노는 중국의 문인이 송대에서 원대(10세기 중엽~14세기중엽)에 그림의

책을 지었다. 당대의 서적 등을 인용한 뛰어난 수필이기도 하며 차에 관한 내용도 있다.

58) 고반여사는 명나라 때 도룡이 쓴 책이다. 글씨·그림·종이·붓·먹·차·의복·각종 기물·문방구·향·그릇 등 잡다한 사물에 대한 품평과 감상 및 관리법 등을 안내하는 일종의 인문 실용서이다.

주제에 맞는 화훼초목(花卉草木)이나 채소, 과일을 서재에 장식한데서 유래되었으며, 중국의 문인은 꽃을 감상함에 있어, 단순히 외관상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꽃이 가지고 있는 성정(性情)을 인간과 마찬가지로 높은 덕성을 부여하여 관상(觀賞)하고 더욱이 꽃과 꽃을 조합함으로써 그 덕성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칭송 하는 것을 즐겼다

한다. 또한 호리구치 교카(1981:130)는

식물에는 각각의 꽃말이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러한 꽃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제목을 붙이고 감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매화는 고결한 풍채를 의미하는 ‘옥골(玉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연꽃을 ‘화중군자(花中君子)’라고 이름 짓고 군자처럼 높은 기개의 덕성을 칭송하기도 한다. 또한 불로(不老)의 소나무에 만년을 합하여 ‘불로만년(不老万年)’이라 하여 축하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작명은 꽃 뿐 만이 아니라 과일, 채소 등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이러한 이름에서 ‘선’이라든가 ‘불로(不老)’등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도교의 신선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강희자전(康熙字典)』에 선(仙)이란 ‘늙어서 죽지 않는 것’⁵⁹⁾이라 하였는데 이는 도교에서 주장하는 ‘불로장생(不老長生)’ ‘불로불사(不老不死)’사상과 상통한다. 도교는 유교, 불교와 함께 중국의 3대 종교의 하나인데, 도라는 우주와 인생의 근원적인 진리의 세계, 불멸과 일체가 되고자 수행을 하고 연단술(鍊丹術)을 행하여 불로불사의 영약인 단(丹)을 복용하여 선인(仙人)이 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한다.

에도시대 중반에는 남종화(南宗画)⁶⁰⁾와 함께 그 화제(画題) 그리고 동시에 중국

59) 仙〈積名〉老而不死曰仙仙遷也遷入山也

60) 남종화란 명나라 때 막시룡(莫是龍)·동기창(董其昌)이 제창한 화가의 계통 및 화풍을 말한다. 남화(南画)라고도 한다. 북종화(北宗画)에 대응되는 말이다. 북종화가 화원(画員)이나 직업적인 전문 화가들을 중심으로 경직(硬直)된 선묘를 사용하여 그린 장식적이면서도 공필(工筆)의 그림을 의미하는 데 반하여, 남종화는 대체로 인격이 고매

의 문인들이 서재에 꽃이나 과실을 장식하는 문화도 함께 들어왔다. 그리하여 예도 중기 이후의 전다가들이 이러한 자연물을 전다석(煎茶席)을 장식하는데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차노유에서는 다석의 꽃은 무라타 슈코가 말한 ‘다화는 그 자리에 어울릴 만한 소박한 꽃을 꽃는다’라는 한마디로 함축할 수가 있다. 즉 불교의 일체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무소유사상에 근거하여 한 송이 야생화를 꽃는다.

전다석의 꽃장식의 예를 정리한 것이 <표 2-1>이고 전다석의 계절별 꽃장식의 예를 정리한 것이 <표 2-2>이다.

<표 2-1> 전다석의 꽃 장식의 예

종 류	의 미
송(松)	불로(不老), 선우(仙友), 창송(蒼松), 군산(群山)
죽(竹)	평안(平安), 고절(高節), 한옥(寒玉), 자손번영(子孫繁榮)
죽순(筍)	건강(健兒), 자손번영(子孫繁榮), 풍년(豐年)
매(梅)	선자(仙姿), 옥골(玉骨), 세한(歲寒), 일지춘(一枝春), 만옥영롱(万玉玲瓏), 향설(香雪)
수선(水仙)	세한(歲寒), 공수(供壽), 헌서(獻瑞), 능파선자(凌波仙子), 선객(仙客)
난(蘭)	유향(幽香), 유객(幽客), 군자(君子), 유곡가인(幽谷佳人)
장미(薔薇)	장춘화(長春花)
영지(靈芝)	여의(如意), 영수(靈壽), 일년삼수(一年三秀), 만년(万年), 연령(延齡)
연(蓮)	정우(淨友), 화중군자(花中君子), 청객(清客), 연근(蓮根)은 옥절(玉節)
백합(百合)	화합(和合)
모란(牡丹)	부귀(富貴), 화왕(花王), 국향(國香)

하고 학문이 깊은 사대부(士大夫)가 여기(余技)로 수묵과 담채(淡彩)를 사용하여 그린 간일(簡逸)하고 온화한 그림이다.

남천(南天)	천수(天壽), 수고(壽古)
귤(橘)	금포(金包)
대유(大柚)	대길(大吉)
밤(栗)	군집과(群集果)
배(梨)	유실(有實)
석류(石榴)	백자동실(百子同室)
불수감(佛手柑)	오도(悟道)
옥잠(玉簪)	백학(白鶴)

<표 2-2> 전다석의 계절별 꽃 장식의 예

계절	꽃 이름	의 미
봄	송(松) + 만년청(萬年青)	불로만년(不老晩年)
	송(松) + 장미(薔薇)	불로장춘(不老長春)
	죽(竹) + 매화(梅)	군자지교(君子之交)
	죽(竹) + 장미(薔薇)	평안장춘(平安長春)
	매(梅) + 국화(菊)	방신선전(芳信仙伝)
여름	송(松) + 모란(牡丹)	불로부귀(不老富貴)
	죽(竹) + 대유(大柚)	평안대길(平安大吉)
	모란(牡丹) + 대나무(竹)	부귀평안(富貴平安)
	대나무(竹) + 죽순(筍)	자손번영(子孫繁榮)
	오수유(萱草) + 백합(百合)	의남백합(宜南百合)
	오수유(萱草) + 해바라기(葵)	충의쌍전(忠義雙全)
	청참외(靑瓜) + 가지(茄子)	청자연방(靑紫聯芳)
가을	백합(百合) + 감(柿) + 귤(橘)	백사대길(百事大吉)
	백합(百合) + 감(柿) + 영지(靈芝)	백사여의(百事如意)
	부용(芙蓉) + 목서(木犀)	영귀만년(榮貴萬年)
	석류(石榴) + 백합(百合) + 감(柿)	백사다자(百事多子)
	석류(石榴) + 백합(百合)	백사동실(百事同室)
	석류(石榴) + 오수유(萱草)	의남다자(宜南多子)
	송(松) + 백합(百合根) + 석류(石榴)	문인한거(文人閑居)
겨울	송(松) + 영지(靈芝)	불로만년(不老萬年)
	송(松) + 남천(南天)	창송수고(蒼松壽古)
	송(松) + 수선(水仙)	군선공수(群仙供壽)
	남천(南天) + 수선(水仙) + 영지(靈芝)	천연여의(天然如意)
	송(松) + 석(石)	불로장수(不老長壽)

백합(百合根) + 만년청(万年靑)	화합만년(和合万年)
백합(百合根) + 복수초(福壽草)	춘일여향(春日余香)

(2) 전다도의 향과 족자(簇子) 및 차바타(茶旗)

① 전다도와 향

향은 불교의 전래와 함께 일본에 이입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도와 의 만남은 무로마치시대 중기 이후이나 전다도와 의 역사는 에도시대에 들어서서이다. 나라(奈良)시대에는 소향(燒香), 공향(供香)의 불교의식에서 예불도구로서 또한 약용(藥用)으로서 귀중하게 취급되었다. 일부는 궁중에서 전례(典禮)나 신앙의 대상으로 이용되었다.

헤이안 시대에는 궁중, 귀족들 사이에서 연향(練香 : 향과 약을 조합한 것)이 발달되어 거실이나 의복의 방향제로서 태우는 습관이 생겨났다. 향기가 종교적인 의례물에서 사람들 사이로 옮겨간 것이다. 「겐지(源氏) 이야기」에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우아한 이미지의 상징으로서 사용되었다.

가마쿠라 시대에는 교양의 영역에서, 선종의 영향으로 승려, 무사들 사이에서 정신적 세계의 추구에서 시작하여 청초한 유현의 기풍이 생겨났으며 말기에는 담백한 향기를 추구하게 되어 향목 만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무로마치(室町)시대에는 지배계급(무사 등의 상류사회)에서 「투다」·「투향(鬪香)」이 유행하여 사교·놀이 문화·도박 등의 수단으로 행하여졌다.

에도시대에는 사회가 안정되면서 전통 문화가 부활하게 되었다. 『여중보기(女重宝記)』⁶¹⁾에는 자녀는 여러 가지를 익혀야 하는데, 향을 피우는 일, 차노유를

61) 에도시대 예의범절·가사(家事)·가정 의학 등 생활전반에 관한 지식을 기록한 계몽서이다. 1689년 간행된 「가내중보기(家内重宝記)」를 비롯하여 「중보기대전(重宝記大全)」, 「여중보기(女重宝記)」 등 많은 유사서적이 있다.

하는 것이 주판, 요리, 샤미센(三味線)같은 것 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그 시대 상류가정의 자녀는 향도·다도·꽃꽂이 등을 기초 교양으로서 익혀야만 했던 것이다. 이 시대에 중국에서 선향(線香)도 들어오게 되어 일본산화 되었고, 풍류를 즐기는 문인차인 전다문화와 함께 향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으며, 오늘날 향은 전다석에서 다도구와 함께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② 전다의 족자 및 차바타

전다석에서는 다실의 도코노마에 족자를 걸거나 야외인 경우 차바타를 걸어서 장식한다. 그 내용은 불교의 선승의 선어(禪語)를 적은 족자를 장식하거나, 차바타에 ‘끽다거(喫茶去)’ 등 선적인 내용 혹은 도교적이며 신선사상을 포함하고 있는 글귀 또는 자연을 벗 삼아 한가롭게 노니는 군자의 유유자적함을 칭송하는 글귀를 사용한다. 손님은 다실에 들어가면 먼저 족자를 감상하게 되는데, 대개 주인은 그날의 주제를 의미하는 내용을 담은 글이나 그림으로 준비한다(申沢弘幸, 1981:201).

참고로 차노유에서는 다실의 도코노마에 선승(禪僧)이나 고승, 특히 송·원대의 고승, 가마쿠라 시대에 일본에 귀화한 명승들의 격조 높은 글을 담은 족자를 장식한다. 그 내용은 선어(禪語)를 적은 이치교모노(一行物)나 와카(和歌) 등을 적은 가이시(懷紙), 단샤쿠(短冊), 다인이 쓴 편지 등이며, 그림은 가라에(唐繪), 야마토에(大和繪) 등이 있다. 무라타 슈코가 인가(認可:선승이 수행의 종료를 증명하는 書狀)의 증표로서 이큐화상(一休和尚, 1394~1481)으로부터 받은 원오묵적(圓悟墨蹟)을 초암다실에 장식한 이후 다실의 장식물로 다선일미를 상징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시되었다(田中仙翁, 2003:65).

<표 3> 전다도의 족자 및 차바타의 문구

글 자	의 미
無	「○」이 아니며 일(一)도 아닌 「있다」 「없다」 그 어느 것도 아닌 선(禪)의, 다도의 동양적 교양의 근원
○	「원(円)」은 부족함이 없는 불가(仏家)의 자유, 평등, 무차별상
一	선도(禪道)도 다도도 도는 일에서 출발하여 일로 귀결된다.
통선(通仙)	선경(仙境)으로 통하는. 바이사오의 다점이 통선정이었다.
청풍(淸風)	맑은 바람. 상쾌한 기풍. 바이사오의 다기(茶旗)의 글귀.
망생(忘筌)	망생.
지족(知足)	「족함을 안다」 사람마다 각각 분수에 맞는 족함을 아는 것이야말로 필요하다. 「오아지족(吾我知足)」
여의(如意)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자유자재로 된다는 뜻이나, 일체의 나를 버렸을 때의 자유자재의 움직임.
긱다거(喫茶去)	「차나 한잔 들게」라는 의미. 차좌긱다(且座喫茶)
방하착(放下着)	일체의 가진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본래의 선(禪)의 의미를 얻음.
간각하(看脚下)	「발아래를 보라」 즉 자신의 아래를 잘 살피라는 의미.
무공덕(無功德)	은혜를 입히지 않고, 초월한 공덕.
수산복해(壽山福海)	남산과 바다처럼 언제까지나 수복(壽福)이 계속된다는 의미.
화의죽정(花意竹情)	꽃 같은 마음과 대(竹)같은 마음 즉, 아름다운 자연.
류록화홍(柳綠花紅)	대소장단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것을 초월한 평등, 무차별.
조고각하(照顧脚下)	나 자신을 잘 살펴보라 그러면 본래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청풍균음(淸風筠音)	댓잎이 부딪히는 소리 즉, 다선일미의 정적(靜寂)한

	맑은 마음
일출해천청(日出海天淸)	일출의 빛이 바다와 하늘을 맑게 비춤.
강산경물신(江山景物新)	강산의 경치가 모두 새로움.
계매일타향(溪梅一朵香)	몰래 숨어서 피는 매화꽃가지의 아름다움.
서기만매화(瑞氣滿梅花)	상서로운 기운이 매화꽃에 가득함.
만가태평춘(萬家太平春)	집집마다 평화로운 봄이 옴.
춘산초목신(春山草木新)	춘산에 초목이 새로움.
백화위수개(百花為誰開)	백화는 누구를 위해 피는가. 알든 모르든 아름답게 핍.
송석수성량(松石水聲涼)	소나무와 바위에 물 흐르는 소리가 시원하다.
청풍입오죽(淸風入梧竹)	청풍이 오죽 사이를 불어지나가니 서늘하구나.
아애하일장(我愛何日長)	기나긴 여름날도 사랑함. 넓은 궁전에 시원한 바람 불어온다.
수죽불수서(脩竹不受暑)	무성한 대나무숲속에는 더위가 없다.
청계요죽림(淸溪繞竹林)	청계가 죽림을 감싸고 흐름. 여름날의 시원한 경관.
수화명월류(水和明月流)	물은 명월과 같이 쉼 없이 흐르고
월지명월추(月知明月秋)	달은 명월의 가을을 안다. 멧을 아는 이에게만 명월 이 있다.
청풍불명월(淸風拂明月)	청풍은 명월을 쓸어버린다. 가을날의 청명함.
백운무진시(白雲無盡時)	백운은 다함(없어짐)이 없다. 인생과 같다.
융설자향명(融雪煮香茗)	눈을 녹여 향기로운 차를 달이다.
청음야자차(淸吟夜煮茶)	조용히 시(詩)를 읊으며 차를 즐긴다.
설소산골로(雪消山骨露)	눈이 녹으니 산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춘풍이접인(春風以接人)	춘풍과 같은 포근함으로 사람을 대한다.
채봉무단소(彩鳳舞丹霄)	채봉이 단소에 내림. 하늘의 축복.
다연영일향(茶煙永日香)	다연이 향기롭다. 한가로운 다선일미의 세계.
한좌청송풍(閑座聽松風)	한가롭게 앉아서 송풍을 듣는 즐거움.
산중무력일(山中無曆日)	산중에는 설 추석도 없다.
산호만세성(山呼萬歲聲)	축하할 때에 사용함.
홍백우중화(紅白雨中花)	홍백 우중의 꽃, 산사의 경치가 다채롭고 아름다움.
단청산외사(丹青山外寺)	
일화개오엽(一華開五葉)	일화오엽의 꽃을 피우고, 그 결과 자연히 열매를 맺 음.
결과자연성(結果自然成)	
청산원부동(靑山元不動)	청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솟아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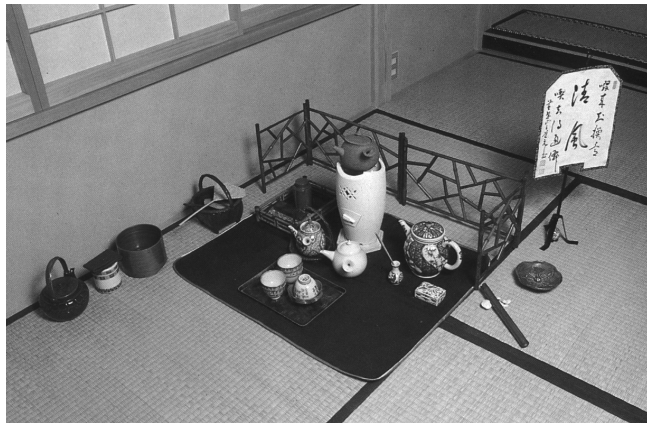
백운자거래(白雲自去來)	백운은 바람 따라 흐른다.
읍로천반초(泣露千般草)	풀은 이슬에 젖고, 솔잎은 바람에 흔들린다.
음풍일양송(吟風一樣松)	자연의 운행은 있는 그대로 보인다.
송수천년취(松樹千年翠)	솔잎은 천년을 변함없이 푸르건만
불입시인의(不入時人意)	그 아름다움을 눈앞에 보면서도 모른다.
송무고금색(松無古今色)	소나무에 고금의 색 없고 대나무에 마디 있다.
죽유상하절(竹有上下節)	솔의 평등, 대의 차별로 일미평등의 의미.

*출처 : 전다도수첩, 전일본전다도연맹(全日本煎茶道聯盟), 2008:64.

글귀의 내용은 자연경관을 칭송하거나 선경(仙境) 또는 군자의 정신수양을 위한 글귀를 주로 사용한다. <표 3>은 전다도의 족자 및 다기의 문구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2) 행다(行茶)용 도구

(1) 전다도에서만 사용하는 도구



<그림 1> 전다석의 도구배치 예

하세가와 쇼쇼교(長谷川瀟々居, 1983:149)의 『전다지(煎茶志)』에 의하면, 역사상 나타난 최초의 다기에 관한 기록으로는 육우의 『다경』 「사지기(四之器)」의 기록이며, 다만 이것은 음다의 편리함을 위하여 그리고 차색을 가장 돋보이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일본에서의 다도구는 음다의 편리함과 차의 색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한 이유 외에도, 부(富)와 고상한 취미의 과시용으로 명물 다도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차보다도 다도구를 자랑하기 위한 다회를 열기도 하였다. 도구는 차를 내는 때와 장소에 따라 쓰이는 종류가 달라지며 유파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표 4> <전다도구와 차노유의 도구 비교표> ★표:전다도·차노유 공통

도구의 용도	전다도	차노유(말차)
물을 끓이는 불	료로(涼炉)/와로(瓦炉)	
물을 끓이는 용기	물주전자-보후라(ボ-フラ)	가마(釜)
물병	스이추(水注)	
보충용 물항아리	미즈사시(水指)	미즈사시(水指)
물을 뜨는 국자	효샤쿠(瓢杓)	히샤쿠(柄杓)
차호	차싱코(茶心壺)	다기(茶器)
차를 뜨는 도구	차측-차소쿠(茶測)	차샤쿠(茶杓)
차를 우리는 다관	규스(急須)	
차호 등을 닦는 천	후쿠사-(袱紗)	후쿠사-(袱紗)
식힘 사발	유사마시(湯呑鉢)	
물병 받침	차조다이(茶銚台)	
손님용 다관 바구니	마와시가고(回籠)	
찰잔	차왕(茶碗) 5개	차왕(茶碗)
찰잔 받침	차타쿠(茶托)	
찰잔수납용 바구니	완토(碗筒)	
행주함	킨토(巾筒)	
행주★	차킹(茶巾)	차킹(茶巾)
다관 받침	병쇼(瓶床)	
다구용 쟁반	산기봉(三器盆)	

손님용차 운반용쟁반	가요이봉(通盆)	
다구갈개보	차구조쿠(茶具褥)	
숯바구니★	우후(烏府)	스미토리(炭斗)
새깃털 빗자루★	하네(羽根)	하네(羽根)
부젓가락★	히바시(火箸)	히바시(火箸)
불 운반용기	가도(火斗)	
물병	센빙(洗瓶)	
퇴수기★	젠스이(建水)	젠스이(建水)
차찌꺼기통	시우(滓盂)	
부젓가락 꽃이	초헤이(箸瓶)	
화로 올타리	로묘우(炉屏)/겻카이(結界)	
다식그릇★	가시키(菓子器)	가시키(菓子器)
향합★	향합-코고(香盒) 선향합-고즈쓰(香筒)	고고(香合)
향로★	센코다테(線香立)	센코다테(線香立)
축자	치쿠(軸)	치쿠(軸)
다기	다기(茶旗)	
꽃장식	꽃-모리모노(盛物)	하나이레(花入)
격발용 술		차센(茶筌)
다구감상용 천		고후쿠사(古帛紗)
차호주머니		시후쿠(仕覆)
우스차(薄茶)용 차호		나쓰메(棗)
숯뚜껑받침		후타오키(蓋置)
금속제 가마솥손잡이		관(鑲)

<표 4>에서 보듯이 전다도에서 필요한 도구는 그 종류로 볼 때는 차노유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로리와 커다란 철제 물솔이 있는 분위기를 압도하는 차노유의 도구와는 대조적으로, 전다석의 도구는 밝고 아기자기한 도구로서 아취가 있고 문인취향의 특색이 있다. 전다도에만 사용되는 도구는 다음과 같다.

① 다관(규스, 急須)과 다관 받침(빙쇼, 瓶床)

다관은 옆 손잡이, 뒤 손잡이, 손잡이가 없는 포병 등이 있는데 전다도에서만

사용한다. 차노유에서는 다완에 가루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솥에서 직접 길어 부어 사용하므로 물주전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빙쇼(瓶床)는 화로에서 내린 다관을 올려놓는 곳이다. 관좌(缶座), 탕관좌(湯缶座), 병부(瓶敷)라고도 하며 전다도에서만 사용한다.

② 다구깔개(차구조쿠, 茶具褥)

전다석에서 다구 아래 펴는 보자기이다. 원래는 황벽종의 승려가 사용하는 「좌구(坐具)」에서 유래하였으며 다구부(茶具敷)·욕(褥)이라고도 한다. 차노유에서는 다완을 다다미에 직접 놓으나 전다도에서는 받침을 사용하는 점이 다른 점이다.

③ 다기(차키, 茶旗)

전다석을 마련할 경우, 선 혹은 차와 관련된 글귀를 걸어 둔다. 크기는 폭 30~40cm, 길이 40~50cm 정도로, 글귀는 청풍(淸風), 벽운(碧雲), 통선(通仙), 청취(淸趣) 또는 깍다거(喫茶去) 등이 있다. 다실 내에서 다회를 할 경우 도쿄노마에 족자를 걸기도 하나 야외에서 여는 다회인 경우 다기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그림 1>참조.

④ 물주전자(보후라, ボーフラ)

전다도에서 차물을 끓이는 주전자이다. 보후라란 포르투갈어로 호박이라는 뜻으로 주전자의 모양이 호박과 닮은 데서 유래한다. 탕부(湯缶), 탕병(湯瓶), 탕불(湯沸)이라고도 한다.

⑤ 바구니(마와시가고, 回し籠)

전라도에서 손님용 차가 든 다관을 운반할 때에 사용하는 대바구니이다. 손잡이가 있으며 원형, 육각, 팔각이 있다.

⑥ 병 받침(차조다이, 茶銚台)

물병 등을 올려놓는 받침이다. 재질은 나무, 대나무, 금속 등으로 모양이 사각, 육각, 팔각, 원형 등이 있으며 올려놓는 병 모양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한다. 전라도에서만 사용한다.

⑦ 식힘 사발(유사마시, 湯盃)

옥로차를 낼 때는 물 온도를 식힐 필요가 있으므로 식힘 사발을 사용한다. 전라도에서만 사용한다.

⑧ 쟁반(산기봉, 三器盆과 가요이봉, 通盆)

산기봉은 차호, 차측, 후쿠사 세 가지를 올려놓는 쟁반이며 가요이봉은 손님에게 차를 나를 때 사용한다. 보통 다섯 잔의 차를 담는데 장방형, 타원형, 직사각 등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

⑨ 차 찌꺼기 사발(시우, 滓盃)

사용하고 난 차 잎을 버리는 용기이다. 라쿠요코(落葉壺) 또는 차고쓰이레(茶骨入)라고도 하며 전라도에서만 사용한다.

⑩ 찻잔수납용 바구니(완토, 碗筒)

찻잔을 수납하는 바구니로 대나무나 등나무를 엮어서 만든 것이 많다. 전라도 형식에 다기 수납용 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이 있는 것은 전라도의 시조인 바이사

오가 ‘센가’라는 바구니를 메고 다니며 차를 팔았던 일에서 유래한 것이라 본다.

① 화로 울타리(로보우, 炉屏) 또는 겻카이(結界)

다석의 경계선을 긋기 위하여 로(炉) 앞에 병풍처럼 세워두는 것으로 재질은 주로 나무, 나무껍질, 대나무, 나무뿌리를 사용한다. 시나 그림을 그리거나 나무 표면에 조각을 해서 표구한 것 등 다양하다. 너무 높게 하지 않는다. 전다도 에 서만 사용한다.

(2) 전다도와 차노유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도구

명칭이 같으면서 차노유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 도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다도와 차노유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면서 그 명칭과 쓰임이 같은 도구의 설명은 생략하였다 <표 4참조>. 차노유 에서만 필요한 도구는 말차의 거 품을 낼 때 사용하는 차센(茶筌), 다구를 감상할 때 바닥에 펴는 보자기인 고후 쿠사(古帛紗), 차호를 넣은 주머니인 시후쿠(仕覆), 말차를 넣는 용기인 나쓰메 (棗), 술뚜껑 받침인 후타오키(蓋置), 술을 들어 올릴 때 손잡이로 사용하는 금속 제 고리인 관(鑲) 등이 있다.

전다도와 차노유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도구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자(효샤쿠, 瓢杓)

전다도의 냉차다회에서 항아리의 물을 떠서 주전자나 찻잔에 부을 때 사용하는 표주박이다. 길이는 12~15cm가 일반적이다. 차노유에서는 술에서 물을 뜨거나 보충 할 때 사용하는 표주박으로 차샤쿠(茶杓)가 있다.

② 물항아리(미즈사시, 水指)와 물병(센빙, 洗瓶)

용도는 수주와 같으나 전다도 에서는 여름철에 냉차 다법 시에 물에 얼음을 넣어두므로 입구가 큰 것을 사용한다. 청량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도자제품을 많이 사용한다. 물병(센빙, 洗瓶)은 다관이나 찻잔을 씻을 때 사용하는 물이 든 병으로 전다도 에서만 사용한다.

③ 차측-차소쿠(茶測)

전다도에서 차잎을 털어서 다관에 넣을 때 쓰인다. 재질은 대나무가 많고 은, 동, 상감(象嵌) 등도 쓰이며 나무에는 서화(書畵)를 조각하기도 한다. 차노유 에서는 대나무로 된 차시(茶杓)가 많이 쓰이나 재질은 여러 가지가 있다.

④ 찻잔-자왕(茶碗)-과 차탁(茶托)

차색을 잘 나타내기 위해 자기(磁器)를, 계절감을 나타내기 위해 도기(陶器)를 즐겨 사용한다. 보통 옥로(玉露)차용으로 작은 것을, 전다용으로 약간 큰 잔을 사용한다. 또한 차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를 구별해서 사용한다. 자완(磁碗), 다잔(茶盞), 다배(茶杯), 다종(茶鐘), 철향(啜香), 다우(茶盃)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손님용 5개와 주인용 1개를 준비한다.

차탁은 찻잔 받침이다. 크기, 재질, 모양이 다양하나 찻잔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재질은 은, 주석, 동, 철, 대나무, 목재 등이 있으며 모양은 원형, 타원형, 매화, 연화, 배(船) 모양 등 다양하다. 탁자(托子), 차합(茶合), 납경(納敬), 잔좌(盞座) 등으로도 부르며 차탁은 전다도 에서만 사용된다.

⑤ 행주-차킹(茶巾)와 행주함-킨토(巾筒)

행주는 다완의 입술 닿는 부분을 닦기 위한 흰색의 면 행주로 크기는 11x26cm정도가 적당하다. 행주를 보관하는 용기는 전다도에서만 사용하며, 행주

는 손님의 입술이 닿는 부분을 닦는 것이므로 사용 전에는 특히 깨끗하게 보관한다. 전다가 특히 위생관념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는 의사이면서 전다가였던 오가와 자신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⑥ 화로-료로(涼炉)와 이로리-와로(瓦炉)

화로는 찻물을 끓이는 도구로서 주로 초벌구이 도자제를 사용한다. 위로 길쭉한 모습을 많이 쓰는 것은 난초의 화분의 모습을 모방한 것으로 전다도 에서는 도구의 모습 하나에도 문인 취향의 상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입구가 작으며 솟도 전다용의 작은 것을 사용한다. 화로 불을 감상하기도 하나, 최근에는 화재 위험 상 불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소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금속제품도 사용한다. 와로는 화로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나 다른 점은 재속에 솟을 묻어 두고 부젓가락으로 화력 조절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철제주전자에는 오덕(五德)이라는 철제받침대를 사용하고 그 외 재질에는 초벌구이 받침을 사용한다.

(2) 다도와 과자(菓子)

전다에서는, 특별히 다식 즉 과자를 사용한다는 규칙은 없다. 그러나 다회의 즐거움 중의 하나는 그 다회의 주제에 맞는 과자를 그에 어울리는 차와 함께 대접받았을 때 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차에도 옥로, 전다, 번차(番茶) 등의 구별이 있듯이 그 차 맛에 맞는 과자를 사계절 철에 맞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형, 색채, 이름에 의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다석 에서의 과자는 중간정도의 크기에, 그 모습이 품위가 있고, 소재의 느낌을 잘 살린, 약간 단맛에, 신선하고 먹기 좋은 것을 선택한다. 과자의 대표적인 분류는 일본 전통과 제법에 따른 분류 이외에도 수분 함량과 보존성 여부로 분류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제조 직후에 수분 40% 이상. 엿, 크

림, 잼 등이 들어간 경우는 수분 30%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생과자(生菓子)라고 하고, 그 이외는 건과자(干菓子)로 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⁶²⁾.

고대 일본에서는 과일과 나무열매 등을 통칭하여 '구다모노'라고 불렀는데, 한자가 전래하면서 '구다모노'에 '과자(菓子)'라는 글자가 사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나라 헤이안 시대에 걸쳐 중국에서 곡류를 가루로 내어서 가공하는 식품이 전해지면서 '가라카시(唐菓子)'라고 불렀다. 이어서 무로마치 시대부터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에 걸쳐 다도의 융성에 따라 다식으로서 단것이 필요해졌다.

히가시야마, 전국시대의 초기 차노유 에서는 곡물가루나 설탕을 굳혀서 틀에 찍어 낸 건과자가 많이 사용되었다. 현재의 화(和)과자는 가라카시라 부르던 것이 발달한 것으로 선종(禪宗)문화의 만두(饅頭), 면(麵), 갱(羹)의 유포가 이것을 촉진시켰다. 가마쿠라시대에 에이사이선사가 중국으로부터 만두를 들여왔는데 중국에서는 육류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으나, 일본에서는 불교의 영향으로 육류가 아닌 팥이나 콩 등 식물성 소재로 대체해서 만들어지게 된 점이 일본 전통 과자의 특징이다. 또한 쨌베(煎米)의 일종인 '오코시고메(興米)' 등도 차노유의 과자로 사용되었다. 차노유가 발달하는 전국(戰国)시대에는 설탕양갱, 설탕만두 등이 출현하였고 이것이 모모야마 시대의 '과자'로 발전하게 된다. 대항해 시대에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프랑스 과자 등이 전해지는 한편, 산업 혁명에 의하여 기계화 효율화된 과자 제조 방법까지 전래, 일본의 '양과자'는 다양한 발전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발전의 배경에는 다도의 발달이 큰 몫을 하였다. 수도인 교토를 중심으로 차 문화가 발달한 대도시에서 특히 지방특제의 명과가 발달하여 일본 화과자의 역사가 오늘날에 이어진 것이다⁶³⁾.

62) 오사카부 생과자협동조합(大阪府生菓子協同組合),

홈페이지(<http://www.wagashi-osaka.or.jp>), 2008.

63) 『원색다도대사전(原色茶道大辞典)』 (1975:195)

<표 5> 전다석의 과자명(菓子銘)의 예

월	명(銘)
1월	초하(初霞)
2월	잔설(殘雪)
3월	쭈떡(草餅)
4월	기노메조(木芽上:산초의 새싹)
5월	주악(粽), 심견초(深見草)
6월	청풍(靑楓)
7월	수모단(水牡丹)
7월	설봉(雪峰), 암청수(岩清水)
9월	명월(名月)
10월	금년미(今年米)
11월	상월(霜月)
12월	초설(初雪)

<표 5>에서 보듯이 전다석의 과자 명에는 주로 자연과 계절감을 나타내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전다도에서 내는 차는 적은 분량의 진한 차이므로 단맛이 나는 다식과 함께 마시면 조화를 이루게 된다.

3) 동작 및 손님으로서의 행동

전다도의 차는 기본적인 자세와 흐름에 있어서 차노유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주인은 매사에 손님의 마음을 배려하며 가장 맛있는 차를 우려서 대접하기 위해 찻잔을 데우고 청결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한다.

차노유와 다른 점이라면 초대하는 손님의 수를 기본적으로 5인으로 설정한다는 점이다. 손님이 5인 이상인 경우 옆방에서 내 온다. 「세이후류(靜風流)」의 10客 데마에의 경우 차를 우려는 주인이 2명, 시자가 2명 있어서 동시에 10명에게 차를 대접한다.

계절에 따라 내는 차의 종류가 다르다. 더운 여름철에는 냉차를 대접한다.

스미데마에(숯을 다루는 행다법)에서는 성냥불을 켤 때에 성냥개비를 본인 쪽으로 당기면서 불을 켜는데, 이 동작은 실제로 불이 튀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조그만 불안감이나 불편함도 주지 않으려는 배려의 마음에서 하는 행위이다.

손님으로 초대되었을 경우, 정원에 마련된 쓰쿠바이에서 손과 입을 청결히 하고 작은 다실 문인 니지리구치로 들어가며, 도코노마(床の間)를 감상하는 과정은 차노유와 같다. 다만, 전다도의 경우 다실에 문방장식을 하므로 이것을 감상하는 것도 순서에 포함되어 있다.

차를 마시는데 특별한 방법은 없으나, 주인이 「드시지요」라고 차를 권하면, 「그럼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눈 다음, 찻잔을 받침 짚 들어 내 무릎 앞에 가까이 놓는다. 잔 받침을 왼손바닥에 올려놓고⁶⁴⁾ 오른손으로 잔을 들어 가슴높이에서 가볍게 목례하고 차의 색향미를 감상한다. 왼손은 왼 무릎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차를 마신다. 차를 입속에 조용히 머금고 입안에서 차를 굴리면서 향과 맛을 음미한다. 맛이 좋으면 「차 맛이 대단히 좋습니다。」 또는 「잘 마셨습니다。」 등의 인사를 한다. 잔의 차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신다. 다 마신 후에는 잔 받침에 올려놓아 무릎 앞에 둔다. 첫 잔과 두 번째 잔 사이에 과자를 먹는다. 이점은 전다도가 차노유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부분이다. 차노유에서는 차를 마시기 전에 과자를 먹는다. 전다도에서는 과자가 먼저 나오더라도 반드시 첫째 잔을 마시고 나 후에 먹는다. 두 잔째도 같은 요령으로 마시고 찻잔을 뒤집어엮어서(이 동작은 차노유와 다른 점이다) 받침위에 둔다. 이제 충분히 마셨다는 표시이다. 그리고 찻잔과 받침을 감상한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하나 만일 찻잔이 큰 경우에는 잔 받침을 다다미 위에 놓고 왼손바닥위에 잔을 올려놓은 다음 오른손으로 살짝 받치듯이 하면서 마신다.

64) 유파에 따라서 차이가 나며, 잔 받침을 바닥에 놓는 경우도 있다.

둘째 잔을 마신 후에 찻잔에 따라서는 얹어놓으면 잔의 입술 닿는 부분이 너무 얇아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는 주인에게 물어보면 된다(土居雪映, 1973:30-34).

이상 언급한 다석에서의 예절은 형식의 차이는 있으나 차노유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차노유에 비하여 형식면에서 자유롭다. 예를 들면 여름에는 시원한 냉차를 손님에게 내며, 차를 마시는 장소와 다도구의 배치 형식이 다채로운 점이 특징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면이 전다도의 특징이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격식이 정해지고 제도화되어 간 것이다.

Ⅲ. 일본전다도의 이에모토(家元) 제도

이 장에서는 이에모토 제도의 성립 배경과 발전 그리고 다도 이에모토 제도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모토 제도는 전통 예능을 변형 없이 온전히 보존하였다는 긍정적인 면과, 본래 자유로이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예능의 세계를 틀에 묶어 고정시키고 금전적인 착취를 하게 하는 부정적인 면 등 양면성을 지니면서 발전하였다. 특히 다도계에 있어서는 다도 인구의 저변 확대라는 현저한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전다도 이에모토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이에모토 제도의 성립과 특성

1) 이에모토 제도의 성립

이에모토 제도라는 개념의 사용은 에도시대의 희극작가인 바바 분코(馬場文耕, 1718~1758)의 『근세에도저문집(近世江都著聞集)』(1718)에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사고방식은 초기의 발전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지식, 경험, 능력 등을 증명하는 면허장의 교부에 의하여 권능을 부여한다는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이에모토제도가 확립되기 이전 겐로쿠(元祿, 1608~1707)시대에는 사원의 주지(住持)를 배출한 가문을 가리켜 데라모토(寺元), 이에모토(家元), 사토모토(里元)라고 불렀다고 한다.

니시야마 마쓰노스케(西山松之助, 1982:474)는 이에모토 제도의 성립 시기에 대하여

이에모토 제도는 비교적 새로운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에모토」와 「이에모토 제도」와는 그 사회구조가 다르다. 예를 들면 가도(歌道)라든지 예몽(衣紋:기모노 입기), 궁술(弓), 마술(馬) 등의 이에모토는 이에모토라는 명칭은 없었어도 이미 헤이안, 가마쿠라, 남북조시대에 그 실체가 성립되어 있었다. 생황(笙), 피리(篳篥), 적(笛) 등의 연주가였던 토요하라(豊原), 아베(安倍), 우에(上), 시마(芝) 등의 가문은 모두 헤이안 시대부터 이에모토였다. 그러던 것이 이에모토 제도라는 특수한 문화사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불과 이백여 년 전의 에도시대 중기 이후의 일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프란시스 슈(1998:86)는 일본사회에서 이에모토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있었던 2차 집단⁶⁵⁾의 형태로 있었다고 하면서 “이에모토 형태의 인간관계는 이에모토가 성립되기 훨씬 그 이전부터 유사한 형태의 2차 집단이 존재했으며, 이에모토의 뿌리가 깊지 않았다면 이 제도는 일본의 현대화 과정에서 그토록 성공적으로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니시야마(西山松之助, 1982:259)는 이에모토 제도의 발생 배경에 대하여 “에도시대라는 봉건사회에서, 성장한 개인이 강대한 권력에 직면하였을 때 일본적인 독특한 방법과 자세를 창안하여 여기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였다. 일본적인 독특한 방법과 자세에 대하여는 이에모토 조직의 특성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그렇다면 이에모토 제도의 원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니시

65) 2차 집단이란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가족과 같은 1차 집단에 대하여 종족 또는 국가의 범위로 언어, 관습, 법으로 구별되는 사회집단을 말한다(슈, 1998:86).

야마(西山松之助, 1959:164)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에모토라는 시스템의 근간의 하나로 비기비전(秘技秘伝)에 의한 가예(家芸)의 독점화가 있으나 이것은 아마 불교 특히 밀교의 전래가 발단이다. 즉 스승에 귀의하고 그 교리를 이어가는 모습이 이에모토에 입문하여 비전(秘伝)을 받는 형식의 원형이 된 것으로 보이며, 밀교의 인신(印信)⁶⁶이 다양한 유파의 상전서(相伝書)의 교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에도시대에 관학이 된 주자학 계열의 사상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스승에게 무심(無心)으로 복종하는 것과 이에모토의 절대성을 시인하는 등, 이에모토에 의한 봉건적인 세습 지배구조 등은 주자학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고 아주 공통점이 많다. 이에모토 제도의 특징으로 이에모토와 제자 사이를 중간 스승인 나토리(名取)나 사범 등이 개입하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취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니시야마(西山松之助, 1959:164)에 의하면

이런 구조는 구마노 모테(熊野詣)⁶⁷의 오시(御師)－센다쓰(先達)－단나(檀那)라는 계층구조나 정토진종(淨土真宗) 혼간지(本願寺)교단의 법주(法主)－일가중(一家衆)－말사(末寺)－문도(門徒)의 구조가 원형으로 생각된다. 특히 혼간지(本願寺) 교단에서는 법주(法主)가 세습하여 종교적 권위를 자랑하며 제자의 회사를 모으고 "고쇼고멘(後生御免)"⁶⁸이라는 일종의 졸업 증서 발행 권한을 독점했

66) 밀교에서 스승이 비법을 전수한 증거로서 제자에게 수여하는 서장(書狀)이다.

67) 구마노모테(熊野詣)란 기이반도(紀伊半島)남부의 구마노(熊野)에 있는 본궁(本宮), 신궁(新宮), 나지(那智)의 세 산을 참배하는 의식으로, 원정기(院政期)의 반복되는 천황의 구마노 행차로 인하여 유명하게 되어 신분의 귀천을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다. 살아 있으면서 죽어 서방정토에 다시 태어났다가 다시 현세로 되돌아온다는 구조를 가진 의식을 센다쓰(先達)라는 안내자를 따라 수행한다. 중간에 금전을 바치는 의식도 있다.

68) 혼간지(本願寺)의 10대 법주 쇼노 고교(証如光教, 1516~1554)에 의한 「과문권(破門權)」 발행과 그 아들인 11대 법주 겐노 조닌(顯如上人, 1543~1592)에 의한 혼간지(本

다는 점에서 이에모토 제도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 된다

라고 하여 그 원형을 그려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서 이에모토 제도가 성립되었나? 나토리 제도를 조직한 이러한 방대한 조직의 이에모토 제도는 대체 왜 생겨난 것인가? 먼저 그 사상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쓰키 미키오(大槻幹郎, 1984)에 의하면

권력을 선망하여 동경하는 일본인의 잠재적 의식에서 온 것이다. 즉, 이에모토는 권위를 더욱 높게 강화하고, 사장(師匠)은 권위를 이용하며, 제자는 그 권위를 갈망한다는 이 관계가 커다란 이유로 작용한다. 다시 말하면 오랜 일본 역사의 특수한 풍토 속에서 살아온 민중의 생활 속에 숨어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관행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뿌리가 이러한 관계를 맺는 끈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중략)일본에 있어서는 역사의 변혁기에도 항상 권위가 높게 평가되고 존속해 왔다는 현저한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권위를 갈망하는 자세가 관습화 되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에도시대 중기에는 사농공상이라는 구조를 가진 고정된 사회적 신분제도 하에 불교의 승려의 지위라는 예외와 함께 예술은 신분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승진하거나 다이묘에게 발탁되어 공적인 지위를 얻는다든지 할 수 있었는데 유일하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중개역할을 한 것이 이에모토였다. 그 경우 이에모토의 면허라는 것은 누구나가 탐내는, 없어서는 안 될 신분증과 같은 것이었다. 물론 이에모토의 면장이라는 것은 지배계급인 무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願寺)의 권위를 증대시키기 위해 파문당한 사람도 성불할 수 있다는 「고쇼고멘(後生御免)」이라는 일종의 면장발행권을 독점한 사건이다.

2) 이에모토 조직의 특성

프란시스 슈(1998:77~86)에 의하면 예술계의 이에모토의 특성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사제관계, 교차적 위계질서, 이에모토의 절대적 권위, 가친족(家親族) 제도⁶⁹)로서의 이에모토이다.

(1) 사제관계(師弟關係)

교습의 기본적 기교와 수법의 분석, 조직은 스승에 의하여 결정되고 통제된다. 제자가 예능의 내용이나 해석에 수정을 가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된다. 교습의 핵심은 하라게이(腹芸)로서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특별한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중에 보고 모방해서 배우는 것이다. 사제관계에 대하여 슈(1998:77~79)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제관계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단계는 도제의 자격을 취하기는 하나 아직 이에모토 제도아래서 가족적 관계의 성원이 되지 못한 때이며, 두 번째 단계는 제자가 어느 정도의 숙련을 닦아 자격을 인정받는 때이다.

자격증 수여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스승은 제자에 대한 직업적 보호와 의무를 지니고 제자는 스승에 대한 봉사의 의무를 지니며 스승의 예술적 수법을 충실히 재현해야 하고 개인적, 의례적 행사 때마다 금전적인 부담을 해야 한다.

69) 가친족이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마치 친족관계처럼 관계를 맺는 개념이다.

(2) 교차적(交叉的) 위계질서(位階秩序)

이에모토의 조직은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한다. 이에모토를 우두머리로 말단 제자에 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스승들은 그들 자신의 스승을 통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여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형성된다.

협동적 노력에 의하여 유지되고 확대된다. 이러한 집단을 가리켜 파벌이라 하며 구성원들은 그들의 비법을 외부로부터 지켜야하며 외부로 누설해서도 안 된다. 위계질서는 혈연관계가 우선이고 다음으로 자격증, 실력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이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질서가 유지된다.

(3) 이에모토의 절대적 권위

‘이에모토’는 조직의 비법을 보호하고 세력권을 조정하여 실력의 수준을 유지하는 등의 권한을 지니며, 자격증 수여비와 기타 행사를 통한 수입, 제자들의 수입의 일부를 받는다. 또한 그의 지위를 혈육에게 물려줄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개의 경우 아들이 물려받거나 아들이 없으면 딸로 하여금 모처혼(母処婚)⁷⁰⁾을 하게 하여 사위를 후계자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니시야마(西山松之助, 1962:7)에 의하면

에도시대 이래 지속된 전통적 이에모토가 되면, 개인은 아무리 훌륭한 예술가라 할지라도 이에모토라는 지위에 오르면 바로 봉건적 구태를 나타낸다. 그 중에서도 노(能)세계는 심한 가부장적 제도를 엄격하게 유지하며 모든 제자는 강제적 가족의 구성원으로 편성된다. 이 피라미트 형 사회의 정점에 이에모토가 절대 권위로서 군림하고 있는 것이 실태이다

70) 모처혼이란 결혼 후 부부가 처가 측 집단과 함께 거주하는 혼인형태를 말한다.

라고 하여 이에모토의 절대 권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에모토의 지위에 오르면 봉건적 절대권위로서 균립하게 되는 이에모토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진다. 이러한 일본인의 특징에 대하여 분석한 이기동(2006:41~42)의 다음 글은 그러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일본인들은 남과 어울리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장시간 함께 어울려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바꾼다. 어울려 사는 사람들의 집단 중에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집단이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에게는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부모를 뜻하는 오야분(親分)이라 정한다. 그 나머지는 자녀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데 자녀의 역할이란 뜻으로 코분(子分)이라 부른다. 일본인들은 각각의 역할을 철저하게 해내며 이것이 그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방법이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이에모토 제도가 일본사회에서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자리를 잡게 된 배경이 바로 일본인의 위계적 집단을 이루는 행동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즉 부모와 자녀는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 이에모토와 그 구성원 또한 한쪽은 균립하고 한쪽은 복종하는 상하 관계를 자연스럽게 구성하는 것이다.

(4) 가친족(家親族) 제도로서의 '이에모토'

스승은 자신을 가장으로 생각하고 그의 제자들을 자식처럼 대한다. 이에모토 제도는 예술계나 합법적인 전문직 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 폭력단 조직 같은 경우에 그들은 가족을 의미하는 「집안」이라든가 「형제」·「부모」라는 용어를 쓰는데 주저함이 없다.

이기동(2006:37)에 의하면 일본인의 정서의 특징은 지(知)의 문화를 가진 유형

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삶을 투쟁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안하며 살아가는 행동방식에서도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앞에서 인용한 예를 보면 상대를 이길 수 없을 때에는 상대의 코분이 되어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남는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근대 일본 사상의 형성에도 작용하여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근대 일본의 지배체제를 확립하게 하였고 국민의 정신세계를 장악하였다. 다시 이기동(2002:155)의 다른 글을 인용하여 보겠다.

일본 국민의 신민화는 천황을 가장으로 하고 신민을 자식으로 하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창출하면서, 국가를 끊임없이 가(家)의 연장으로 이해시켜갔고, 동시에 민심을 오로지 천황에게 수렴해 가는 소위 가족국가관을 확산시켜갔다.

윗글에서 보듯이 일본에 있어서의 가장 즉 이에모토를 정점으로 이루어진 피라밋 형의 제도와 사상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나온 역사를 통하여 발전되고 체계화되어 왔으며 모든 영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전라도 이에모토 제도

1) 차노유 이에모토 제도의 영향

다도는 일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는 가치관이다. 그것은 오랜 역사와 함께 전승되었다는 점, 차를 우린다는 동작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도구·의상·글씨·그림·역사·문학·향도·꽃꽂이는 물론 식사·건축·정원양식에 이르기까지 교양과 지식과 생활양식·행동양식·의례·인간관계

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예술·문화에 걸쳐서 관련지어져 있는 특징이 있다. 먼저 차노유 이에모토 제도가 성립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쇼군이나 다이묘를 중심으로 한 무가사회의 다사(茶事)가 극도로 격식화 되고 동시에 학문에 있어서도 봉건사회에 적합한 유학(儒學), 한학(漢學), 소위 하야시 라잔(林羅山)의 맥을 이은 주자학 등이 정치의 지도 원리로 된 결과, 유학, 한학 등이 상당히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그 결과 각 번에서는 앞을 다투어 저명한 유학자를 영입하여 정치고문으로 삼게 되고, 그리하여 모든 번(藩)의 정치가 쇼군가(將軍家)의 지령 하에 유교적 도덕관념을 근간으로 통치함에 따라 다인은 완전히 권위를 잃게 되었고 다두(茶頭)에 대한 대우 또한 급격히 악화되게 된다.

구와다 다다치카(桑田忠親, 2004:203~208)는 위와 같이 말하고, 다두(茶頭)에 대한 대우가 나빠지고 완전히 권위를 잃게 되어 상인 계급에서 나온 다인이 살아갈 길을 모색하게 된 것이 이에모토 제도를 도입하는 길이였다고 하였다. 또한 이에모토 제도의 차인 초닌차가 성립 되는 과정을 구와다 다다치카(桑田忠親, 2004:203-204)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래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순서로 보면 무사나 다이묘는 가장 부유한 계급이지만 사실은 소비자 계급이므로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궁핍해져서 결국 겐로쿠(元祿)시대가 되면 상인계급에게 경제적 지배권을 빼앗기고 만다. 그 기회를 포착한 다인들은 상인들의 부유한 경제기반을 바탕으로 하나의 「초닌의 차」라는 것을 만들기에 이른다. 그 이유는 상인이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에도시대 봉건사회의 영향을 받아서이다. 상인이라는 계급은 최하위이므로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는 상류계급의 취미인 다도문화를 익힐 필요가 있었다.

박전열(2006:197)은 “경제적 능력과 문화적 소양을 갖춘 상공인 즉 초닌은 함께 다도를 즐기려면 사범에게 입문하여 장기간에 걸친 수련을 통하여 일정한 소

양을 쌓아야 한다. 그 결과 전문가인 사장(師匠)의 탄생을 불러왔고 다도교습의 사업화를 가져왔다. 사장의 가문을 종가로 삼고 그 대표자를 이에모토로 섬김으로써 다도의 유파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에모토 제도의 성립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에도 중기에 들어서서 이에모토의 제한 없는 증가를 방지하지 못한 문제에 직면한 센케 이에모토는 7대 종장 이후, 새로운 이에모토 제도의 교육 즉 불완전상전제로 바꾸기 시작하여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다도의 형식과 논리는 매우 보수화되고 거의 분화하지 않게 된다⁷¹⁾. 그 이유는 이에모토 제도가 불완전상전제로 정비되고 일단 공인받은 이에모토에게 권위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다도의 내용은 17세기 이전에 강조되었던 수양적 성격보다는 유예적 성격이 강화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는 계고에 필요한 대량의 다도구의 수요 증가를 가져왔다. 무라이 야스히코(村井康彦, 1985:206)도 이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도인구의 증대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이에모토 제도가 정비되고 상전체계가 형성되는 한편 다도의 대중화속에서 새로운 수업법이 고안되었다. 놀이형식이 가미된 차의 학습방식인 칠사식(七事式)⁷²⁾이 제정되고 기존의 다인들로부터는

71) 그 이전까지는 완전상전제로서 면허를 받은 제자는 원하면 스스로 독립해서 자신이 만든 유파의 이에모토가 될 수 있었다.

72) 시치지시키(七事式)란 오모테센케 7대 조신사이(如心齋)가 우라센케 8대 잇토 소시쓰(一灯宗室)와 상의하여 제정한 수업방식이다. 그 일곱 가지란 ① 가계쓰(花月): 5명이 나무카드를 돌려 꽃그림을 뽑은 사람이 차를 우리고 달 그림을 뽑은 사람은 차를 마신다. ② 사자(且座): 손님 3명과 주인, 시자(보조역) 등 5명이 주객(正客)은 꽃을 찻고, 다음 손님은 숯을 넣고, 셋째 손님은 향을 피운다. 주인은 고이차(濃い茶), 보조역은 우스차(薄茶)를 낸다. ③ 一二三 : 주인은 고이차 또는 우스차, 스미(炭)의 데마에를 하고, 손님은 동작의 정확도, 태도, 절도(節度) 등을 열 종류의 카드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④ 가즈차(數茶): 카드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차를 마신다. ⑤ 차가부키 : 투다를 기본으로 미각의 수련을 위하여 먼저 두 종류의 차를 마신 다음,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다시 마시고 그 차를 구별하는 놀이이다. ⑥ 마와리하나(廻花):주객이

비난도 받았으나 이 새로운 수업법은 제자 다이묘들을 통하여 다도가 지방으로
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박전열(2006:210)은

이에모토 제도의 결과 다도구라는 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그 이유
는 하코가키(箱書)라 하여 다도구에 명칭, 작가, 소유자의 이름 또는 명(銘)을
써 넣는 제도가 있는데, 그 경우 도구의 가치가 이에모토의 권위에 좌우되기 때
문이다. 18~19세기에는 유예의 수요층이 넓어지고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면서
예능 본래의 모습을 잃고 유희와 형식에 빠져든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
졌다. 유예의 비판은 예능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나 차노유 내부로부터의
비판도 제기되었다

고 하였다. 이에모토제도를 비판한 인물로는 에도 중기의 유학자인 다자이 순다
이(太宰春台, 1680~1747)가 있다. 다자이는 차노유가 명물다기를 자랑하고 찻잔
을 돌려 마시는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나도 평생 차를 즐기므로 어디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한 후에 고이차 한잔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데, 술도 마시고 단 음식도 먹으나 차는 새 잔에 시동이
따라주는 차를 각자의 잔에 마시는 것이 좋다. 요즘에 유행하는 다도는 아주 괴
상한 풍습이다⁷³⁾.

또 다른 비판론자로 유학자 출신인 후주사이 치쿠신(不住齋竹心, 1678~1745)
은 “본디 다도는 명리를 추구하지 않는 무일물성과 준비를 따지지 않는 평등성,
그리고 진심으로 벗을 대해야한다”라고 다도의 성격을 주장하여 다도계의 타락

차례로 꽃을 꽂는 놀이이다. ⑦ 마와리스미(廻炭):겨울철에 솥을 다루는 수련을 목적
으로, 주인의 뒤를 이어 손님들이 솥을 차례로 넣는 놀이이다.

73) 다자이 순다이(太宰春台), 『독어(獨語)』, 『史料による茶の湯の歴史』 下, 主婦の友社,
1995. 395-396

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이 시대에 나타난 다도관의 변화는 물질주의적인 다도, 즉 물질적인 다도를 극복하여 원래의 다도 정신 즉, 선적인 경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19세기에 이르면 전다는 더욱 유행하여 전다가로서 이름난 인물에게로 입문하는 제자가 늘어나고 신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차노유를 지탱하던 구 막부의 무사 사회가 붕괴되자, 한때 차노유를 능가하는 세력을 가진 전다문화는 점차 체계화 되어 전다도라는 새로운 예식화 된 대중문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리하여 전문적인 전다 이에모토가 탄생한다.

그 배경에는 에도시대 중기 이후 차노유가 대중화와 더불어 이에모토 제도화 되었다는 역사적 선례가 있어 쉽게 이루어졌다는 부분도 부정할 수 없다. 전다도의 성립배경은 차노유에 대한 반발로 생겨났는데 차노유의 비판에는 다도구 비판, 다선일미 비판, 문아(文雅)없음을 비판한 것⁷⁴⁾ 등으로 그 각각에 대하여 살펴 보려 한다.

(1) 다도구에 대한 비판

17세기 이래 다도 인구가 늘어나고 새로운 다도방식이 생겨남에 따라 대량의 다도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다도구의 명칭, 작가, 소유자의 이름 또는 명(銘)을 써 넣는 하코가키(箱書)라는 제도가 생겨나면서 이에모토의 미의식이 반영된 다도구를 선호하게 되어 다도구에 대한 가치와 평가가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박전열(2006:206)에 의하면

다도가 유예화 되기 전에는 다도구 자체 즉 물질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세계나 선적인 경지가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하코가키는 단순한 물품구분을 위

74)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은 (榎林忠男, 1985:248)이다.

한 기호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놀이성이 강조되는 과정에 기호품으로서의 다도구라는 물질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도구를 단순한 미술품이 아니라 소유자의 역사나 명이 지니는 문화적 의미에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으며 이런 관념 이후 다도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고 하였다. 여기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그 가치 부여의 정도가 지나쳐서 집착으로까지 여겨지는 물질숭배 풍조이다. 도구차로 전락한 것은 차노유 본래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전다의 성립 배경이 되었다.

(2) 다선일미 비판

에이사이선사가 차문화를 들여온 것은 차가 졸음을 방지하고 정신을 맑게 하여 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차노유라는 별개의 문화로 모습을 바꾸어 승려가 수행에 전념하기보다는 속인과 같이 어울려 비싼 다도구를 갖추고 차를 즐기는 등 세속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3) 문아(文雅)없음에 대한 비판

아취가 없는 즉 세속적인 차노유 문화를 비판한 것이다. 문아 없음으로 인하여 분한을 지나쳐 세속에 빠진 차노유를 비판했다.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 1734~1809)는 『다가취언(茶癡醉言)』에서

예기(芸技)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다. 중국의 이어(李漁)가 ‘궁극에까지 법을 추구하면 법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 만다.’라고 한 말은 중요하다. 처음부터 정

해진 규칙이 없으면 질서는 문란해지고 흥이 깨진다. 그렇다고 해서 법도에 너무 엄매이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법을 익히고 난 후에 법을 떠나 무위로 돌아가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차노유를 하는 사람들이 법도에서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차의 노예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차노유가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문인정신에 맞는 청아의 풍류를 전다에서 구하고 있다(熊倉功夫, 1995:409). 라이산요(賴山陽, 1780~1832)는 차노유에 대하여 문맹(文盲)이라고까지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다노무라 치쿠텐(田能村竹田, 1777~1835)⁷⁵⁾처럼 원래 차노유자였으나 전다가로 전향한 사람도 생겨났다.

전다 이에모토의 대표적 인물이 다나카 가쿠오(田中鶴翁, 1782~1848), 오가와 가신(小川可進, 1786~1855)이다. 두 사람에 의하여 전다는 소위 전다도로서 확립되게 되었다.

종장파(宗匠派)의 전다는 널리 문인들 사이에 받아들였으나 당시의 모든 전다가가 이 흐름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종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외에도 전다를 애호하는 이들이 의연하게 문인 취미로서 즐겼으며, 그 중에는 일파를 이루지 않더라도 창의력을 발휘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전다법을 만들어 내는 이도 생겨났다. 남화가 야마모토 바이이쓰(山本梅逸, 1783~1856)⁷⁶⁾는 전다회에 참가하거나 스스로 다회를 열어서, 나고야 지역에 전다를 보급하는데 큰 활약을 하였다.

이같이 유파가 확대되고 수많은 유파가 생겨나자 이에 대한 비판이 대두된다.

75) 다노무라 치쿠텐은 전다애호가 중에서도 특히 전다에 열의를 가진 인물로 평가 받는다. 문인화가였던 그는 청정한 전다정신을 화폭에 정교하게 담아내는 데 으뜸이었으며 스스로 전다서, 전다기를 남기기도 하였다(植林忠男, 1985:204).

76) 야마모토 바이이쓰(山本梅逸)는 에도후기를 대표하는 화가이다. 오와리(尾張)출신이며 이름은 신스케(親亮)라 하였다. 나카바야시 치쿠도(中林竹洞)와 함께 교토에 가서 일가를 이루었으며, 라이산요(賴山陽), 누키나 가이오쿠(貫名海屋, 1778~1863), 야나가와 세이간(梁川星巖, 1789~1858) 등과도 친교가 있었다.

후카다 세이이치(深田精一, 1802~1855)는 『목석거전다결(木石居煎茶訣)』을 저술하여, 전다는 문인차와 속인차로 나누어지는데 속인차가 차노유 비판에서 전다가 생겨났다는 원점을 망각하고 차노유의 흉내를 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문인차는 차를 끓이는 방법도 각자가 나름대로의 기량에 따라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청희간결(淸戲簡潔)이라는 옛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속인의 차는 근래 말차법을 흉내 내어 규칙을 만들고 더욱 한심한 일은 인가를 내어 준다고 사례를 요구하거나 차를 끓이는 방법이 수십 종류가 된다거나 진행초(眞行草)라는 순서가 있다거나 하는 이가 있다(熊倉功夫, 1995:410).

이 비판은 정곡을 찌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하나는 전다의 배경이 된 ‘문인’이라는 계급의 붕괴였다. 문인이라 칭하는 그들 중 일부는 막부의 벼슬을 맡은 이도 있어 본래의 반사회, 반 권위적 자세를 잃었던 것이다. 오가와 고라쿠(小川後樂, 1981:414)에 의하면 “그들이 문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철저한 중국취향 때문이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대상으로부터 문인의 틀을 벗어난 종장차는 오히려 국풍화(國風化)의 징조가 보였다. 또한 『전다결(煎茶訣)』의 「속인차 비판(俗人茶批判)」에서 볼 수 있는 피상적이고 감정적인 초조감은, 전다의 자유성을 주장하는 이상으로 문인차의 정통성을 문제 삼아 전다계에 있어서의 지도적 지위를 얻으려 하는 세속적 다툼까지 생겨났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차노유를 비판하였던 문인차 또한 반사회, 반권위적 자세를 잃음으로써 본래의 지향하던 정신과는 멀어지게 되었고 차노유와 다름없는 격식을 채택하게 되는 과정을 밟는다.

2) 전다도 이에모토 제도의 성립

전다도가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유파가 생겨났다. 모리모토 신코(森本信光, 1973:305)에 의하면 전다에 유파수가 많은 것은 문인묵객의 자유로운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에 의하면 전다가 아무리 하나의 다도로서 형식과 예법을 정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거기에는 스스로 추구하는 자유로운 정신과 분위기가 있어서 수련에 의하여 전다의 정신적인 것을 체득하면 되는 것으로 그것이 ‘도’로서의 전다 즉 전다도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전다의 유파로서 가장 먼저 생겨난 것은 오사카의 다나카 가쿠오에 의한 가계쓰안류(花月庵流)와 교토의 오가와 가신에 의한 오가와류(小川流)이다.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시대에 걸쳐서 전다도화 되어가는 전다계와는 별도로 문인파라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수많은 전다인이 활약하였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전다는 대단히 성행하였고 말차를 압도할 정도였다. 오늘날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차라고 하면 전다를 가리킬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다기(煎茶器)는 고액에 매매 되기에 이르렀고, 전다회는 마치 ‘서화골동품 전시판매 대회’ 라고 할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전에 스스로 비판했던 차노유와 같은 ‘도구차(道具茶)’의 길을 걸은 것이다.

이러한 어두운 그늘에서 문인들의 인문과학 정신도 자연과학정신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고, 유럽 문물의 유입과 청일전쟁에 의한 중국관(中国觀)의 변질, 또 ‘도구차’화 된 것에 대한 비판에 의하여 전다문화는 점점 쇠퇴하고 말차가 다시 대두하게 된다.

전다문화가 다시 나타난 것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민주주의 바람을 타고부터이다. 1951년(소화26년) 교토에 거주하던 7인의 이에모토(家元)에 의하여 「교토 전다이에모토회(京都煎茶家元会)」가 결성되어 이후 매년 봄에는 니조성(二条

城)77)에서, 여름에는 기온(祈園) 야사카신사(八坂神社)78)에서, 가을에는 헤이안신궁(平安神宮)79)에서 합동 전다회가 열리고 시민에게도 개방되었다. 현재는 매년 5월에 이틀간 교토에서 전국 전다도 대회를 성대히 개최한다. 대회에서는 40여 유파의 테마에를 볼 수 있으며 전국의 다도구상과 다인들로 대성황을 이루는 전다도축제의 한마당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전다문화연구회(煎茶文化研究会, 1997:230~233)에 의하면, 일본의 전다도의 유파 수는 일본 전다도연맹 소속 39개유파와 미등록 유파를 모두 합하면 100여개 유파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전일본전다도연맹에서조차 정확한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전다도 이에모토 제도의 발달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본의 이에모토 제도는 일본이 근대화 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그러면 이에모토 제도의 역할은 무엇이며 한계점은 무엇인가.

-
- 77) 니조성(二条城)은 (1603)에 이에야스(德川家康)에 의하여 교토(京都)의 니조(二条)에 지은 성이다.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하고 천하의 실권을 쥔 이에야스가, 천황으로부터 정이대쇼군(征夷大將軍)의 첩지를 받을 때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었다. 2대 쇼군 히데다다(秀忠)도 이곳에서 첩지를 받았다. 1626년 3대 쇼군 이에미쓰(家光)가 고미즈노오천황을 맞이하여 연회를 베풀 때가 가장 완비된 시기로서, 오중탑, 서원, 넓은 거실(大広間) 등이 있다.
- 78) 야사카신사(八坂神社)는 교토시에 있는 신사이다. 스사노오노미고토(素戔嗚尊), 구시나다히메노미고토(櫛稲田媛命), 이쓰오산조하추미코토(五男三女八柱命) 등을 모시고 있는 곳으로, 876년 질병의 유행을 막기 위해 엔조(円如)가 하리마(播磨)로부터 고즈(牛頭)천왕을 청하고 이곳에 모신 것이 유래이다.
- 79) 헤이안신궁(平安神宮)은 교토시에 있는 신사로 간무천황(桓武天皇)과 고묘천황(孝明天皇)을 모신 곳이다. 메이지28년(1895) 헤이안천도 1100년을 기념하여 창건하였다. 10월22일의 신코사이(神幸祭)라는 시대제로 유명하다.

이에모토 제도의 문제점에서 보았듯이 전다도도 이에모토 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처음 바이사도가 제창하였던 고고한 문인정신은 흐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차노유의 지나친 형식주의와 물질숭배주의 그리고 본래의 차 정신을 망각한데 대한 반발로 생겨난 전다도는 차노유와는 도구나 형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 사상적 배경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먼저 차노유가 불교의 승려를 통하여 차와 킥다습관이 도입되었고 따라서 음다법이나 정신적 배경에 불교의 선(禪)의 수행적 요소가 자리매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다도는 도입한 인물이 승려라는 불교적인 요소는 같으나 중국에서의 전다문화가 시인 문인취향의 풍류차 였다는 점, 일본의 시대적 배경이 도쿠가와 의 정책에 의하여 불교가 힘을 잃고 유교(儒教)가 점차 정치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영향으로 불교보다는 유불도(儒佛道)가 융합된 문인취향의 차문화로 정착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국가권력과 결탁하는 상층계급과는 반대 입장을 취한다는 점이 차노유와의 차이점이다.

그 문인정신은 흐려졌으나 전다도는 일본의 다도문화의 한 흐름으로 당당히 이어지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차가 전다이다. 차는 음료로서 혹은 그 성분으로서 마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차의 정신이다. 차노유와는 차별되는 문인고사(文人高士)들이 즐기던 고고한 차정신은 전다도가 지향하는 중심사상이다.

3. 이에모토 제도의 업적과 문제점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해 온 이에모토 제도는 그 잇점도 있으나 현대사회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먼저 잇점에 대하여 오야 유키에(大屋幸恵, 1999:246)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에모토 제도는 그때까지 일부 귀족이나 무사 등의 특권계급에 한정되었던 예능과 기예(技芸)를 만인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의 전통예능은 일상의 생활양식의 형식화, 의례화라는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많은 예능인구의 획득·증가를 가져왔고 나토리제도(名取制度)가 정비되어 다도문화의 대중화현상을 가져왔다.

권위에 대해 의존적이고 동경을 하던 일본인들에게는 이 제도가 자신이 권위를 가지게 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본래는 귀족이나 승려, 무사 계급의 일상의 생활양식이었던 예능문화를 다른 계급 즉 도시의 상공인계급이나 농민들이 취득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별세계로 들어가는 일로서 획기적인 일이라 볼 수 있다. 작은 초암다실에서 음다를 즐긴 근세 일본인의 미의식은 이러한 일본인의 상위계급을 향한 동경에서 출발하여 형태가 있는 미의식으로 정착된 것이라 본다.

이에모토 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가족성원 개개인보다 집단이 훨씬 중요하며 ‘이에’라는 집단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격이 무시당하고 희생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이다. 아베 신노스케(阿部真之助)는 1959년 「선데이마이니치」에 이에모토 제도를 없애자 라는 기사를 실어 이에모토 제도의 폐지론을 주장하였다⁸⁰⁾. 이렇게 언론에서 이에모토 문제를 거론한다는 자체는 이에모토

80) 1959년5월31일 선데이마이니치신문 4-5면에 실린 기사이다.

제도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점의 또 한 가지는 금전수수 방식이다. 이에모토 제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노유의 인구가 증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모토 제도가 확립하면 완전상전(完全相伝)⁸¹⁾에서 일부만을 전수하는 일대상전(一代相伝)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즉 모든 걸 전수 받아도 개인은 면허장을 발행할 수 없다. 중간 종장(宗匠)은 제자에게 여러 단계의 면허장을 건네 줄 때 일일이 이에모토에게 보고하고 제자는 면허료를 지불한다. 공식적인 요금 외 더 많은 액수를 사례금으로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차 행사 때 입고 갈 의상에도 적지 않은 지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에모토의 수입은 늘어가게 되어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인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고액 소득자를 연구한 헨네만(Horst S. Hennemann, 1987:211~245)의 글을 인용해 보겠다.

꽃꽃이의 소게쓰류(草月流)에서는 초보자단계의 8천엔부터 상임이사단계의 60만엔까지 13단계로 서열화 되어있다. 오히라류(小原流)의 경우 초급의 6천엔부터 1급 이에모토교수의 10만엔까지 1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어느 정도 그 예술이 성행하는 지는 이에모토의 소득을 보면 알 수 있다. 1961년에는 연간 1억 엔이 넘는 고액 소득자는 경제 문화 전 영역에서 15인에 지나지 않았는데 전통 예술 및 오락예술 영역의 꽃꽃이 이에모토가 제 1위로 이케노보 센에이(池坊専永)가 1185만엔, 데시가하라 소후(勅使河原蒼風)가 962만엔으로 2위였다. 그리고 1967년에는 1위에서 10위까지의 상위권에서 6개가 화도이에모토 또는 다도이에모토였다. 1975년도에는 상위 5개, 1984년도에는 고액 소득자 상위 3개가 화도 또는 다도 이에모토였다.

물론 모든 이에모토가 이렇게 많은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에

81) 완전상전이란 스승이 축적한 기술이나 규칙의 모든 것을, 계승을 희망하는 제자 중에서 자질을 갖춘 자에게 전수하는 전승방식. 제자 전원에게 전수하는 경우도 있고, 한명인 경우도 있다.

모토라는 제도 자체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간 종장이 다수 있고 각각의 중간 종장 아래 많은 제자가 있어 그 제자들이 이에모토에게 전수료와 면허장 발행 수수료를 다량 지불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므로, 수입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모토 이에모토 제도에 관해서는 어떠한 국가적 입법도 없으므로 그 사업은 이에모토 개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에모토의 또 다른 문제점은 권위주의이다. 이시모리 에이코(石森叡子, 1977)⁸²⁾는 ‘화경청적(和敬清寂)’을 상품화 한 무모한 다인들의 교만함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1977년12월9일. 제14회 탄코가이(淡交会)⁸³⁾에 참가한 나는 뜻밖의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NHK홀을 가득 메운 인파의 열기와 함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우라센케의 종장 센소시쓰를 신격화(神格化)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중략) 이에모토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 키 높이의 삼면(三面)거울을 전용룸에 준비해야 한다. 키 높이 거울이 아니면 영접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이에모토의 개인적인 취향에 맞춘 것이다. 지금의 쇼를 보는 듯한 대회와 다도가 원래 추구하는 ‘와비’의 정신세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다석에서 땀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물마시기를 삼가는 정신 자세와 전신을 비추는 삼면경을 준비하게 하는 교만함은 상반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이에모토 제도의 권위주의를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에모토 제도라는 시스템으로서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기로 하겠다.

82) 이시모리 에이코는 잡지사의 편집라이터이다. 그는 꽃꽂이, 다도의 우라센케를 배워 사범 면허증을 취득하나 그 과정에서 이에모토 제도의 모순점을 깊이 실감하여 3년 여에 걸쳐 이에모토 제도의 내막을 취재하여 『전후 일본전통을 망친 다화도의 이에모토(戦後日本の伝統をダシにした茶華道の家元)』를 출판하였다.

83) 1953년 우라센케 유파에서 조직한 친목회이다. 교토에 본부가 있으며 전국에 167개의 지부가 있고 해외에 35개국 99개소의 출장소를 두고 있다(2008년 7월 현재). 상급 이상의 과정을 마친 제자만이 가입할 수 있다.

니시야마(西山松之助, 1982:519)가 지적한 이에모토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남성과 여성과의 너무나 편향된 문화사회가 되어버린 점을 들 수 있다. 전후 절반이었던 다도의 여성 인구는 점점 늘어 현재는 적어도 90%가 여성이다(加藤惠津子, 2004:007). 남성은 이에모토와 유과의 중역, 사무직을 제외하면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이다. 일부에서는 다도가 여성전유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여학교에서의 다도교육이나 신부수업에 다도를 도입하는 등의 교육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또 하나의 문제점인 권위주의에 대해 니시야마(西山松之助, 1982:520)는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이에모토라는 문화사회가 문화적 자급자족 체제로 되어 있어서 이에모토의 예(芸)나 기술이 공적인 장소에서 비판당하는 일이 없다. 이것은 권위주의의 문제이다. 이에모토가 권위를 부풀리기보다는 일반사람들의 권위에 대한 숭배의식, 혹은 권위를 도피처로 인식하는 발상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수에 의하여 권위가 부여된 이에모토를 그 다수의 사람들이 숭배한다는 특수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인 조직의 폐쇄성에 대해 니시야마(西山松之助, 1982:521)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각각의 이에모토는 자급자족의 자기완결사회를 조직하고 있어 각자가 문화독립국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활발한 문화교류 및 자기비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이에모토 왕국의 경계영역이 확실하게 있어서 각자가 문화적 독립국의 관념을 하고 있어서 더 고차원적인 문화 창조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하는 일이 좀체로 어렵다는 점이다.

니시야마(西山松之助, 1982:521)는 이에모토 제도의 경직성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에모토에게 전해지는 비전은 그대로 다음 이에모토에게 전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모토 자신조차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 사실상 이 점은

문제점인 동시에 장점이기도 하다. 오랜 전통예술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진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수많은 경쟁적인 유파들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안정된 틀을 깨고 굳이 모험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니시아마(西山松之助, 1982:523)의 아래 글은 그러한 경직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 “이에모토 제도 예찬론자들은 오랜 일본의 전통예술이 지금까지 건전하게 전해 온 것은 이에모토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분명히 그러한 일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하다면 이에모토 제도 자체에 대한 전통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일본인이 아닌 외부에서 보는 견해로는 이에모토 사상은 오랜 기간 동안 길러 온 거의 일본인의 국민성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조직 사회든 일본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이에모토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전다도 역시 이에모토 제도를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즉, 각각의 유파가 문화적 독립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 일례로 일본의 전다도 유파가 100개가 넘지만 전다도 유일의 전국적 조직인 전일본전다도연맹 소속 유파는 39개 정도이다. 이는 1956년 연맹이 조직된 이래 수십 년간 거의 변함이 없는 숫자이다. 전일본다도연맹에 소속될 경우 비교적 개방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원 수, 시설 규모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전다이에모토 조직들은 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채 상당히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모토 제도가 지니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태이다.

중국적 문인차인 전다도가 일본사회에서 일본식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일본 특유의 사회적 습관 즉 이에모토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의 틀 안에 전다도라는 문화가 들어와 모양에 맞게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IV. 結 論

본 연구에서는 다도 본연의 정신을 망각하고 물질주의와 향락으로 치우친 일본의 차노유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전다문화를 이에모토 제도와 연결시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전다문화는 무로마치시대부터 행해졌다고 보는 시각과 헤이안시대에 이미 도입 되었다고 보는 시각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에도 중기에 정착된 전다도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일본의 차노유 문화는 헤이안시대 초기 사이초, 구카이, 에이추 등 견당승에 의해 중국의 선진문물과 함께 들어와 선원다례로부터 출발한다. 이후 서원차, 동산차, 무가차, 와비차로 발전해왔다. 선사에서 중요한 종교행사로 자리 잡는 시기의 차가 선원차이며, 넓은 중국풍의 서원식 다실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화려한 당물을 장식하고 차를 즐기는 것이 서원차이다. 이때의 차는 찻자리에서 주인이 직접 차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원에 딸린 옆방에서 시동이 내오는 차를 마셨다. 한편 8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를 중심으로 교토의 히가시야마 지역에 유행한 또 하나의 차문화가 동산차이다. 동산차는 넓은 거실을 사용하는 격조 높은 다회였다. 이렇게 발전한 차문화는 점점 지배계급인 무사·다이묘에게로 확산되어 무가차로 이어지게 되고 이후 차노유는 가마쿠라시대 노아미, 무라타 슈코, 다케노 조오를 거쳐 센리큐에 이르면서 다선일미를 표방하는 ‘와비차’가 완성되게 된다.

센리큐 사후에도 차노유는 센리큐의 아들 도안·쇼안과 손자인 소탄에 의해 전해져 4대째는 우라, 오모테, 무샤노코지의 세 유파로 나뉘어져 그 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주요 유파만도 40여개가 넘게 발전을 거듭하는 긴 역사를 지닌다. 이런 역사 속에서 차문화가 성장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일본의 다른 전통예능과 마찬가지로 이에모토라는 제도 하에 그 사상과 예법을 계승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16세기에 시작된 이에모토 제도는 일본의 오랜 전통예능을 온전하게 전해 오고 다도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창의성의 발휘와는 거리가 먼 형식화된 전수방식과 금전적 착취, 이에모토의 싸인이나 이름 하나에 물건의 평가가 급격히 높아지는 하코가키(箱書)라는 시스템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이에모토 제도 하에서 발전했던 차노유의 부패를 비판하고 부패한 선승계를 비판하여 생겨난 것이 전다도라 할 수 있다. 이 전다도의 원류를 살펴보면 정행검덕의 차정신에 바탕을 둔 육우의 『다경』에서 찾을 수 있다. 당, 송에서 명대에서도 『다경』 류의 차를 감상하면서 음다 풍습은 계속되어 문인고사들 사이에서 선경에 노니는 경지를 이상으로 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 다풍은 중국 당대의 시인 노동을 통하여 이어졌고 이 풍습을 일본에 전한 것은 일본의 3대 선종의 하나인 황벽종의 시조 은원선사로 알려져 있다. 이 새로운 전다풍을 선승들과 지식인 사이에 유행 시킨 것은 바이사오라 불리는 인물이다. 바이사오가 전다풍의 시조로 불리며 전다도는 에도말기부터 메이지시대에 전성기를 맞이한다. 종래의 다도에 비하여 형식면에서 자유로운 점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오늘날 전다도 유파의 이름에 ‘바이사’라는 글자가 많은 것은 그가 일본 전다도의 시조라는 이유 때문이다. 길거리에서 차를 팔던 노인 바이사오에 의해 시작되어 전다도는 지식인 문인들 사이에서 유행하여, 일본의 거대 예능집단으로 자리 잡게 된다. 현재 전일본전다도연맹에 등록된 39개의 유파와 미등록 유파를 모두 합하면 100여개의 유파가 활동하는 전다도 문화를 형성하였다.

또한 전다도는 유(儒)·불(佛)·도(道)의 사상이 내재되어있는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문방장식으로 선비들의 애완품인 붓, 벼루 등을 다실에 갖추고 매난국죽 등 선비취향의 꽃 장식을 함으로써 차노유와 차별화했다. 또한 다양한 꽃, 나

무, 과일 등 자연을 실내에 옮겨와 불로불사의 도교사상을 표현했으며 도교에서 지향하는 불로장생의 단약(丹藥)이 바로 차였기 때문에 차를 마심으로써 불로장생을 꿈꾸는 도교사상이 내재되어있다. 찻자리에 향을 피워 주위를 맑게 하는 불교사상도 전다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다도 역시 전다 이에모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래 지향하던 방향과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수많은 종류의 다도구를 구비하고, 전다도 대회장은 다도구의 판매장을 방불케 하는 등 형식은 차노유와 별반 다를 바 없음이 지적되고 있다. 일정한 법도 없이 진행하고자 하던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얼마 안가서 ‘전다식’이라 부르는 격식이 고안되고 여기에서 종장차 즉 이에모토 제도 하의 전다도가 탄생한 것이다. 수많은 유과가 생겨나자 이에 대한 비판도 신랄하게 대두된다. 후카다 세이이치는 『목석거전다결(木石居煎茶訣)』을 저술하여 “전다는 문인차와 속인차로 나누어지는데 속인차가 차노유 비판에서 전다가 생겨났다는 원점을 망각하고 차노유의 흉내를 내고 있다”고 전다도의 신생 종장차를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전다도는 일본의 다도문화의 한 흐름으로 당당히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선비들이 자연을 벗 삼아 풍류로서 즐기던 차문화와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일본인이 격식을 중요시하는 사상적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에도 시대에 들어서서 신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평등사상을 주창하던 불교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던 센리큐의 와비차 정신은 약화되고, 다도의 사상은 막부의 정치이념에 맞추어 불교적 다도관에서 유교적 다도관으로 변화되었다. 조선 주자학의 형이상학적 요소를 수입하였으나 형이하학적 형태로 변화시킨 일본의 주자학은 바꾸어 말하면 성선설적 사유형태를 수입하여 그것을 성악설적 사유형태로 변환시킨 모습으로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격식을 중요시하는 일본의 독특한 다도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며 다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사상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4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일본의 전다도의 배경에는 이에모토 제도가 있으며 이 제도는 일본인의 정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다도의 절제된 미의식 뒤에는 이에모토 제도라는 거대한 피라밋 형태의 조직체가 있어서 내면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다도도 예외가 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로 다도를 꼽는 이유도 이에모토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전다도 문화를 이에모토 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일본의 다도문화발전사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다만, 전다도의 유파를 일본전다도연맹에 등록된 유파 중 한정된 몇 개 유파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많은 유파를 연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전체 전다도 유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는 금후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한다.

參 考 文 獻

1. 史料

- 고유가이(高游外)(1763). 壳茶翁偈語. 京都 : 黄蘗山万福寺所藏本.
- 茶道古典全集(1957). 第1卷. 京都 : 淡交新社.
- 茶道古典全集(1957) 第2卷. 京都 : 淡交新社.
- 바이사 도규(壳茶東牛)(1857). 煎茶綺言. 京都 : 黄蘗山万福寺所藏本.
- 오가와 가신(小川可進)(1857). 後樂堂喫茶弁. 京都 : 黄蘗山万福寺所藏本.
-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1794). 清風瑣言. 黄蘗山万福寺所藏本.
- 육우(陸羽). 다경(茶經).
- 장원(張源). 다록(茶錄).
- 후카다 세이이치(深田精一) (1849). 木石居煎茶訣. 京都 : 黄蘗山万福寺所藏本.

2. 單行本

1) 韓國

- 구마쿠라 이사오(熊倉功夫)(1987). 김순희 역. 다도와 일본의 미. 서울 : 소화.
- 金大成(2004). 동다송. 서울 : 동아일보.
- 김명배(1987). 日本의 茶道. 서울 : 보림사.
- _____ (1993). 中國의 茶道. 서울 : 明文堂.
- _____ (1998). 茶道學 改訂增補版. 서울 : 學文社.
- _____ (1999). 茶道學論攷 증보판. 서울 : 大光文化社.

- _____ (2001). **다도학 논고Ⅱ**. 서울 : 大光出版社.
- 무라카미 시게요시(村上重良), 강용자 역. **일본의 종교**. 서울 : 지만지.
- 셴 겐시쓰 著, 박전열 역(2006). **일본다도의 마음**. 서울 : 월간다도출판.
- 윤경혁 편저(2005). **茶文化年譜**. 서울 : 弘益齋.
- 이기동(2006). **꿈이 성공하는 나라**. 서울 : 동인서원.
- 이기동 외(2002). 일본연구총서 12 - **日本思想의 理解**. 서울 : 시사일본어사.
- 이연자(1998). **차가 있는 삶**. 서울 : 초롱.
- 장유화 신역(2000). **육우 茶經**. 경북 : 남탐산방.
- 프란시스 슈 지음, 김주희 역(1998). **이에모토의 나라 일본**. 서울 : 민영사.
- 효동원(1986). **茶香禪味**. 서울 : 비봉출판사.
- _____ (1986). **茶香禪味 2**. 서울 : 도서출판 보림사.

2) 외국

- 가토 에쓰코(加藤恵津子)(2005). **茶はなぜ女のものになったか-茶道から見る前後の家族**. 東京 : 紀伊国屋書店.
- 구로사와 유키히로(倉沢行洋)(2003). **珠光-茶道形成期の精神**. 京都 : 淡交社.
- 구마쿠라 이사오(熊倉功夫)(1998). **日本文化のゆくえ**. 京都 : 淡交社.
- _____ (2000). **茶の湯の歴史**. 東京 : 朝日新聞社.
- _____ (2004). **南方録を読む**. 京都 : 淡交社.
- _____ (2007). **井伊直弼の茶の湯**. 東京 : 国書刊行会.
- 구마쿠라 이사오 외(熊倉功夫)(1999). **茶道学大系 第1卷 茶道文化論**. 京都 : 淡交社.
- _____ 외(1995). **史料による茶の湯の歴史**. 下. 東京 : 主婦の友社.
- 구와타 다다치카 외(桑田忠親)(1983). **豊公・利休をめぐる桃山の茶人たち**. 東京 : 日本経済新聞社.

- 구와타 다다치카(桑田忠親)(2004). **茶道の歴史**. 東京 : 講談社.
- 기무라 유테이 외(木村幽亭)(1985). **煎茶の点前**. 東京 : 主婦の友社.
- 나가시마 후쿠타로(永島福太郎)(1968). **茶の湯-日本の伝統 4**. 京都 : 淡交新社.
_____ (2003). **初期茶道史覚書**. 京都 : 淡交社.
- 나라바야시 다다오(榎林忠男)(1974). **煎茶の世界**. 東京 : 徳間書店.
_____ (1985). **茶の湯の展開. 茶道聚錦 五**. 東京 : 小学館.
- 누노메 초후(布目潮風)(1989). **緑芽十片**. 東京 : 岩波書店.
_____ (2001). **茶経詳解**. 京都 : 淡交社.
- 니시야마 마쓰노스케(西山松之助)(1959). **家元の研究**. 東京 : 校倉書房刊行.
_____ (1962). **現代の家元**. 東京 : 弘文堂.
_____ (1982). **家元の研究**. 西山松之助著作集 第1卷. 東京 : 吉川弘文館.
_____ (1982). **家元制度の展開**. 西山松之助著作集 第2卷. 東京 : 吉川弘文館.
- 다나카 센노(田中仙翁)(2003). **茶道入門**. 東京 : 三省堂.
- 다니가와 데쓰조(谷川徹三)(1975). **太陽 第150号 千利休 侘びの茶人**. 東京 : 平凡社.
- 다니 아키라(谷 晃)(2002). **茶会記の研究**. 京都 : 淡交社.
_____ (2007). **茶人たちの日本文化史**. 東京 : 講談社.
- 다카야마 우콘(高山右近)(2005). **忠興の追憶**. 日本文学館.
- 다카하시 다다히코 편(高橋忠彦)(2000). **茶道学大系-7 東洋の茶**. 京都 : 淡交社.
- 마쓰자키 요시로(松崎芳郎)(1992). **茶の世界史**. 東京 : 八坂書房.
- 모로오카 다모쓰(諸岡存)(1941). **茶とその文化**. 海風舎.
- 모리시다 호도(森下邦堂)(1973). **煎茶礼式-皇風煎茶礼式**. 東京 : 主婦の友社.
- 무라이 야스히코(村井康彦)(2006). **千利休その人と芸術**. 東京 : 河出書房新社.
- 미즈구치 호엔(水口豊園)(2006). **煎茶の心得**. 東京 : 世界文化社.

- 사이키 후토시(佐伯太)(1977). 煎茶の点前. 東京 : 河原書店刊.
- 센소시쓰(千宗室)(1983). 茶經と我が国茶道の歴史的意義. 京都 : 淡交社.
- 시게모리 미레이(重森三玲)(1982). 日本茶道史 日本文化史叢書1. 東京 : 藤森書店.
- 쓰쿠다 잇키(佃 一輝)(2000). おいしいお茶9つの秘伝. 東京 : NHK出版.
- 쓰노야마 사카에(角山栄)(1980). 茶の世界史 緑茶の文化と紅茶の社会. 東京 : 中公新書.
- 쓰쓰이 히로이치(筒井紘一)(1978). 茶書の系譜. 東京 : 文一綜合出版.
- _____ (2003). 茶書の研究. 京都 : 淡交社.
- _____ (2004). 南方録. 東京 : 講談社.
- 아라카쓰 도시코(荒勝淑子)(1988). 茶の考古学. 茶道研究庵藏会.
- _____ (2000). 続・茶の考古学. 大法輪閣教化出版部.
- 야마다 소빈(山田宗敏)(2007). 大徳寺と一休. 禅文化研究所.
- 야마모토 히로부미(山本博文)(1993). 江戸城の宮廷政治. 東京 : 読売新聞社.
- 야베 분지(矢部文治)(1977). 茶道全集 卷の五 茶人篇. 東京 : 創元社.
- 야베 세이이치로(矢部誠一郎)(1996). 日本茶の湯文化史の新研究. 東京 : 雄山閣出版.
- 오가와 고라쿠(小川後楽)(1980). 茶の文化史-喫茶趣味の流れ. 東京 : 文一綜合出版.
- _____ (1985). 煎茶の点前(春夏). 東京 : 主婦の友社.
- _____ (1987). 煎茶席の花. 東京 : 主婦の友社.
- _____ 外(1997). 煎茶の世界. 煎茶文化研究会編. 東京 : 雄山閣.
- _____ (1998). 煎茶を学ぶ. 京都造形芸術大学編. 東京 : 角川書店.
- _____ (2002). 茶の文化史-喫茶のはじまりから煎茶へ. (NHK人間講座).
- 오쓰키 미키오(大槻幹郎)(2004). 煎茶文化考(文人茶の系譜). 思文閣出版.
- 오카쿠라 가쿠조(岡倉覚三)著, 무라오카 히로시(村岡博) 訳(1991). 茶の本.

岩波書店.

- 와다나베 타쿠야마(渡辺琢山)(1976). 煎茶への誘い. 東京 : 日本放送出版協会.
- 우노 세이이치(宇野精一)(1990). 儒教思想. 東京 : 講談社学術文庫.
- 운노 쇼도(海野彰堂)(1977). 煎茶道 静風流. 上,下. 東京 : 主婦の友社.
- 유가와 세이(湯川制)(1973). 煎茶全書. 東京 : 主婦の友社.
- 이구치 가이센(井口海仙)(1980). 茶のこころものと精神の文化. プレジデント社.
_____ (1988). 茶人のことば. 京都 : 淡交社.
- 이시다 마사히코(石田雅彦)(2003). 茶の湯前史の研究. 東京 : 雄山閣.
- 이시모리 에이코(石森叡子)(1977). 戦後日本の伝統をダメにした茶華道の家元.
東京 : 山手書房.
- 치하라 히로오미(千原弘臣)(1982). 利休の年譜. 茶道文化選書. 淡交社.
- 하가 고시로, 니시야마 마쓰노스케(芳賀幸四郎, 西山松之助)編(1962). 茶の文化
史 図説茶道大系 2. 東京 : 角川書店.
- 하라 슈케이(原宗啓)(2001). 図解 茶の湯の心くばり. 黙出版.
- 하세카와 쇼쇼교(長谷川瀟々居)(1983). 煎茶志. 東京 : 平凡社.
- 하야시야 다쓰사부로 외(林屋辰三郎) 編注(1971). 日本の茶書. 東京 : 平凡社.
- 후나오카 마코토(船岡誠)(2008). 江戸幕府の政治と文化. 東京 : 国土社.
- 히가시 기미(東君)(1998). 茶から茶道へ. 東京: 新日本印刷株式会社.
- 히사마쓰 신이치(久松真一)(1991). 茶道の哲学. 東京 : 講談社.

3) 기타

- 이구치 가이센(井口海仙)(1978). 茶道辞典. 京都 : 淡交社.
- 모로하시 데쓰지(諸橋轍次)(1960). 大漢和辞典. 東京 : 大修館書店.
- 무라이 야스히코 외(村井康彦)(2005). 新版茶道美術手帳. 京都 : 淡交社.
- 이구치 가이센 외(井口海仙)(1975). 原色茶道大辞典. 京都 : 淡交社.

3. 研究論文

1) 한국

- 구자완(2005). 韓國과 中國의 「차 끓이기」 용어와 方法의 歷史的 考察.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애(2006). 일본 와비차(わび茶)의 성립과 전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백봉(1985). 일본의 家元制度가 傳統保全에 미친 영향. **무용한국**19, 무용한국사. 347-374.
- 김진숙(2001). 다경을 통해 본 당대의 음차문화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홍(2003). 일본다도문화사. 10, **월간 다도 10월호**, 35-39.
- 김현아(2002). 한일 차문화 교류가 센리큐의 「와비차」에 미친 영향 : 초암다실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근숙(2004). 천리휴를 중심으로 한 일본차문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상균(2005). 명말 문인들의 사유모식 고찰. **중국문학** 44, 한국중국어문학회. 154-169.
- 문화정(1984). 日本文化의 特異性에 關한 考察. **國際文化研究** 1, 청주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109-122.
- 미쓰다 가즈노부(光田和伸)저, 양나임 역(2006). 일본 다도의 양식과 전통. **호남문화연구** 38, 61-82.
- 박민정(2006). 『山上宗二記』에 나타난 다인관. 중앙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박전열(2005). 『남방록』을 통해 본 일본다도의 심미의식, **월간다도 2월호**,

84-89.

- _____ (2006). 일본다도 센케류의 성립과정과 의의. **일본사상 10**, 한국일본사상사학회. 64-65.
- _____ (2006). 일본근세 다도의 대중화와 비판론의 대두. **일본사상 11**, 한국일본사상사학회. 194-218.
- 송혜경(2005). 中国 点茶文化 発展史에 関한 研究. 한서대학교 건강증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경(2008). 茶事典籍을 통해 본 宋과 高麗의 茶文化 考察.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귀선(2000). 韓日 兩國의 茶道의 特性 考察-艸衣와 千利休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원경(1996). 北宋 茶의 普及과 茶法에 関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관호(2004). 일본 다도 연구.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지 10**. 349-374.
- 이은주(2004). 일본 *わび*茶的 성립에 관한 고찰 : 무라타 주코에서 센리큐까지.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향숙(2006). 한국과 일본의 차문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선(1993). 韓國茶文化에 나타난 儒家思想.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희(2005). 千利休의 茶禪 修行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란(1998). 茶道의 와비 一考察.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재(2004). 한일 차문화에 나타난 미의식 고찰.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외국

나라바야시 다다오(植林忠男)(1969). 近世煎茶道の成立について.

芸能史研究会誌 31. 1-32.

나카자와 히로유키 外(中沢弘幸)(1981). 現代煎茶道事典. 主婦の友社. 185-203.

도이 세쓰에이(土居雪映)(1973). 亭主の心得・客の心得. 煎茶全書, 主婦の友社.
28-37.

모리모토 신쿄(森本信光)(1973). 煎茶の流派. 煎茶全書, 主婦の友社. 301-312.

무라이 야스히코(村井康彦)(1985). 相伝と普及. 茶道聚錦 茶の湯の展開 5,
小学館. 206. 207-211.

센소시쓰(千宗室)(1975). 茶即宗教. 太陽 150, 平凡社. 13-90.

쓰쿠다 잇키(佃一輝)(1999). 去俗と清-煎茶の美意識の変遷. 茶道学大系 1,
淡交社. 289-312.

아와카와 고이치(淡川康一)(1973). 売茶翁とその時代の煎茶道界. 煎茶全書,
主婦の友社. 240-283.

오가와 고타쿠(小川後楽)(1999). 現代の煎茶. 茶道学大系 1, 淡交社. 313-339.

오야 유키에(大屋幸恵)(1999). 現代茶道修練者の意識. 茶道學大系 1, 淡交社.
235-266.

유가와 세이(湯川制)(1973). 煎茶の成立. 煎茶全書, 主婦の友社. 292-300.

하야카와 몬타(早川聞多)(1999). 売茶翁という事件-対客言志をめぐって.

茶道学大系 1, 淡交社. 267-288.

Hennemann, Horst S., 平山敬二 訳(1984). 山本正男 編. 茶道における美の移ろい.
芸術と民族. 玉川大学出版部, 93~117.

Hennemann, Horst S., 平山敬二 訳(1987). 山本正男 編. 茶の湯と茶道家元制度.
芸術と民族. 玉川大学出版部, 211~245.

ABSTRACT

A Study on Japanese Senchado

Kang, Hyon-Suk

Dept.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term Japanese tea culture often brings to mind *chanoyu*, a tea ceremony of preparing and drinking *matcha* with strict formalities. But Japanese tea ceremony is composed of largely two types, which are *chanoyu* and *senchado*.

The history of Japanese tea culture traces back to tea rituals brought in along with other Chinese civilizations by Buddhist priests such as Saichō(767-822), Kūkai(774-835) and Eichū(743-835) in the early Heian period(794-1192), which took root as tea ceremony within Buddhist temples.

But Japanese tea culture took off on a full scale when Myōan Eisai(1141-1215), a Buddhist priest of the Kamakura period returned from China during the Song Dynasty after studying tea seeds and the making of

matcha and sent a batch of tea seeds to his disciple Myōe(1173-1232) so that he may plant them in Togano'o in Kyoto. Since then, *chanoyu* has continued a long history, developing over 40 main schools including Noami(?-1476), Murata Shuko(1422-1502), Takeno Jo-o(1502-1555) and Sen Rikyu(1522-1591). As of July 2008, Urasenke, the largest school of Japanese tea ceremony, has 165 branches and 2 regional offices within Japan and 99 overseas offices in 35 countries, as is explained in the Urasenke homepage.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growth lies in the system of *iemoto*, within which *chanoyu*, same as other traditional art forms of Japan, has succeeded and developed itself. *Iemoto* refers to the system of familial generations of a school of traditional Japanese art, led by *iemoto*, who is the head of the family or house through which the art is preserved and handed down. A primary characteristic of this system is that there is a network of instructors called *natori*, who take charge of the passing down of the art from *iemoto* to the lower level students. The *natori* were authorized to instruct the art in place of *iemoto*, but did not have the right to issue a certificate. The *natori* system allowed the *iemoto* to oversee the lowest levels of students, since certificates were only issued by the *iemoto*. And when the number of the middle instructors grew, so did the income of the *iemoto*.

There are positive views of the *iemoto* system, such as its role in preserving Japanese traditional arts for the amount of time it has, but there are critical views as well. One criticism is that the *iemoto* system contributes to the pursuit of worldly benefits, which is far from the essential spirit of tea ceremony, or the idea of 'tea and Zen are one taste,' meaning that the world

of Zen and the tea ceremony are the same. A student has to pay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in unofficial remunerations and costs for various events and utensils, aside from official fees for lessons and certificate. The system of *hakogaki*, in which the value of a utensil escalates tremendously with *iemoto's* writing on the box is pointed out as a particular problem.

Senchado was born out of criticisms of the negative aspects of *chanoyu* developed under the *iemoto* system and the corruptness of Zen monks. The source of *senchado* can be found in "The Classic of Tea" by Lu Yu, based on the idea of 'clean behavior and thrifty virtue.' Throughout the Tang, Song and Ming Dynasties, the tea drinking practices in "The Classic of Tea" manner continued on, and drinking tea surrounded by an enchanted scenery came to be idealized by scholars and artists. Such customs were succeeded by the Tang poet Lu Tong(-835) and passed on to Japan by the Zen priest Yinyuan Longqi who was the founder of the Obaku sect, one of the three Japanese Zen sects.

This new *sencha* style was popularized among Zen priests and literary men by a person named Baisao(1675-1763). Baisao is said to have originated the *sencha* style, which reached its prime in the late Edo period(1603-1868) through the Meiji period(1868-1912). Compared with earlier tea ceremony practices, *senchado* has developed greater freedom in form. Today, there are many schools of *senchado* bearing a title that includes 'Baisa' because he was the founder of Japanese *senchado*. Begun by an old man who used to sell tea on the streets, *senchado* has spread among scholars and artists, to

take root as an enormous network of arts in Japan.

Adding the 39 schools registered in the National Japanese Senchado Union and all the other unregistered schools of *senchado*, there are currently about 100 schools which are active, manifesting the extent to which the *senchado* culture has grown. The essence of *senchado* is in its spirit. Even though the formal standards of *chanoyu* have not been excluded, the proud spirit carried by scholars and artists is central to *senchado*. *Senchado* is also a synthetic form of art incorporating the ideas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Stationery tools treasured by scholars such as brushes and ink stones were placed in the tea rooms which were decorated with patterns of flowers preferred by the scholars such as the plum, orchid, chrysanthemum and bamboo. Various elements of nature such as flowers, trees and fruits were applied on the interior to express the Taoist thought of eternal life and the drinking tea of tea was a way of seeking eternal youth, since it was considered a sacred medicine. A Buddhist idea of burning incense to purify the surroundings can also be found in *senchado*.

Nevertheless, when *senchado* adopted the *iemoto* system, it began to lose its initial motive and came to be criticized. While it had once stood for not adhering to a set form, it became formality-driven with all sorts of utensils and the annual *senchado* convention became somewhat of a tea utensil market. In this way, *senchado* became just as bound in convention as *chanoyu*. Why does formality matter so much to the Japanese?

In the Edo period, the *wabi* tea ideas of Sen Rikyu which were in accordance with Buddhist thoughts grew weak and tea ceremony came to be

ruled by Confucian thoughts, following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shogunate government. Rather than accepting the metaphysical elements of the Chu-tzu doctrines it had imported from Joseon, Japan transformed them into physical dimensions, and the theory of human nature as good was converted into the theory of human nature as evil. This is the background against which the unique Japanese tea culture of emphasizing formalities was shaped. *Senchado* proudly continues its tradition as a stream of Japanese tea culture and has parallels with the tea practices of Korean and Chinese scholars who used to enjoy the elegance of tea in the company of nature. Behind the history of *senchado* of over 400 years, there is the *iemoto* system, which is at the basis of Japanese thought structure. And the restrained aesthetic of the Japanese that is shown on the outside is actually under the constant influence of a gigantic pyramidal organization that is the *iemoto* system. Japan's continuing efforts to gain recognition as the world's country of tea also derives from the *iemoto* system.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illuminating the history of Japanese tea cultural development by examining the Japanese *senchado* culture with a focus on the *iemoto* system.

日文抄録

一般的に日本の茶道といえば、厳格な形式に従い抹茶を点てて喫む茶の湯が思い浮かぶ。しかし、日本の茶道は“茶の湯”だけではなく“煎茶道”というもうひとつの大きな茶道形式がある。

日本の茶文化の歴史は平安時代の初め、最澄・空海・永忠など、遣唐僧たちにより先進文明とともにもたらされ、禅院茶礼として始まった。鎌倉時代の僧、明庵栄西が宋に留学し、二度目の帰国時にお茶の種と抹茶の製造方法を持ち帰った。そして弟子の明恵にお茶の種を送り京都の梅尾に植えさせたのが本格的な日本茶文化の始まりだ。

茶の湯は能阿弥、村田珠光、武野紹鷗、千利休を経て現在に至るまで、主な流派だけでも四十を超える発展を重ねた長い歴史を持つだけでなく、日本茶道会で一番大きい裏千家流派の場合、二〇〇八年七月現在、日本国内に一六五支部と二支所、海外三十五カ国に九十九の海外支部を置く程、国際的な発展を遂げた。この成長の源は日本の他の伝統芸能と同じく、茶の湯が家元制という制度の下にその思想と作法を継承・発展させてきたからだ。

家元制度は日本の芸道を家伝として継承する家計の家元が流派を統率する制度である。家元制度の大きな特徴は、家元と呼ばれる大師匠と末端の弟子との間に家元の芸能を伝授する代行機関、つまり「名取」という師匠が置かれている点である。名取師匠は家元の代わりに芸能を教授することは出来ても、免許の発行権限は認めない制度である。名取を定めることによってどんなに多くの弟子がいても、家元を通してのみ免許状を発行するので、末端の弟子まで統制が可能なのである。従って中間の師匠の数が増える程、家元の収入が増えるのである。古い日本の伝統芸能が今まで温存されてきたのは、家元制度のおかげであるという肯定的な面がある反面、その問題点も指摘されている。その一つが茶道本来の姿、つまり禅の世界と茶道が同一であるという「茶禅一味」の精神とは遠い俗世の利益を求める部分が家元制度にはあるという点である。弟子は家元に月謝と免状の公の謝礼とは別に、非公式な

謝礼金と各種行事の出費、道具の購入費用などで相当な出費を余儀なくされている。特に家元のサイン一つに茶道具の評価が高まる「箱書き」というシステムも問題点として挙げられる。このような家元制度の元で発展してきた茶の湯の腐敗を批判し、腐敗した禅宗を批判し、その反発で生まれたのが煎茶道である。この煎茶道の源流は静行俟徳のお茶の精神に基づく陸羽の『茶経』に見出せる。

唐・宋の時代、明代にも茶経流の喫茶の風流は受け継がれ、文人高士の間で仙境に遊ぶ境地を理想とする風習があった。この風習は唐代の詩人盧仝を通して受け継がれた。またこれを日本に伝えたのは、日本の三大禅宗の一つである黄檗宗の始祖隠元禪師と言われている。

禅僧たちの間で流行した煎茶風習は売茶翁という人物によって当時の知識人層に広まり、売茶翁は煎茶道の始祖と呼ばれ、江戸末期から明治時代に全盛期を迎える。従来の茶道に比べ、形式の面で自由を追求する点が発展の契機となった。現在、煎茶道の流派の名前に「売茶」という文字が多いのは、彼が煎茶道の始祖であるという理由からである。一七三四年、道端で茶を売る老人・売茶翁により始まった煎茶道は、知識人・文人たちの間で流行し、日本の巨大芸能集団としてその地位を確かなものとした。現在、全日本茶道連盟に登録された三十九の流派と未登録流派を合わせ、百余りの流派が活動する煎茶道文化を形成した。

何よりも煎茶道で重要視されるのは茶の精神である。茶の湯の規範化された形式は排除しないけれども、文人高士たちが楽しんだ孤高な茶の精神は煎茶道が求める大切な中心思想である。また煎茶道は儒仏道の思想が内在する総合芸術であると言える。文房装飾で鮮卑たちが好んだ筆、硯などを茶室に取り揃え、梅蘭菊竹等鮮卑の趣向の花を飾ることで茶の湯と差別化した。また、多様な花、木、果物等の自然を室内に取り入れ不老不死の道教思想を表現し、道教が目指す不老長生の丹薬がまさに茶であったがゆえに、茶を喫むことで不老長生を夢見る道教思想が内在する。又お茶席で香を焚き周りを清める仏教思想も煎茶道

に見ることができる。

しかし煎茶道も家元制度を取り入れたことによって本来の意味が薄れてしまい、批判を浴びるようになった。形式に凝り固まらないことを掲げた煎茶道は、多くの茶道具の所持を強いられるなど形式化された。毎年開かれる煎茶道大会場は茶道具促販を思わせるなど、茶の湯のような形式化への道を歩むこととなった。

その思想的背景を見れば、江戸時代になると、身分による差別をなくし平等思想を主唱した仏教思想の延長線上にあった千利休の侘茶精神は薄れ、茶道の思想は幕府の政治理念にあわせ、仏教的茶道観から儒教的茶道観に変わった。そして朝鮮朱子学の形而上学的要素を取り入れたが定着せず、それを形而下学的形態に変えて日本に定着した朱子学は、言い換えれば性善説的思惟形態を取り入れ、それを性悪説的思惟形態に変えた形で定着したのだといえる。それが今日格式を重んじる日本の独特の茶道文化を形成したのである。

しかしながら煎茶道は、日本の茶道文化の一つの流れとして堂々と受け継がれ、韓国と中国の鮮卑(徳の高い文人層)が自然と共に風流として楽しんだ茶文化と相通ずる面がある。

日本の四百年も受け継がれてきた煎茶道の背景には家元制度があり、日本の思想の根幹を成している。外部から見ると整った美意識の裏には家元制度という巨大なピラミッド型の組織体があって、組織内部の人々は多かれ少なかれ気付かぬうちに本来の茶の精神から遠ざかり、形式化された茶道に陥っていくのである。また今日、日本の代表的文化として茶道が挙げられるのも家元制度のおかげであるといえる。

本研究では日本の煎茶道文化を家元制度を中心に考察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の茶道文化発展の背景を究明するのに役立てたい。

<부록 1> 전다사 연표

645	일본 다이카(大化) 개신
805	사이초(最澄)귀국. 日吉신사에 차를 심었다는 전설.
815	사가(嵯峨)天皇이 가라사키(唐崎) 행차 때 승려 에이추(永忠)가 차를 바쳤다고 하는 기록
835	사이초(最澄)와 입당 806년에 차씨와 진언종(真言宗)을 들여온 구카이(空海) 입적
970	전다를 엔라쿠지(延曆寺)에서 엄금함
1080	투다(鬪茶)풍 시작
1168	에이사이(榮西)선사 송에서 귀국
1191	에이사이 선사 두 번 째 귀국. 차씨를 전함.
1192	가마쿠라 막부 성립
1196	다점(茶店) 시작
1206	묘에(明恵)가 고산사 재건. 에이사이가 보내준 차씨를 도가노오에 파종.
1207	본차(本茶)의 시작.
1214	에이사이(榮西)의 『꼭다양생기』 저술
1337	일본, 무로마치 막부 성립
1416	투다회의 일종으로 조차(粗茶)를 사용하여 목욕, 주연(酒宴)을 겸비한 여흥을 주목적으로 하는 운각다회(雲脚茶會) 유행. 차한잔(一服茶) 등도 유행하기 시작
1443	일본의 예능사상에 깊은 영향을 준 노(能)의 제아미(世阿弥) 타계
1449	일본 차노유(茶湯) 시작
1467	일본의 전국 시대 시작
1467	오닌(応人)의 난 시작
1471	서원차의 완성자 노아미(能阿弥) 타계
1476	노아미 본 『군태관좌우장기(君台觀左右帳記)』
1481	무라타슈코에 사상적 영향을 준 이큐소준(一休宗純) 타계
1483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 동산(東山)에 은각(銀閣) 세움
1502	다인 무라타 슈코(村田珠光) 타계
1522	센리큐(千利休) 출생
1525	이 무렵 차노유의 여러유파 성립
1533	차노유의 기록 『송옥회기(松屋會記)』 시작.
1548	차노유의 기록 『천왕사옥회기(天王寺屋會記)』 시작.
1562	다인 기타무라 도친(北向道陳) 타계

1564	『분류초인목(分類草人木)』 완성
1573	모모야마 시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센리큐의 음다교유시기
1576	『주다론(酒茶論)』
1582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타계
1590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국 시대 통일
1591	센리큐 타계
1593	다인 이마이 소큐 타계
1598	도요토미 히데요시 타계
1603	일본, 에도 막부 성립 (~1867)
1632	다인 쇼군 도쿠카와 히데다다(徳川秀忠)타계.우지채다사(宇治採茶使) 항례 행사화.
1645	다인 호소카와 산사이(細川三齋) 타계
1646	다인 고보리 엔슈 타계
1653	일본각지 차세 부과
1658	센소탄(千宗旦) 타계
1672	다인 이시카와 조산(石川丈山)타계
1673	전다의 시조 은원(隱元) 타계
1673	다인 가다키리 세키슈(片桐石州) 타계
1675	다인 이씨오 소슈(一翁宗守) 타계
1682	시즈오카(静岡)차 거래 시작
1699	다인 후지무라 요켄(藤村庸軒) 타계
1735	전다가 바이사오 동산에 집을 짓고 매다 생활에 들어감.
1738	나가타니 슈엔(永谷宗円)이 새로운 증제차 성공.
1741	천가류(千家流) 다도에 새로운 특색을 가져온 칠사식(七事式)제정.
1748	고유가이(高遊外)저 『매산종다보략(梅山種茶譜略)』 완성
1756	오에다 류호(大枝流芳) 『세이완다화(青灣茶話)』 (후의 『전다사용집(煎茶仕用集)』)완성.
1763	바이사오 타계. 이케 다이가(池大雅)저 『매다옹게어(売茶翁偈語)』 완성
1809	다인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타계
1824	다나카 센노(田中鶴翁)가 전다테마에(手前)의 예법 제정. 오가와 가신(小川可進)이 오가와류(小川流) 창설.
1826	라이산요(賴山陽) 이 해 8월20일 일기 『賴山陽全伝日講』 에 바이사오의 전다를 「고상함을 희롱하고, 청유(淸遊)를 입으로 할 뿐」 입을 비평.
1831	전다인 다노무라 치쿠덴(田野村竹田)의 『다설도보(茶設図譜)』 간행
1832	라이산요 타계(76).
1836	야마모토(山本徳潤) 옥로차의 개발에 성공.

1838	가케쓰안류(花月庵流) 전다이에모토의 탄생.
1840	차노유 금령이 빈번함.
1848	전다도에 말차도 도입문제로 고심하던 다나카 센노(田中鶴翁) 타계.
1849	후카다 세이이치(深田精一)저 『목석거전다결(木石居煎茶訣)』 완성.
1855	전다인 오가와 가신(小川可進), 후카다 세이이치(深田精一) 타계
1857	『후락당깍다변(後樂翁喫茶弁)』(小川可進)刊
1866	메이지(明治)유신
1875	교토 마루야마(丸山)에서 대 전다회(大煎茶會)가 개최됨. 이 무렵부터 전다가 대유행.
1880	기타노(北野)신사 헌다보존회가 교토 7인의 다가(茶家)에 의해 조직됨.
1888	제3회 관서지방 영합공진회(聯合共進會)의 시기, 교토부 다업조합연합회의소가 전다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조사.
1895	일본 홍차 제조
1898	비전개방을 주장하며 다나카 센쇼(田中仙樵) 대일본다도학회(大日本茶道學會)를 시작.
1956	『다도고전전집(茶道古典全集)』 12권 단코샤(淡交社)에서 발간

<부록 2> 전다도 유파

2-1. (전일본전다도연맹 소속 유파)

	유파명(流波名)	이에모토(家元)	특징(지역)
1	지소쿠안류(知足庵流)	미네자키 지센(嶺崎千泉)	가고시마
2	고후류(光風流)	오타니 고키(大谷光基)	나카쓰
3	니폰레이도오가사와라류(日本禮道小笠原流)	모로이즈미유엔(諸泉祐園)	
4	쇼엔류(松筵流)	나카무라소케이(中村松繼)	히로시마
5	고키류(光輝流)	사사키 치쿠잔(佐々木竹山)	
6	잇사안류(一茶菴流)	쓰쿠다 잇키(佃一祐)	오사카
7	오가사와라류(小笠原流)	오가사와라 슈도(小笠原秀道)	
8	구모이류(雲井流)	상인후지앙(三陰不二庵)	야마토다카다
9	니조류(二條流)	니조 가소(二條雅莊)	교토
10	호엔류(方円流)	미나구치 호엔(水口豊園)	교토
11	오바쿠바이사류(黄檗賣茶流)	나카자와 히로유키(中澤弘幸)	오즈
12	즈이가안류(瑞芽庵流)	도리고시 스이센(鳥越水仙)	후쿠이
13	분보우류(文房流)	도쿠야마 게이호(徳山圭峰)	
14	쇼후류(松風流)	다카라지마 산포(宝島三宝)	도야마,나고야
15	오바쿠쇼후류(黄檗松風流)	가토 큐가쿠(加藤久岳)	나고야
16	군푸류(薰風流)	가토 게이쇼(加藤景正)	나고야
17	쇼후류(松風流)나고야(名古屋)	센다 바이호(仙田梅豊)	나고야
18	곡센류(玉泉流)	가토 교쿠호(加藤玉峯)	
19	바이사류(賣茶流)	다카토리 유센쿠쓰(高取友仙窟)	
20	쇼게쓰류(松月流)	와타나베 소케이(渡辺宗敬)	
21	세이후류(靜風流)	운노 순토(海野俊堂)	시즈오카
22	오바쿠고후류(黄檗弘風流)	다카토리 쇼토(高鳥尙堂)	시즈오카
23	세이잔류(靜山流)	요코야마 다이잔(横山大山)	
24	히가시아베류(東阿部流)	도이 셋쇼(土居雪松)	요코하마
25	소코안류(松香庵流)	시마다 세이하(嶋田靜坡)	
26	오바쿠히가시혼류(黄檗東本流)	고바야시 다이카쿠(小林代鶴)	도쿄
27	아이메이류(愛茗流)	기무라 유테이(木村幽亭)	도쿄
28	오바쿠유메이류(黄檗幽茗流)	미우라 유코(三浦佑晃)	도쿄
29	오바쿠기쿠센류(黄檗掬泉流)	유게 리토(弓削利堂)	미타카
30	쇼후가게쓰류(松風花月流)	다카노 후세키(高野楓石)	도쿄
31	우라쿠류(羽樂流)	구보 소류(久保宗劉)	도쿄
32	산사이류(三彩流)	호시 유조(星悠丈)	센다이

33	오다류(織田流)	요시와라 난순(吉原南俊)	센다이
34	사야마류(狹山流)	하세야마 호키(長谷山芳喜)	
35	비후류(美風流)	나카타니 비후(中谷美風)	오사카
36	시바야마류(柴山流)	나와타 쇼토(繩田松濤)	
37	쇼후류(蕉風流)	고바야시 쇼게쓰(小林蕉月)	
38	산키테이바이사류(三葵亭賣茶流)	시마무라 센유(島村仙友)	
39	쇼후샤(笙風社)	쇼지 단푸(庄司淡風)	

2-2. 기타 전다도 유파

	유파명(流波名)	이에모토(家元)	특징
1	아베류(安部流)	사카모토 다이사다(坂本大定)	
2	오바쿠가케쓰류(黃檗花月流)	마쓰모토 조스이(松本如翠)	요코하마
3	오가와류(小川流)	오가와 고라쿠(小川後樂)	교토
4	가게쓰류(花月流)	쿠사와케 스이게쓰(草別翠月)	히메지
5	가게쓰안류(花月菴流)	다나카 고히(田中香坡)	오사카
6	큐카(九華)	큐카 로스(九華露朱)	
7	고후센차례시키키(皇風煎茶禮式)	모리시타 지키신(森下直眞)	교토
8	고게쓰안류(湖月庵流)	히로세 가즈야(廣瀬千也)	
9	슈겐류(習軒流)	사카다 하쿠엔(坂田柏苑)	고베
10	쇼잔고류(尚山御流)	(秦常春庵)	
11	쇼후세이사(松風清社)	(泉谷光峰)	나고야
12	즈이호안류(瑞芳庵流)	니시야마 호센(西山芳仙)	오사카
13	세이게쓰류(淸月流)	다테누마 시바미즈(蓼沼柴水)	
14	세이센유메이류(淸泉幽茗流)	후루카와 준카(古川純香)	
15	세이후류(正風流)	나카무라 조센(中村常泉)	도쿄
16	센차도각카이(煎茶道學會)	니시야마(西山泰生)	도쿄
17	센차레이호아오야마류(煎茶禮法 靑山流)	가미조 고쇼(上條香祥)	
18	타이잔류(泰山流)	호조 타이잔(崩場泰山)	교토
19	꼭센엔슈류(玉川遠州流)	오모리 소싱(大森宗晋)	교토
20	바이사류(賣茶流)	와다 오우라(和田翁浦)	오사카, 도쿄, 나고야, 교토, 미카와
21	바이사세이류(賣茶正流)	쓰쓰미 고세키(堤好石)	히로시마, 도쿄
22	바이사치쿠엔류(賣茶竹延流)	마쓰다 엔운(松田延雲)	
23	바이사혼류(賣茶本流)	와다나베(渡辺琢宗)	도쿄

24	바쇼류(芭蕉流)	시마다 쇼주(島田蕉壽)	도쿄
25	히사시타이잔류(東泰山流)	요시이 엔슈(吉井圓秀)	
26	후인류(風韻流)	도다 슈코(戶田秋鴻)	
27	분가세이안류(文雅靜庵流)	有川清峯	

<부록 3> 차노유의 유파

3-1. 차노유의 유파 (센리큐 이전의 유파)

유파명	창시자	특징
나라류(奈良流)	무라타 슈코(村田珠光)	
히가시야마류(東山流)	노아미(能阿弥)	
사카이류(堺流)	다케노 조오(武野紹鷗)	

3-2. 센리큐 시대에 생겨나 현존하는 유파

유파명	창시자	특징
슈코류(珠光流)	무라타 슈코(村田珠光)	
시노류(志野流)	시노 소신(志野宗信)	시노류 香道の 이에모토
미즈호류(瑞穂流)	다마키이토쓰(玉置一咄)	고베(神戸)를 중심으로 활동

3-3. 센리큐와 동시대에 창시 된 유파

유파명	창시자	특징
센리큐류(利休流)	엔조보슈엔(圓乘坊宗圓)	센리큐의 제자
야부노우치류(藪内流)	야부노우치겐주(藪内劍仲)	센리큐의 제제자
아즈마야부노우치류(東藪内流)		華道宣法未生流와 함께 전하여, 가나가와(神奈川), 아오모리(青森) 등지에서 활동
남보류(南坊流)	남보소케이(南坊宗啓) 始祖	
오리베류(織部流)	후루타오리베(古田織部)	利休七哲중의 한사람
우에다소코류(上田宗箇流)	우에다 소코(上田宗箇)	古田織部の 제자
엔슈류(遠州流)	고보리 엔슈(小堀遠州)	古田織部の 제자

고보리엔슈류(小堀遠州流)	고보리엔슈(小堀遠州)	古田織部の 제자
야마토엔슈류(大和遠州流)	小堀蓬雪	小堀遠州의 3남
안라쿠안류(安樂庵流)	安樂庵策伝	현존하는지 불명
다마가와엔슈류(玉川遠州流)	大森漸齊	小堀遠州의 제자
고게쓰엔슈류(壺月遠州流)		
우라쿠류(有樂流)	織田有樂	
사다오키류(貞置流)	織田貞置	織田有樂의 조카 信貞의 아들
산사이류(三齊流)	一尾伊織	利休七哲의 한사람인 細川三齊의 제자
오이에류(御家流)	安藤信友	一尾伊織의 제자 米津田賢에 師事
히고코류(肥後古流)		熊本藩에 전승되어 센리큐류가 전해진 것.
후루이치류(古市流)	古市宗庵	圓乘坊宗圓의女婿
고보리류(小堀流)	小堀長齊	
가야노류(萱野流)	萱野甚齊	古田織部の 조카. 현존하는지 불명
오가사와라다도고류(小笠原家茶道古流)		

3-4. 센도안계(千道安系) 유파

유파명	창시자	특징
소와류(宗和流)	金森宗和	오리베, 엔슈의 영향을 받음.
세키슈류(石州流)	片藤石州	道安제자인 桑山宗仙에 사사
소엔케이(宗猿系)	下條信隆, 石州庶子	
고세키슈류(古石州流)	藤林宗源, 石州家老	
오구치하(大口波)	大口樵翁	
시미즈하(清水派)	清水動閑	
노무라하(野村派)	野村休盛	
이케이하(怡溪派)	怡溪宗悅	
친신류(鎮信流)	松浦鎮信	
후마이류(不昧流)	松平不昧	
소칸류(宗觀流)	井伊宗觀	

3-5. 센소탄계(千宗旦系) 유파

유파명	창시자	특징
산센케이(三千家)		센리큐의 후처의 아들 千少庵 계통. 堺千家의 방계.

오모테센케(表千家)	소탄의 3남	不審庵
우라센케(裏千家)	소탄의 4남	今日庵, 오모테(表)센케에서 분파.
무샤노코지센케(武者小路千家)	소탄의 2남	官休庵, 오모테(表)센케에서 別派.
소헨류(宗徧流)	山田宗徧	宗旦四天王
요겐류(庸軒流)	藤村庸軒	宗旦四天王
요겐류(庸軒流宗積諦觀派)		
후사이류(普齊流)	杉木普齊	宗旦四天王(현존하는지 불명)
히사다류(久田流)	久田宗榮	表千家의 친척 및 분파.
호리우치류(堀内流)	堀内仙鶴	表千家 6대 覺々齊의 제자
마쓰오류(松尾流)	松尾宗二	(樂只齊) 表千家 6대 覺々齊의 제자
미타니류(三谷流)	三谷宗鎮	表千家 6대 覺々齊의 제자
교쿠젠류(曲全流)	河村曲全	表千家 6대 覺々齊의 제자
에도센케(江戸千家)	川上不自	表千家 7대 如心齊의 제자
후하쿠류(表千家不自流)	川上宗什	川上不自의 제자
후하쿠류이시즈카하(不自流石塚派)	石塚宗通	川上不自의 제자
미야코센케(都千家)	森山宗江	江戸千家의 분파
미야비류(雅流)	水谷宗雅	不自派의 분파
에도센케신야나기류(江戸千家新柳流)		
오모테센케미야코류(表千家都流)		
오모테센케간게쓰안(表千家看月庵)		
하야미류(速水流)	速水宗達	裏千家 8대 又玄齊의 제자
다이니폰차도각카이(大日本茶道學會)	田中仙樵	裏千家 13대 원능제의 제자.후에 石州류의 비전도 받아 流儀를 반납함.
소탄고류(宗旦古流, 일명: 一身田派)	圓猷上人	眞宗高田派 本山 專修寺에 전해 옴.

3-6. 系譜不詳의 유파

유파명	창시자	특징
쥬구지고류(中宮寺御流)		奈良 中宮寺에 전해 옴
무라사키노센케(紫野千家)		尾張德川の 家老家에 전해오는 今澤流의 계보인 듯. 현재 자위대등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계보는 불명.
고카잇신류(覺花一心流)		

다도후지안류(茶道富士庵流)		
가가류(燗々流)		
하자와류(羽澤流)		
PL사도(PL茶道)		
운텐신도류(雲伝心道流)		